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Angel Club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Angel Club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Angel Club>

계간 / 2017년 8월 9일 등록 / 등록번호_수성, 바00009
2018년 2월 28일 발행 / 인쇄 : ㈜케이프린텍(한금재)
발행기관 : 대구FC 엔젤클럽(회장 이호경)
발행·편집·디자인 : ㈜솔트커뮤니케이션즈(최종태)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163(중동) (우. 42151)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우. 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gangel1004@naver.com

SPRING,
2018, Vol.3

대구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합니다



2018시즌 대구FC의 「스플릿 A 도전」을 응원합니다

5분 시지생활권 지하철 2호선 정평역과 달구벌대로 계속교통권

남천 강변라이프 수변공원을 가깝게 누리는 힐링라이프

명품 브랜드아파트 최고 브랜드 코오롱하늘채의 프리미엄



경산 정평이 아껴둔 자리! 모두가 꿈꾸고 기다렸던 브랜드!
기다림보다 더 큰 감동을 품은 특별한 세상이 열립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프리미엄 - 정평역 코오롱하늘채



대한민국 스타트업, IBK창공으로 날아오르다!



IBK동반자금융이 만든 창업지원, IBK창공

대한민국 혁신창업을 지원하는 IBK기업은행이 20개의 스타트업과 함께 창공 1기를 시작합니다. 56년간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온 노하우로 성공 창업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IBK창공이란?
'창공(創工)'을 통해 창공(蒼穹)으로 비상하라는 의미를 가진 '창업(創業) 공장(工場)'의 줄임말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공간과 육성프로그램입니다.

IBK창공만의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 1 전용 창업 오피스 공간 무상 제공
- 2 전문 멘토링을 통한 육성 프로그램 지원
- 3 IBK금융그룹의 창업 금융지원



Chagall's Village
사람의 마을

당신은 샤갈입니까?

일과 사랑 모두 성취한 현대미술의 별
그리운 고향의 꿈을 걸작에 담아낸 샤갈!
샤갈의 감성을 간직한 이 시대의 별에게
유럽에서 온 테라스하우스를 드립니다

유럽에서 온 테라스하우스
사람의 마을



사람의 마을 | The Original Townhouse

근대 영국귀족들이 도심과 전원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 교외에 지은 집이 타운하우스이다. 샤갈의 마을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합친 한국형 타운하우스의 원본을 지향한다. 도시와 자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 나와 우리의 어울림을 통해 삶과 삶의 균형을 이룬 신주거문화를 열어간다.

CONTENTS



Angel-with-us

10 쿤밍에서의 '약속', 대구로 릴레이 하다

16 엔젤카운트다운

30 엔젤소개

다이아몬드 엔젤 :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

서울엔젤 신세계 부사장 문길남

34 기업탐방

(주)성진포머 손성태 대표

36 엔젤과 손잡은 대학 ②대구대학교

40 2018 VISION

2018년, '엔젤 2000시대 연다'

나는 엔젤 릴레이앙이다

엔젤族이 겨울을 이기는 법 '수요 만남의 날'

54 천사들의 샴페인을 터뜨리다

58 토치릴레이는 올림픽 성공! 엔젤릴레이는 2018 달성!

60 박현주 엔젤, 대구FC선수단에 전통된장 후원

62 엔젤 단톡방 올해로 2년째

66 엔젤이 보는 대구FC 2018!

72 꽃의 도시 '쿤밍'에서 꿈꿨던 스프링캠프!

76 "왜 엔젤인가?"

80 첫 번째 '엔젤의 사나이'는 누구?

82 2018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86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92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안내 및 가입신청서



DAEGU FC HOME KIT

DAEGU FC



Daegu FC Report

96 대구FC, 2018시즌 주장으로 한희훈 임명

98 기능성 강화된 유니폼 입고 '스플릿A'도전!

100 프로축구! 주중에도 한다

102 대구FC, 2018시즌 일정 확정

104 대구FC 지지자연대 그라지에 응원가

106 대구FC 태양의 전사들

Half Time Talk

122 축구의 나라를 가다

③스웨덴

126 현대사진예술의 거장을 만나다.

③ 세바스티앙 살가도

128 사랑스런 봄 햇살, 어떻게 할 것인가?

132 스포츠 활동 중의 근육과 힘줄손상

134 보험특집

#1.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이해

138 FOOTBALL & CULTURE CALENDER

143 독자게시판

우편엽서 /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 후원금 안내



Angel Club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Angel-with-us

우리 모두를
합친 것 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
-켄 블랜차드



쿤밍에서의 ‘약속’, 대구로 릴레이 하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 조광래 대구FC 대표의 프로젝트 'A'

A – 스플릿 대구FC! Amazing 엔젤클럽!

‘약속의 땅’쿤밍에서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과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가 만났다. 지난해 남해 국내전지훈련지를 방문한 바 있는 이회장은 올해는 ‘봄의 도시’로 불리는 중국 쿤밍으로 선수단 격려차 날아갔다. 엔젤클럽이 해외전지훈련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쿤밍은 2016년 대구FC가 클래식 승격, 2017년 클래식 잔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린 프리시즌 캠프로 대구FC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이나 다름없다. 올해도 2018 시즌 스플릿 A 진출을 위해 1월초부터 일찌감치 캠프를 차렸다. 선수단 격려차 쿤밍을 방문한 이회장과 조대표가 자연스럽게 만나 대구FC와 엔젤클럽의 2018년 한해를 전망했다. 이 자리에서 이회장은 변함없는 후원에 이어 ‘어메이징한 엔젤클럽’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릴레이 했고, 조대표는 스플릿 A진출을 하겠다며 ‘프로젝트 A’를 약속했다.



챌린지부터 클래식까지 수많은 고비 함께 한 우리는 ‘동지’

초봄 날씨다. 영하의 추위가 계속 된 한국과 달리 엔젤방문단을 맞은 이국땅은 훈훈하다. 서둘러 짐을 꾸린 탓에 어수선 하기는 했지만, 낯선 땅에서 조광래 대표와 선수들을 만날 마음으로 이호경 회장은 들떠있다. 반가울 수밖에 없다.

“조광래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국이 아니라 바다 건너 중국 쿤밍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 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그래도 참 건강해 보이시네요?”

반갑기는 조대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가 떠오른다.

“어서 오이소! 지도 그렇습니다. 원래 집 떠나 타지에 가면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까지 찾아주시다니... 엔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해가 생각나는군요.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회장님과 엔젤님들이 전지훈련지인 남해를 찾아주셨지요. 그 힘으로 아마 클래식 잔류를 이뤘던 것 같아요.”

이 회장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겨울에 웬 비가 그렇게 내리던지, 남해로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 비를 뚫고 간 덕분에 서로의 만남은 더 감격적이었다.

“그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감회가 새롭군요. 가만히 돌아보면 고비 고비 넘어오면서 ‘동지’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명문구단 대구FC’라는 목표를 가진 동지 말입니다. 챌린지에서부터 승격, 그리고 클래식 잔류까지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떠오르는군요. 대표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다. 어느덧 동지가 돼버렸다. ‘축구’로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되다니... 두 사람의 인연을 따지자면 이것보다 기막힌 게 없다. 한사람은 ‘축구’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승부의 세계에 도전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업가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러다 ‘대구 FC’라는 이름으로,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의기투합한 것이다. 무엇보다 조대표는 각자의 생업으로 바쁜 엔젤들이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열심히인지, 감탄할 따름이다. 그래서 엔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한다.

“우리가 본업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회장님이나 우리 엔젤님들은 본업 내 핑개치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지난해에는 홈경기는 물론 원정까지 오셔서 응원하시고 정말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엔젤을 봐서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엔젤은 우리의 ‘본업’? 조대표 엔젤의 열정에 항상 감사한 마음 뿐

이회장도 아차 싶었다. 가끔 일을 하다가도 불쑥불쑥 끼어드는 대구FC와 엔젤 생각에 자신도 놀라곤 했다. 무엇이 본업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다.

“이제 우리도 ‘엔젤’이 본업 됐습니다!(웃음) 자나 깨나 ‘엔젤’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엔젤님들이 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계세요. 더구나 이번 개막전이 포항원정 경기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가을 포항원정에서 통쾌한 승리로 스스로 클래식임을 입증해 보였지요. 그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축구인 출신 경영자인 조대표는 특히 축구에 대한 엔젤의 사랑이 고맙다. 단순히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에 대한 애정이 밑바탕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구단에 대한 금전적인 후원도 감사드리지만, 저는 엔젤님들의 축구사랑에 더 감동하고 있어요. 포항전도 그렇지만 지난 해 광주원정경기가 더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였는데, 빗속에서도 엔젤원정대가 광주까지 오셔서 끝까지 비를 맞으며 응원해주셨지요.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감동’이라고 했다. 그것은 단지 조대표 만의 몫일까? 엔젤 역시 원정응원을 통해 ‘감동’을 경험했다. 이회장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공식적인 단체 원정이었는데 비가 오는 중에도 드라마 같은 하루였지요. 당시 축구가 11명 하는 지도 몰랐던 여성 엔젤님은 그날 이후 완전 축구 마니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빛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극장 끝은 축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이었지요. 특히 대구FC가 클래식 잔류를 하면서 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엔젤님들도 조대표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회장은 이런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쿤밍전지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짐을 꾸린 것이다.

비시즌에도 여전히 엔젤들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일까? 엔젤 방문단에 대한 고마움을 조 대표는 물론 선수들도 알고 있다고 한다. 선수들은 이제 엔젤로고가 있는 연습복을 입으면서도 ‘엔젤’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한다. 조대표의 그런 말을 들은 이회장은 급하게 꾸린 중국행이었지만,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아예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방문단을 만들어볼까 생각중이라고 조 대표에게 귀띔했다.

고지대의 봄 날씨 쿤밍, 훈련 시설 개선으로 최적조건 갖춰

“생각 같아서는
선수와 함께 며칠 동안 머물며
올해 엔젤클럽 구상하고 싶어”

이회장은 조대표와 함께 잔디 위를 걸으면서 어느덧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대구에서의 일들은 아득해졌다. 마치 선수단의 일원이 된 듯 했다. 약속의 땅이라 불리는 쿤밍의 훈련여건도 궁금해졌다.

“어제 저녁에는 생각보다 좀 쌀쌀하다 싶었는데, 오늘 나와 보니 훈련하기에는 그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선수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며, 올해 엔젤클럽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지훈련을 좀 하고 싶습니다(웃음).”

이회장은 국내의 복잡한 개인적인 일들을 잊어버렸다. 그저 여기에서 엔젤클럽의 2018년을 구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 대표 역시 환영이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곳은 잡념 버리고 한 곳에 집중하기 좋은 곳이에요. 저 역시 이곳에서 선수단 지원과 함께 구단 전체 운영방안을 다시 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회장님도 저와 함께 여기서 2018년을 구상해보시지요(웃음).”

카이온·지안 등 새 외국인선수, 에반·주니오 능가 예상

사실 조대표의 선수단에 대한 지원은 남다르다. 취임 초기부터 ‘축구’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시작했다. ‘축구’가 가장 좋은 상품이고, ‘축구’를 통해 시민과 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경영철학이다. 그 가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대구FC도 자리잡아가고 있다. 올해도 안드레 감독과 항상 의견을 나누며 구단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광래식 ‘축구경영’은 올해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승격 첫해를 잘 보냈어요. 처음에 좀 뼈격거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만의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축구’에 집중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흐름도 읽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올해에도 성공한다면 앞으로 대구만의 축구경영이 꽃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표의 설명을 들은 이회장은 ‘축구경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축구경영’의 핵심이 될 선수들도 궁금했다. 더구나 지난해 좋은 활약을 한 에반드로와 주니오가 팀을 떠나면서 걱정하던 터였다. 조 대표는 친절하게 궁금증을 풀어줬다.

“이번에 들어온 지안과 카이온도 좋은 선수들입니다. 스타일은 달라요. 이 두 선수는 기술을 가진 선수들이죠. 오히려 우리와 궁합이 더 잘 맞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에반과 주니오를 능가할 것 같다는 평가가 흘러나와요. 팀에도 빨리 적응하고 있고요. 한때 강원에 있었던 카이온은 당시에 너무 어려서 적응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세징야와 같이 뛰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안은 카이온에 비해 경험도 많은 만큼 구단에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박서는 조심스럽지만,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조 대표는 이어서 국내 선수의 현황도 덧붙였다.

“빠져나간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아울러 그에 맞게 추가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어요. 조현우선수의 기량은 이미 알려졌고, 한희훈도 캡틴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선민 자리에는 황순민이 잘 해줄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김진혁, 홍승현, 김대원, 홍정은 등 지난해 성장한 어린 선수들도 기대해 봐야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더 진중하라고 주문하고 있어요.”

조대표는 순간 지난해 초기의 어려움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대구만의 스케줄대로 준비해왔지만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구단의 대표는 무겁고 깊어져야 했다. 선수 스스로를 믿게 해야 했다. 그 믿음이 결국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클래식에 차차 적응하고 익숙해졌다.



엔젤 2000명 시대 목표로 조직확대, 엔시오 확대에도 최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것은 엔젤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엔젤활동을 돌아봤다. 스포츠분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자발적인 ‘후원릴레이문화’는 잠자던 대구를 일깨웠다. 초기 멤버들과 함께 다른 색깔은 철저히 배제하고 ‘지역사랑’과 ‘축구사랑’이라는 순수한 가치만으로 밀고 나왔다. 마음이 통했다. 곳곳에서 엔젤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엔젤들이 고맙다.

“처음에는 ‘해도 잘 되겠냐?’, ‘하다가 말겠지’했지만, 우리 엔젤님들, 독심이 대단했습니다. 시작부터 박수 받고, 그랬다면 이런 내용이 쌓이지 않았을 거예요. 초기 엔젤부터 ‘축구사랑’, ‘대구사랑’이라는 철학을 갖고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주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젤 역시 올 해가 중요합니다.”

엔젤 초창기 ‘될까?’ 걱정 한다면 한다 정신 엔젤독심으로 이겨내

조대표는 이런 이회장의 모습에서 엔젤의 올해가 기대됐다. 이회장은 그동안 구상했던 올해 엔젤의 모습을 그려봤다.

“지난해 1004명 엔젤 달성에 조기 성공했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쉽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올해는 외적으로는 2018명 회원확보가 목표입니다. 회원 2000명이 넘으면 1000명일 때와는 볼륨이 달라집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수지만 2000명이 넘으면 그 자체로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하나의 ‘엔젤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조대표는 엔젤의 계획을 듣고 또 한 번 놀랐다. 지난해 1004명도 대단한 일인데 이번에는 엔젤 2000시대를 열겠다고 하니 말이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회장도 공감했다.

“솔직히 준비 없이 갑자기 볼륨이 커지다 보니 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에 맞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엔젤 전용 앱과 홈페이지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00명 규모면 보다 쉽게 엔젤에 가입하고 대구FC를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 내적으로는 엔젤들을 보다 많이 축구장으로 찾아오게 해서 엔젤의 ‘진성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으로도 엔젤이 될 수 있는 ‘엔시오(엔젤+소시오)’에도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19년 대구전용구장 시대를 맞아, 경기장이 가득 차는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선수들에게 더 다가가는 ‘축구덕후’ 엔젤

이 회장은 구단의 성적도 엔젤 확장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성적도 좋고, 축구도 재미있으니 엔젤들도 더 신이 났다고 한다. 이제 엔젤들은 대구FC를 ‘우리 팀’이라 생각하고, 선수들도 ‘우리 선수’라고 생각하니 애정이 더 생기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선수들에게 더 다가가겠다는 것이 이회장의 생각이다.

“MOA(Man of Angel)’라고 해서 엔젤시상제도 둘까 합니다. 지난해 연맹에서 부과한 벌금을 위해 모은 성금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시 선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모은 만큼 선수들을 위해 쓸 생각이예요. 대구FC 홈경기 시 골을 넣은 선수도 좋지만 엔젤의 정신을 살려, 자신을 희생하고, 팀을 위하는 선수, 대구를 사랑하는 선수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군 리그인 R리그에도 적용하는 등 젊은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계획이에요.”

조 대표는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고 그에 발맞춰 주는 엔젤이 정말 같은 길을 가는 동지 같았다. 선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게 분명했다. 의욕 넘치는 이회장에게 “정말 R리그가 아니라 말그대로 ‘엔젤리그’가 될 것 같다”고 덕담을 했다. 이회장은 응원군을 얻은 듯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 더 힘이 납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성적은 물론 관중과 흥행에서도 성공적인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내년 전용구장 시대를 맞으면 정말 ‘축구는 대구’, ‘대구엔 엔젤’이 될 것 같습니다.”

이회장의 열정에 조대표도 화답했다.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선수들은 물론 스태프, 프런트가 하나가 될 것이고, 엔젤과도 톱톱 뭉칠 것입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엔젤님들이 그리는 2018년을 위하여 저도 구단 대표로써 열심히 도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회장은 봄의 도시 ‘쿤밍’ 방문 이후, 봄이 찾아온 대구에서 다시 조대표를 만났다. 쿤밍에서의 만남 때문인지 각별한 재회였다. 전체적으로 선수단이 안정되고 있지만, 개막을 앞두고 ‘대구의 에이스’라 불리는 세징야의 부상 소식에 이회장의 마음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지난해 초기에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이겨냈다. 서로가 함께 하면 이겨내지 못할 게 없다. 이번에도 조대표와 이회장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약속의 땅’ 쿤밍에서 한 약속을 지키자고, 다짐하며 환하게 웃었다.



1004

Angel CountDown

해냈다!

엔젤클럽이 드디어 엔젤회원 1004명 모집을 달성했다!

엔젤 카운트다운은 엔젤 1004명 달성의
마지막 자리를 채워준 992호 엔젤부터 1004호 엔젤을 소개하며

1004명 달성을 자축하는 자리다.

엔젤클럽이 진정한 1004(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1004호
유병완 엔젤

D-12
992호

박한상 엔젤

Angel
Club

서울 엔젤 박한상 ‘엔젤’을 통한 고향 사랑에 자부심 엔젤서울 지부 생기면 적극 참여의사 밝혀



서울에서 엔젤활동을 하고 있는 박한상 엔젤(갑을상사그룹 (주) 대표이사)은 약 30년 전에 사업 확장을 위해 대구를 떠났지만 여전히 지역과 많은 인연을 맺고 있다. 현재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 자동차, 해외진출사업으로 인해 분기에 1, 2번씩은 방문하고 있으며, 그럴 때 마다 고향의 푸근함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중앙부처, 공사·공단, 대학·연구소,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구 출신 전문가들의 모임인 ‘달구벌포럼’에서 회장을 맡으면서 대구FC를 소개받았고, 이번에 고향사랑을 실천하고자 후원하게 됐다. 실제로 박한상 엔젤은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대구FC를 종종 접하고 있고, 대기업의 후원 없이도 K리그 1부 클래식에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천사데이’행사에 참석 하지 못한 박한상엔젤은 “대구FC를 후원하는 1004명의 회원들이 모인 행사라고 들었고, 이토록 열정적으로 지역과 축구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이 엔젤클럽 회원 중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다.

‘서울에도 엔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에 박한상엔젤은 “서울에서도 저같이 멀리서 응원하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니 놀랄 따름입니다.”라며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면 엔젤님들 만나는 기회가 더 늘어날 거 같아 기대가 됩니다.”라고 반가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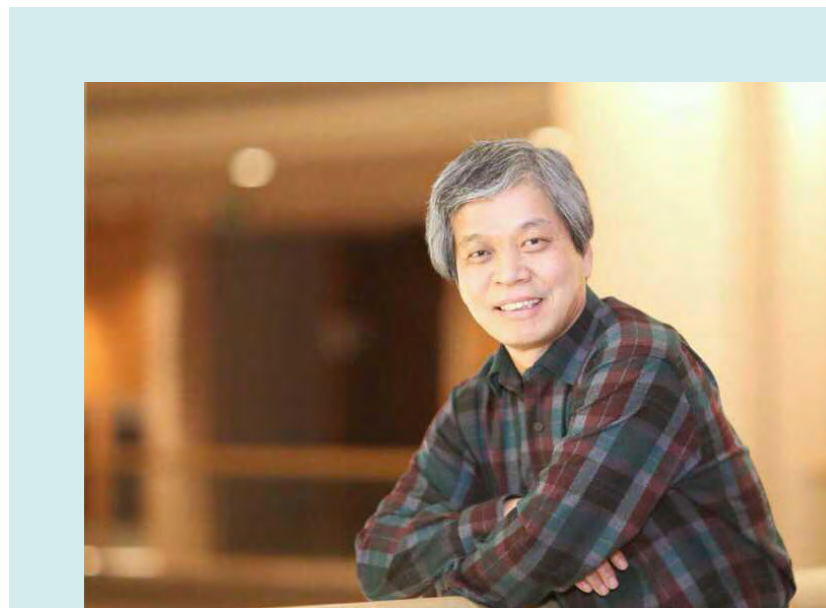
박한상엔젤이 몸담고 있는 갑을상사그룹은 대구에서 섬유산업으로 시작해 자동차부품, 비철금속, 환경, 병원 등을 운영하는 6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 전기차, 환경, 화장품 등의 여러 사업과 관련해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박한상엔젤은 “앞으로도 대구시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사업뿐만 아니라 대구FC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대구FC 파이팅!”을 외쳤다.

D-10
994호

김정철 엔젤

Angel
Club

모발 이식의 대가 김정철, 994엔젤 합류 대구FC이사로 응원릴레이에도 참여 올 한해도 선수들 잘해줄 것으로 믿어



제994호 엔젤은 세계 최고 모발이식 창시자로 알려진 경북대 모발이식센터장 김정철 박사다. 경북대병원이 내세우는 스타 의사 중 한 명으로 이 분야의 대가며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질 정도다. 지금도 김정철 엔젤의 진료실은 이식수술을 받으러 찾아온 국내외 환자로 넘쳐난다고 한다. 김정철 엔젤과 관련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1992년 자신의 다리에 직접 머리카락을 모근 꽤 이식했는데, 여전히 잘 자라고 있다고 한다. 모발이식에 확신이 없는 환자에게 말이 아니라 직접 바지를 접어 보여주면 쉽게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김정철 엔젤은 대구FC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열린 ‘천사데이’에 시간을 쪼개어 직접 참석하는 것은 물론, 주위에서 구단 소식이 전해지면 ‘우리팀’이라 생각들어 한 번 더 보게 된다고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도에는 대구FC 이사로 있으면서, 대구FC의 릴레이 캠페인인 ‘힘내라 대구! 으랏차차!’에 예영숙 엔젤과 함께 후원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시민구단 발전에 대한 해답도 명확했다. 자신이 다리에 이식한 머리카락을 보여주듯,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로 보여 주어야한다는 이야기다.

“대구FC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팀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타플레이도 배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구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김정철 엔젤은 이를 위해 엔젤클럽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다. 일단 회원수를 늘리고, 이들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막을 앞두고 김정철 엔젤은 “대구FC를 응원하는 순수 시민단체인 엔젤클럽이 스포츠계에서는 국내 최초로 결성되어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만큼 선수 여러분들도 좋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믿는다”며 “좋은 성적은 자연히 따라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D-9
995호

장선윤 엔젤

Angel
Club

국내 인쇄업계 리더 장선윤엔젤

‘엔젤과 인연’, 초기 회사 운영 때 생각 나
가입 후 대구FC에 남다른 관심, 시민 사랑 받는 구단 기대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가운데 국내 인쇄업계 리더인 장선윤엔젤(고문당인쇄<주> 대표)은 지역 내 여러 단체 임원 및 회원으로써 올해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엔젤’과 ‘대구 FC’도 그 중 하나다. 장선윤엔젤은 엔젤클럽과 인연이 되면서 초기 회사를 맡았을 때가 떠오른다고 했다.

“너무 쉽 없이 달려와서 주위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엔젤클럽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처음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까.’ 장선윤엔젤은 공감했다. 그래서 ‘큰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게 됐다고 한다. 실제로 축구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장선윤엔젤은 가입 후부터 대구FC 소식을 접할 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을 정도로 애정이 생겼다.



업계 최고로 평가받는 장선윤엔젤은 기업가로서 대구FC를 보는 눈도 정확했다.

“지역 내 대기업이 없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당장 대기업 유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한 장선윤엔젤은 “결국 시민구단의 발전을 위한 본질은 시민 결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결음씩 준비된 것들을 실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믿습니다.”라며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지역 기반의 시민구단은 지역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이는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당장 대구시민 전체가 열성적인 팬이 될 수는 없지만 지역 내 기업, 단체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심으로 다해서 활동한다면 10년, 20년후 FC 바로셀로나 같은 구단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희망을 릴레이 하기도 했다.

시즌을 앞두고 장선윤엔젤은 “지난해 대구FC의 성공적인 클래식 연착륙을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코칭스텝 및 선수분들 그리고 열정적인 팬들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며 “어렵게 제자리를 찾은 만큼 올해도 선수들 모두 부상없이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고 대구FC의 선전을 희망했다.

D-8
996호

하석배 엔젤

Angel
Club

세계적 극찬을 받은 최고의 테너

대구에 정착하면서 대구FC에 관심 생겨



이후 그는 전 세계에서 주목 받는 20인의 음악가들을 선별해 초대된 유럽 연합방송 주최 ‘세계 음악계의 내일의 별들’방송프로 그램에 전 세계에서 선택된 단 한 명의 테너로 초청돼 유럽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고 그 후 유럽 오페라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드라마틱 레퍼토리와 서정적 역할에도 뛰어났으며 섬세한 음악성과 폭발적인 성량으로 유럽 무대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베르디 오페라와 말러9번(대지의 노래)의 연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태리 밀라노시 선정 ‘최고의 테너상’을 수상 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유럽을 넘어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정확한 음악적 표현과 매력적인 음성으로 국내외 많은 팬들을 가진 그는 각종 유명 문화 교실에서 클래식 음악 해설을 하고 있다. 또 이문세가 진행한 MBC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클래식 음악 해설로 인기를 끌었으며 현재는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에서 클래식 음악 해설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학장이며 성악과 교수인 테너 하석배 엔젤은 엔젤클럽 강병규 본부장의 소개로 엔젤이 됐다.

하석배 엔젤은 한국은 물론 세계 오페라 무대에서 최정상의 성악가로 주목 받는 테너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와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성악과 최고 과정을 졸업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전국의 수많은 성악 경연 대회에서 대상 등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었고 대학 졸업 후 이태리 유학 2년만에 세계 세계3대 국제 성악 콩쿨인 부셋토 베르디, 베르첼리 비오피, 바르셀로나 비냐스 콩쿨 등에서 도밍고, 서덜랜드, 까바에 등 유명 성악가들로부터 “최고의 음성과 음악성을 지닌 테너”라는 극찬을 받으며 여러 차례 우승했다.

하석배 엔젤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0여년 정도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축구경기를 많이 보게 됐다고 한다. 사실 밀라노에만 해도 두 개의 유명한 프로축구팀이 있다.

하석배 엔젤은 “이탈리아에서는 TV나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축구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면서 볼거리였다. 축구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라며 “한국에 돌아와 대구에 정착을 하면서 당연히 대구의 축구팀에 관심이 갔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를 대표하는 축구팀이기에 항상 응원하고 있고 올해도 기회만 되면 경기장에 나가서 응원을 해보고 싶다”며 “건강을 위해서도 여건만 되면 예전처럼 축구공을 따라 뛰어다니고 싶다”고 덧붙였다.

D-7
997호

우상현 엔젤

Angel
Cl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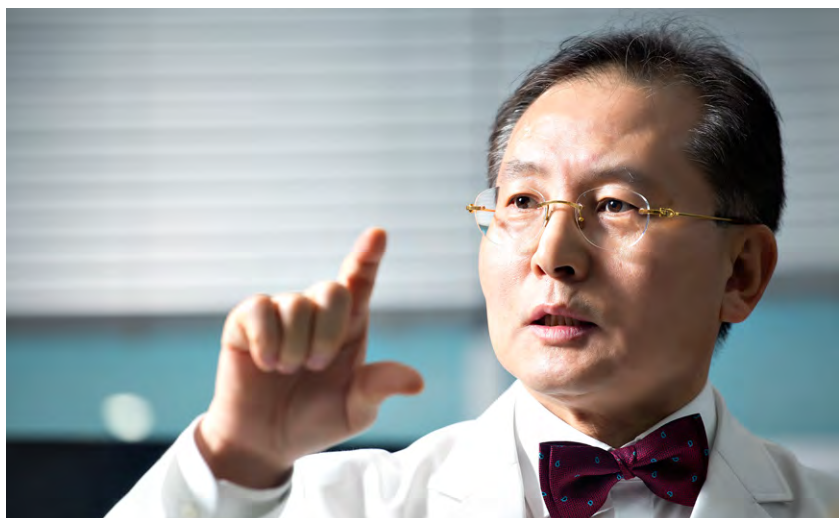
대구FC 선수단의 건강을 책임져줄 의료 엔젤

물질적 후원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후원

우상현 엔젤은 대구경북 유일의 수지접합·관절 전문병원인 W병원의 설립자로 2017년 2월 2일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성공시킨 주인공이다. 또한 대한수부외과학회 이사장,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을 역임하여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엔젤이다.

우상현 엔젤은 중학생 때까지의 꿈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되는 것일 만큼 축구를 사랑했다. 한 달에 운동화를 두 켤레씩이나 닳도록 축구를 했고 지금도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도 축구를 잘 하냐는 말을 들을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양발로 슛을 할 수 있을 만큼 축구를 잘하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깊다. 비록 아버지의 권유로 의사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축구에 대한 미련은 항상 있어 왔고, 기회가 닿아 이호경 회장의 권유로 엔젤 클럽 회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비록 선수들과 운동장에서 함께 축구를 할 수는 없지만 의사로서 축구를 하는 대구FC 선수들과 엔젤들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그는 선수들의 정신적 지주나 육체적, 물질적 후원뿐만 아니라 건강도 책임져줄 수 있는 멤버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시즌에도 우리 대구FC가 좋은 성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D-6
998호

홍덕률 엔젤

Angel
Club

‘인천산 대구사람’

998호 엔젤인 홍덕률 대구대 총장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나고 자란 건 인천이고 공부는 서울에서 했지만 대구에서 교수로서 또 총장으로서 일하면서 반 넘게 대구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엔젤까지 가입하는 걸 보면 이전엔 완전히 대구사람 일지도 모르겠다.

대구FC엔젤을 어떻게 알게 됐고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물었다.



홍 총장은 “평소 어렵פות이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지역의 한 언론인과 차 한잔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대구FC엔젤클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다”며 “그에게서 대구FC 엔젤클럽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를 위해 참으로 뜻 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바로 대구FC엔젤클럽과 본격 협의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10월 대구대학교와 대구FC엔젤클럽이 함께 협력하자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고 당시 이호경 대표를 비롯해 엔젤을 위해 헌신하시는 임원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이 이뤄졌냐고 묻자 홍 총장은 “그렇다. 가입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11월28일 호텔 인터볼고에서 열린

행사에서 998호 엔젤로 참석해 과분한 축하를 받았다”며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 날이었다”고 했다.

홍 총장은 “올해는 꼭 경기장에 직접 나가며 대구FC엔젤클럽의 가족으로서 대구와 축구를 사랑하는 대구시민과 함께 경기를 즐기고 싶다”며 “대구시민들과 함께 대구FC를 응원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살짝 흥분되는 동시에 축구로 대구시민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들뜨게 한다”며 웃었다.

그는 대구FC 선수들에게 대해서도 “먼저 자긍심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싶다. 대구FC 뒤에는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대구FC엔젤클럽과 대구시민이 있기 때문”이라며 “승부에만 집착하기 보다 경기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패자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대구FC 선수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5
999호

조민규 엔젤

Angel
Club

대구 출신 프로골퍼 조민규 엔젤

같은 스포츠인으로서 대구FC 응원해



그는 프로골퍼이지만 평소에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편이다. 작년에는 고향인 대구의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직접 시구를 하기도 할 만큼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대단하다.

평소 축구도 좋아했던 조민규 엔젤은 삼촌과 대구하키편회장인 김재홍 엔젤을 통해 대구FC를 후원하는 엔젤클럽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대기업의 스폰 없이 구단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는 엔젤들을 보며 자신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엔젤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민규 엔젤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축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같은 스포츠인으로서 대구FC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다. 지금은 해외 일정이 많아 대구FC 선수들의 경기를 보러 오지는 못하지만 조민규 엔젤의 마음의 응원이 대구FC 선수들에게도 반드시 닿을 것이다.



조민규 엔젤은 2008년 KPGA(한국프로골프협회)에 입회하여 2011년 JGTO 간사이 오픈 우승, 2016년 후지산케이 클래식 우승, 2017년 KPGA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2위 등을 달성한 프로골퍼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따라 골프 연습장에 놀러 갔다가 넓은 필드에서 날아가는 흰 공에 매료되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흰 공이 좋아 공을 쫓다보니 어느새 프로골퍼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D-3
1001호

한무경 엔젤

Angel
Club

여성경제인으로서 여성 엔젤들의 활약 기대

엔젤클럽이 지역사회 결속에 기여할거라 확신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경제인 한무경 엔젤은 효림그룹의 회장하면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이기도 하다. 한무경 엔젤은 회사 경영과 협회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경기장에 나가 직접 응원을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우리 대구FC를 응원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경제인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한무경 엔젤은 엔젤클럽에서도 여성 엔젤의 활약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간 경제단체장으로서 많은 행사에 참석하였지만 어느 행사건 남성들의 비율이 높아 아쉬움이 컸다고 한다. 여성경제인을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많은 여성이 사회로 나와 우수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며, 엔젤클럽에서도 더 많은 여성 엔젤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한무경 엔젤은 대구FC를 대구 시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국내 최초의 시민구단이라며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대구FC와 엔젤클럽으로 인해 지역스포츠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결속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FC를 지원하는 엔젤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한무경 엔젤 또한 대구FC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D-2
1002호

이 배 엔젤

Angel
Club

세계적인 화가이자 현대미술가 그림과 스포츠, 같은 문화를 통해 관계 구축

경북 청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이 배, 홍익대 서양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2013년 제4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작가상을 수상했다.

올 해 계획만 보아도 가히 세계적이다. 이 배 작가는 2018년 3월 17일부터 2개월간 세계 최고의 갤러리인 프랑스 파리 뵘로망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매그미술관(Foundation Maeght)에서 개인전을 가진다. 3월 27일부터는 홍콩 바젤아트피어(Art Basel)에 참여하며, 9월에는 홍콩 뵘로망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진다.

그는 대구FC엔젤클럽의 가치에 대해 “비물질성의 사회에서 그림과 스포츠와 같은 문화를 통해 사회적 교류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편성과 공감을 이루며 소통의 장르로 키워가는 것은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청도와 대구는 정신적 근간이 되는 곳으로, 최근 이를 통해 열려 나가는 느낌이 매우 좋다. 엔젤클럽을 통해 대구FC가 한국 축구의 메인구단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D-1
1003호

황우곤 엔젤

Angel
Club

대구는 제2의 고향, 고향 사랑 실천 엔젤들의 열정이 모인 고향 사랑 에너지가 자랑스러워



황우곤 엔젤의 고향은 울진군 백암온천이 있는 온정이다. 하지만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많은 추억을 쌓아온 터라 대구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다. 유소년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했던 황우곤 엔젤은 주로 공격수 역할을 맡으며 팀을 적극적으로 이끌 만큼 축구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현재는 서울에서 대체투자분야 전문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여전히 대구를 그리워하고 대구 축구를 사랑하여 엔젤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황우곤 엔젤은 엔젤클럽이 단순히 대구FC를 후원하는 모임이 아니라 엔젤 한 분 한 분이 열정을 가지고 대구 축구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열정이 한 곳으로 모여 엄청난 고향 사랑의 에너지로 발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또 그런 모임에 자신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지역별로 소규모 엔젤클럽이 활성화되어 질 차례라고 덧붙였다. 황우곤 엔젤 자신처럼 대구에 있지는 않지만 각지에서 대구FC를 응원하는 엔젤들의 소규모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우곤 엔젤은 기회가 되면 서울지역 대구FC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004호

유 병 완 엔젤

Angel
Club사진으로 사랑을 전하다, 1004호 유병완 엔젤
사진 찍는 천사, 전국을 돌아

유병완 엔젤은 '하트'전문 사진작가다. 책을 이용한 하트 모양의 독특한 작품활동을 하는 그는 사진 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고 있다. 유병완 엔젤 자신도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몸이지만 자신보다도 다른 이들을 위해 힘쓰는 모습에 엔젤클럽에서 먼저 연락이 와 1004호 엔젤이 되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한다.

유병완 엔젤은 파킨슨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소아암 어린이를 처음으로 보았다. 잠이 오지 않아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소아암 병동을 지나치다 코와 몸 여기저기에 호스를 단 아이와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힘들어하는 아이와 슬퍼하는 어머니를 본 유병완 엔젤은 아직 인생의 꽃을 피우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결심했다.

아픈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 떠오른 것이 바로 '전국투어 사진전'이다. 사진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도시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그 도시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사용한 돈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에게 기부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지역 애郷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기획이다.

유병완 엔젤은 그동안 대구는 물론 광주, 전주, 대전 등 다양한 도시를 돌며 전시회를 열었다. 올 상반기에는 부산, 하반기에는 강릉에서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손한 열정,
같은 작품 5장 이상 팔지 않아

유병완 엔젤의 사진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 지인의 단순한 권유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노력 끝에 이제는 각종 사진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사진 강연을 하기도 하는 등 모두가 인정하는 한사람의 사진작가다. 하지만 유병완 엔젤은 스스로를 작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은 그저 사진을 좋아할 뿐이고 자신의 사진으로 누군가 행복해 지길 바라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이다.

점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유병완 엔젤은 같은 사진을 5장 이상 팔지 않는다. 혹시나 잘 팔리는 사진에 의존하게 되어 사진을 게을리 하게 될까봐 자신을 채찍질 하는 것이다. 사진작가로서는 힘든 결정이었겠지만 유병완 엔젤 스스로 점손을 유지하기 위한 신조다.



그 사진은 발로 찍었습니다

유병완 엔젤의 사진 대부분은 '발로 찍은' 사진이다. 흔히들 잘못 찍은 사진을 보고 '발로 찍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유병완 엔젤은 지금껏 멋진 작품들을 진짜 발로 찍어 왔다.

물체가 가진 빛을 그대로 비춰주는 '라이팅'이라는 기술은 빛의 각도를 조금만 달리해도 사진의 느낌이 달라진다. '라이팅'을 주로 사용하는 유병완 엔젤은 빛을 세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양손 손가락 사이사이도 모자라 입에도 라이팅 기구를 끼우고 작업을 했다. 그러다보니 셔터를 누를 손이 없어 릴리즈를 이용해 발가락으로 셔터를 누르는 게 된 것이다.

유병완 엔젤은 사진을 내밀며 당당하게 "그 사진도 제가 발로 찍은 겁니다"라고 했다. 그에게는 '발로 찍는 사진가'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길을 만들고파

유병완 엔젤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거리를 자신의 하트 사진으로 가득 채워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 없이 모두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다. 유병완 엔젤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기부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대한 기부가 될 수 있다며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유병완 엔젤은 죽는 순간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이제 사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고, 사진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모두 낫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이 마치 진짜 천사 같았다. 사진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려는 진짜 천사, 1004호 유병완 엔젤이 만들어가는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길'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다이아몬드 엔젤 태왕이앤씨 노기원 대표

“대구시민들의 핏속에는 훌륭한 시민운동 DNA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다이아몬드 엔젤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대구주택건설협회장)는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려울수록 하나되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멋진 유전자가 지역민들에게 있고 그 유전자의 다른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대구FC 엔젤클럽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중요한 건 그 유전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는 힘도 갖고 있다”며 “엔젤가 이 유전자를 갖고도 엔젤클럽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어색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일반 엔젤회원에서 다이아몬드회원으로 추천을 받은 1호라는 노 대표의 이 같은 말은 자신에게 채찍질 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했다.

노 대표 역시 초창기 엔젤로써 대구FC엔젤클럽이 지금과 같이 1천명이 넘는 천사들이 모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현재의 엔젤클럽을 볼 때마다 놀라움과 동시에 마음 속 한곳에 있었던 작은 불신들이 부끄러워진다고도 했다.

엔젤클럽 매거진 3호이면서 2018년 신년호란 특성상 올해 대구 FC 예상 성적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노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욕심은 당연히 우승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인(?) 욕심은 상위 스플릿 6위 안에 잔류하는 것이다. 물론 어렵겠지만 목표 설정을 우승으로 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알다시피 벌써 외국인 전력 누수현상이 생기는 등 객관적인 전력은 지난해보다 약화된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무조건 좋은 성적을 바라기 보다는 오히려 용병 이적으로 인한 토종들의 지력을 보여주는 한해가 되기를 더 바란다”라며 “전력의 누수가 새로운 동기부여로 작용했으면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은 브랜드데이 개최 여부도 물었다.

“당연히 할 예정이다. 대구FC와 엔젤 나아가 대구FC와 시민의 스킨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그는 “엔젤 회원들의 활동이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에 바탕을 두고 있듯이 다이아몬드 회원이기 이전에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축구장에서 하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배드민턴을 즐긴다는 노 대표는 “동호회 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기 위해 배드민턴을 치는 게 아니라 그저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것처럼 다이아몬드 엔젤이라서 더 거창한 활동을 한다기 보다 그저 대구FC를 위해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더 열심히’하는 게 우리 모든 엔젤들이 할 일이 아니겠냐”며 반문하며 말을 맺었다.





서울엔젤 신세계 부사장 문길남

아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엔 엔젤 활동은 미약하지만 대구에서의 멋진 모습이 수도권에서도 일어나리라 확신한다는 문엔젤은 부족하지만 엔젤로서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을 갖고 엔젤의 성장에 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길남엔젤은 대구경북의 사업 수주를 많이 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엔젤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예의 그 환한 웃음과 함께.



큰 키에 항상 선한 웃음을 가득 머금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서울엔젤' 문길남 신세계건설 부사장.

사실 문길남엔젤은 현재 대구의 랜드마크가 된 동대구역세권개발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다.

대구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문길남엔젤은 그 좋은 분들이 항상 대구의 발전과 미래의 성장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을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자신들의 일만 하기도 바쁠텐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고민한다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다는 그는 그런 맥락에서 엔젤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게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특히 대구FC엔젤은 지역사회를 떠나 우리나라 아니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될만한 사례라는 생각을 늘 한다며 좋은 일들을 그것도 자발적으로 릴레이를 통해서 발전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동시에 감동의 연속이 아니겠냐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엔젤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 대구FC는 분명 타 구단하고 다른 건 물론 틀림없이 기적을 만드는 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아름다운 대구·경북을 위해
금복재단이
함께 달려합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억 후원
무료급식, 사랑의 쌀 지원 등 복지시설 후원
대구·경북 체육 성금 및 독도 후원금 지원
청소년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금복문화상 시상 및 예술인 후원
서문시장 화재복구 성금 후원
경주 포항 지진 피해복구 성금 후원



금복문화재단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주)성진포머 손 성 태 대표

“엔젤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성진포머 제2공장에서 만난 손성태 사장은 대구FC엔젤클럽의 지금과 같은 활동이나 지원은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진포머의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매달 어려운 이웃에 작은 정성을 보내고 있는 일도 쉽지 않은데 자신의 존재보다 대구FC엔젤이나 대구FC가 부각되는 것만으로 보람을 느끼는 엔젤이야말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콘이라고 덧붙였다.

엔젤자랑도 좋지만 엔젤기업탐방에 맞는 회사 소개를 부탁했다.

손 사장은 “성진포머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입니다. 특히 ABS부품, 엔진과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엔진부품인 피스톤 핀, 샤프트, 기어류와 차량의 진행방향을 운전자의 의도대로 조정하는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조향부품 등을 생산합니다”라고 했다.

제품 생산은 기본적으로 단조 후 가공을 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고 했다.

성진포머만의 강점에 대해 물었다.

손 사장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은 단조 후 가공에 많은 프로세스와 시간이 투입되는데 저희 회사는 가공에 드는 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조에서 네트 웨이프(Net shape) 즉 완전 제품에 가까운 것을 생산합니다”라며 “즉 공정 감소의 효율성이 원가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손 사장은 “또 수직단조 뿐 아니라 수평단조 기술도 성진포머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스톤 핀의 경우 10년 전에 개발한 제품이 아직도 세계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며 거래선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을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융련하는 기술력개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진포머의 공장은 대구에 두 곳, 베트남에 한 곳이 있다. 수출 물량 생산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베트남 공장은 2016년 7월 만들어졌다. 설립된지 30여년만에 해외에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성진포머는 설립 15년째인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수출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성장기에 돌입한다. 그 바탕엔 2004년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자리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글로벌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고도화에 나선다. 2012년에는 대구시 스타기업에 선정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천만불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2014년 5월에는 중소기업청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면서 성장가속화시기로 접어든다.

지난해 11월에는 산업통상부로부터 대한민국 기술대상을 받게 된다. 과거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차에 맞는 경량화제품 개발에도 힘쓴 결과다.

매출액의 경우 내수와 수출이 6대4정도다. 2012년 450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748억원으로 해마다 평균 10.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성장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성진포머는 국내외 고객사 확장을 통한 모멘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83개 바이어 중 해외고객이 53개사에 달한다. 글로벌강소기업에 선정될 만한 동시에 자동차 부품 글로벌 넘버 원 도약을 향한 성진포머의 혁신과 도전(Innovation & Challenge)이 꾸준하리란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엔젤과 손잡은 대학 '학생이 행복한 대학, 미래로 열린 대학' 대구대학교

‘학생이 행복한 대학, 미래로 열린 대학’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로 62주년을 맞은 대구대학교는 대구맹아학원을 모체로 1956년 설립돼 현재 14개 단과대학, 98개 학과(전공), 13만 동문을 가진 지방사립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 했다.

대구대학교의 전통적인 특성화 분야는 특수교육·재활과학·사회복지다. 1961년 국내 최초로 특수교육과를 설치했고, 1977년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육 관련법인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지금도 해마다 100명이 넘는 국·공립 특수교사를 배출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원 임용 합격률을 자랑한다. 1987년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이자 전국에서 유일한 단과대학 규모의 재활과학대학도 자랑거리다. 단과대학 내 7개 학과(언어치료, 물리치료, 재활심리, 직업재활, 재활공학, 작업치료, 재활건강증진)는 학문적으로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재활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BK21(Brain Korea 21) 사업에 선정되며 연구 경쟁력을 입증 받았다.

이러한 전통적 특성화 분야 외에 대구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교육혁신과 산학협력으로 대학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사업’, ‘잘 가르치는 대학’사업으로 알려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대학 발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 팀 발표를 위해 조별 모임을 수행하는 대구대 학생들



또한, 2016년에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참여대학 등 굵직한 정부 사업들을 연이어 수주했다. 이렇게 확보한 정부 지원금은 고스란히 학생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돼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구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교육 클러스터(EC, Education Cluster) 중심의 융합교육 플랫폼’을 도입한다. 교육 클러스터는 단과대학과 학과 등 전통적인 학사구조를 벗어나 미래 가치 중심의 ‘창의융합 전공 교육과정’의 묶음을 뜻하며, 대학은 2020학년도까지 70개 융합전공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리버럴아츠(K-LAC) 교양교육 체계 구축 △창의융합형 전공교육 강화 △건학정신(사랑·빛·자유) 구현을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확립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대화를 나누는 장면

‘성산 리버럴아츠 칼리지’로 이름 지어진 ‘S-LAC’에서는 1학년 중심의 교양교육을 전 학년 과정으로 확대, 편성하고 교양교육의 비중도 현재 28학점에서 2020학년도까지 40학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생 스스로 주제를 정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생참여형 도전학기’와 ‘3L비교과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대구대학교 산학협력에는 98개 학과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중 53개 학과는 비이공 계열이다. 대구대학교는 기존 대기업, 이공계열 위주의 산학협력의 틀을 깨고, 중소기업, 1인 창업자, 사회적 기업, 여성 기업 등 그동안 산학협력에서 소외됐던 주체들을 파트너로 삼아 산학협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지역 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 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한 예로, 대구대학교에서 운영하는 ‘SP(Social Problem) 동아리’는 지역 기업과 지역 사회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동아리 학생들은 지역 기업·기관들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시각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을 연구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학협력도 돋보이는 부분이다. 대구대학교 가족회사 모임의 한 분과인 ‘HOME(Handicapped, Old, Multi-culture, Etc.)분과’에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관련 있는 기업 및 기관 100여개가 소속돼 있다.

▼ 학생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홍덕률 총장



대학은 산학공동과제연구, 기술이전과제연구, R&D멘토링 등 지원사업과 연구시설 및 장비 활용 등을 HOME 분과 소속 기업 및 기관에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 특성화 분야인 재활복지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복지’분야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구대학교는 2015년 대학원에 재활산업학과를 신설하고 재활치료 로봇이나 3D프린팅을 이용한 재활의료기기 등을 국산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대학교는 지역의 청년 취업의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5년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2016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된 대구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취업 교육에 힘쓰고 있다. 특히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은 기존 단기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보완해 장기간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학점 인정과 실습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

대구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차년도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평가’에서 ‘A등급’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는 취업상담에서부터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종합 패키지형’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발표한 취업·창업 지원 역량이 뛰어난 대학인 ‘청년드림대학’에도 뽑히기도 했다.

학생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도 대구대학교에서 준비하면 된다. 지난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대구대학교는 올해 중소기업청과 경상북도가 주관한 창업보육센터 평가에서 각각 ‘S등급’과 ‘최우수(1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대학 창업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다. 대구대학교는 학생들의 창업을 위해 일본 등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창업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글로벌 창업캠프’, 장애·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장애대학생 어울림 창업캠프’, 창업 작품을 전시 시연하는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선배 창업가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창업 특강’, 학생들의 창업 아이템을 검증하고 투자 지원까지 알아보는 ‘창업 워크숍’ 등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대학원을 신설하고, 창업교육 유형에 맞는 교육과정(트랙제)을 마련해 졸업장에 창업학을 전공으로 명시하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 창업은 대구대학교가 앞서 나가는 분야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 문제 해결과

공익창출을 위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 창업자 또는 1년 미만 기창업자에게 창업 자금과 공간,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고용노동부)’을 2013년부터 6년째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구대는 지난 5년간 114개의 창업 팀을 육성했고, 113개 팀이 실제로 창업했다. 이중 5개 팀이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됐고, 34개 팀이 예비사회적기업에, 2개 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대구시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경상북도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경상북도가 공모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교육기부’활동이다. 대구대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전국에서 교육기부 가장 잘하는 대학으로 인정받았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여하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기부 참여 활동을 통해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 대학, 단체협회, 동아리, 개인 등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대구대는 대학의 대표적 교육기부 프로그램인 ‘DU(대구대) 지식나눔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600여회, 누적 수혜인원이 약 3만명에 달하는 교육기부 활동을 했다.

지역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탈북학생들과 1대1로 매칭해 학습지도 및 예체능 활동을 수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기초과학 교실’, ‘주니어사이언스 오픈랩 데이’



▲ 라오스 해외봉사장에서 율동을 가르치는 대구대 학생들

등 과학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는 독서교실을 열고 학습도서를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벌였다. 이외에도 교수와 전문 직업인(졸업생), 활동 우수자(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꿈드림 특강단’을 꾸려 140여 차례에 걸쳐 약 7,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대학교의 또 하나의 강점은 ‘휴먼 앤 그린 캠퍼스’다. 탁 트인 진량벌과 시원한 문천지 호수의 100만평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리고 있다. 늘푸른테마공원, 행복숲길, 비호동산, 모네언못 등 자연 휴식공간과 승마, 수상 스포츠, 골프, 수영 등 레포츠 시설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복이다. 대구대학교는 한국대학신문이 선정한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 Top 10’에도 선정됐다.



▼ 대구대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열린 해외 캠프톤디자인 대회 조별 모임 장면



▼ 글로벌라운지에서 공부하는 대구대 학생들



2018

Angel Club 2018 VISION

올해에도 엔젤의 활약은 계속된다!
엔젤 2018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로 모인 엔젤들
모두의 힘을 모아 2018호를 달성할 수 있을지...

대구는 엔젤이다! 엔젤은 릴레이다!
2018호를 향해 전진!





2018년, ‘엔젤 2000시대 연다.’

엔젤 2018명 목표, 조직 확대 개편 ‘3개 본부 13개 분과’ 전용구장 시대 대비, ‘엔시오 본부’활동 기대

대구FC엔젤클럽(회장 이호경, 이하 엔젤클럽)이 ‘엔젤 2000’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엔젤클럽은 지난 1월30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2018년 1차 이사회를 갖고, ‘2018엔젤’이라는 목표 아래 부회장단을 신설하고, 소액 후원 엔젤인 ‘엔시오(엔젤+소시오)본부’를 별도로 두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엔젤이 1000명을 넘어서면서 단체 규모가 확대된 데다 올해 2018명 엔젤 확대를 목표로 정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클럽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2019년 대구FC전용구장 시대를 맞아 엔젤클럽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개편의 배경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엔젤클럽은 운영본부, 엔젤본부, 엔시오본부 등 3개 본부와 13개 분과로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그리고 별도로 16명으로 구성된 부회장단을 신설했으며 자문위원도 확대키로 했다. 각 본부는 상임부회장이 이끌게 되며, 운영본부는 강병규 상임부회장, 엔젤본부는 엄태건 상임부회장, 엔시오본부는 김완준 상임부회장이 각각 맡게 됐다. 엔시오(엔젤+소시오)본부는 ‘엔젤’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팬 조직인 ‘소시오’의 합성어에서 따온 것으로, 2019년 대구FC전용구장시대를 대비, 관중 증대를 위하여 소액으로도 엔젤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됐다.

운영본부에는 운영(최종태), 홍보(강정영), 대외협력(심인철), 행사(송원배), 후원금(권일경) 분과로 나뉘지며, 엔젤본부에는 응원(안상영), 릴레이(안홍운), 회원관리(김강수), 친목회(양대석) 등 기능별로 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조직을 운영한다. 엔시오 본부에는 기획(정영준), 엔시오(배문구), 홍보(이태훈), 유스(최오원) 등 4개 분과에 각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엔시오 확대를 위하여 뛰게 된다. 향후 조직은 분과별로 특성을 살려 명칭을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본부 및 분과별 소모임 강화를 통해 엔젤클럽 유대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클럽의 안정적 운영 위해 부회장단 신설, 자문위원 확대

신설된 부회장단은 권석원, 김재홍, 김주성, 김헌만, 노기원, 박해대, 배성혁, 서정원, 신철수, 윤태경, 이동경, 이승현, 정모경, 조만현, 최익진 엔젤(가나다 순) 등 총 15명으로 앞으로 엔젤클럽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된다.

확대 운영될 자문위원은 권오섭, 김성열, 김영채, 김충환, 남성희,

도재영, 박명수, 박병구, 박순복, 박영석, 박운경, 송준기, 엄달현, 이병훈, 장익현, 주대중, 천자우, 하윤수, 하춘수, 허홍만 엔젤(가나다 순) 등으로 구성되고, 감사는 박경환 엔젤과 이재호 엔젤이 맡았다.

엔젤클럽은 또 2018명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릴레이 분과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릴레이매뉴얼을 만들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 슬로건을 ‘대구엔 엔젤이다. 엔젤은 릴레이다’로 정해 1년 내내 엔젤들의 릴레이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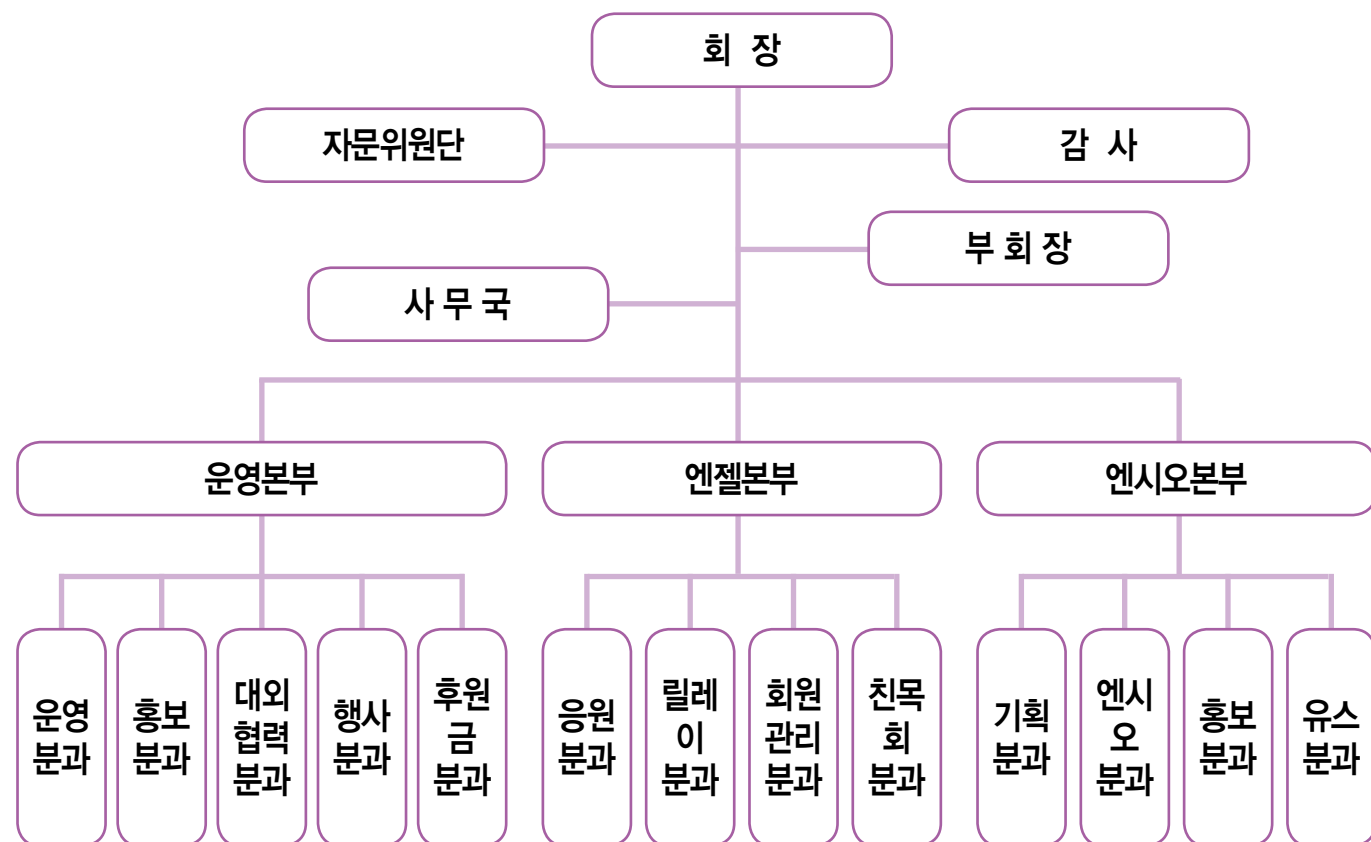
응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서포터즈와 협의하여 경기장내에서 한 목소리로 선수들을 응원할 계획이며, ‘엔젤원정대’를 꾸려, 보다 많은 원정응원을 갈 예정이다. 포항, 상주, 울산, 경남 등 인근지역은 물론 전북과 수원 등 현재 전용구장이면서 축구활성화가 된 지역으로도 원정대를 띄워, 전용구장과 축구응원의 열기를 엔젤들이 직접 몸으로 느끼게 할 방침이다.

이호경 회장은 “지나해 우리는 1004명 엔젤 목표를 조기달성 하는 등 뜻 깊은 한해를 보냈다”며 “하지만 지금부터다. 짧은 시간에 조직이 커진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조직이 필요해 조직 개편을 하게됐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이회장은 또 “2019년이면 대구에도 전용구장이 생긴다. 이곳을 엔젤과 시민의 깃발과 응원함성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엔시오 본부를 신설키로 했다”며 2019년 전용구장 시대를 대비한 엔젤의 포부를 밝혔다.





대구FC엔젤클럽 조직도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이호경			
자문위원단	권오섭, 김성열, 김영채, 김충환, 남성희, 도재영, 박명수, 박병구, 박순복, 박영석, 박윤경, 송준기, 엄달현, 이병훈, 장익현, 주대중, 천자우, 하윤수, 하춘수, 허흥만			
감사	박경환, 이재호			
부회장	권석원, 김재홍, 김주성, 김현만, 노기원, 박해대, 배성혁, 서정원, 신철수, 윤태경, 이동경, 이승현, 정모경, 조만현, 최익진			
	상임부회장	상임이사		운영이사
운영본부	강병규	운영분과	최종태	김재엽, 서태현, 박관식, 이성배, 최경목
		홍보분과	강정영	임익기, 이응찬, 이종호
		대외협력분과	심인철	금윤식, 문현훈, 박주현, 김용범,
		행사분과	송원배	박혜영, 김세중, 최은미
		후원금분과	권일경	박신영, 백덕열, 손주옥, 강철원, 현정규
엔젤본부	엄태건	응원분과	안상영	강해구, 백해자, 장정숙, 정소영, 최미애
		릴레이분과	안홍윤	민준홍, 윤창근, 이창근, 추화엽
		회원관리분과	김강수	김국경, 김규정, 백무연, 최진오
		친목회분과	양대석	김미숙, 김세중, 전성열, 조용호
엔시오본부	김완준	기획분과	정영준	김동규, 김동국, 조병래
		엔시오분과	배문구	김상도, 김상호, 김동수, 박성수
		홍보분과	이태훈	강은주, 김주형, 박현주
		유스분과	최오원	류광열, 손형문, 서형석

엔젤임원 출정식 / 엔젤토크 토크

등에 지면 '짐', 가슴에 안으면 '사랑'

HOT 했던 2018년 엔젤 임원 출정식
대구FC를 가슴에 안으며 전진하는
위대한 엔젤 다짐!!

2018년 1월30일에 열린 엔젤 임원 출정식에는 톡톡 튀는 '엔젤토크'들이 쏟아졌다.

홈경기 직관 중 중 한명인 서태현 운영이사는 “등에 지면 짐이 되고, 가슴에 안으면 사랑이 된다”고 했습니다.”며 시 구절을 인용한 뒤 “엔젤이나 대구FC가 짐이 아닌 사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해 주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글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사들도 있었다. 카톡방 글쟁이로 떠오른 안상영 상임이사는 “말보다는 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앞으로의 리뷰와 프리뷰를 기대케 했다. 프로 글쟁이 강은주 운영이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에도 축구하는 것을 보면 스포츠 중에서 축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축구를 알아서 좋은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좋은 글을 약속했다. ‘비가 와도 축구한다’는 것을 지난해 광주원정에서 직접 경험한 백무연 운영이사는 “비오면 축구안합니까? 바람 불어도 축구하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운동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고 했다.

글 이야기에 이어, ‘몸’과 ‘소리’로 응원하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지난해 부부젤라를 세계 불어서 응원 분과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백해자 운영이사는 ““응원”이라는 분과 이름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2018년에는 품격 있는 응원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상영 이사님은 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몸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며 몸을 사리지 않은 품격 있는 응원을 예고했다.

맛으로 엔젤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각오도 있었다. 지난해 여름, 시원한 화채로 더위를 식혔던 권일경 상임이사는 “올해 홈경기 3승 책임지겠습니다. 화채를 3번 준비하겠습니다.”며 시원한 승리를 예고했으며, 김밥으로 엔젤을 즐겁게 했던 김미숙 운영이사도 “올해도 강력한 매운 맛으로 응원하겠습니다.”라며 입이 즐거운 홈경기를 기대케 했다.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각오도 쏟아졌다. 최오원 상임이사는 “두말할 것 없이 대구FC 발전을 위해서, 엔젤클럽 발전을 위해서 딱 세마디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했고 송원배 상임이사 역시 “운영본부, 엔젤본부, 엔시오본부 3개의 본부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는 엔젤클럽입니다. 2018년에도 우리 엔젤클럽의 비상을 위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원팀’엔젤클럽을 강조했다.

‘엔시오’라는 새길 개척, 선수 위해 공진단·경육고 후원

새롭게 엔시오의 길을 개척할 김완준 상임부회장은 “엔젤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많은 선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엔시오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엔시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축구를 사랑하고 엔젤에 동참했으면 합니다.”라고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했다.

대구사람이 아닌 서울 사람이 대구에 와서 완전 대구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엄태건 상임부회장은 “엔젤 3개 본부로 나눈 이유는 좀 더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대구전용구장을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1만2천 관중석이 꼭 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엔젤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스플릿 A에 대한 기대도 컸다. 정영준 상임이사는 “2018년에도 엔젤님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봅시다”

며 “그래서 끝나는 그날 상위스플릿에 남는 감격을 함께 합시다.”고 상위스플릿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다. 최종태 운영이사도 “멋진 골 뒤에 늘 성실한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2018년 대구FC가 스플릿 A에 진입해 더 나은 성적을 내는 것과, 2018 엔젤클럽이 멋진 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어시스트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런 성적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밝힌 이사도 나왔다. “올해 엔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양대석 상임이사는 “선수를 위해서 공진단이나 경육고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고 아낌없는 후원을 약속했다.

스크린 골프 비번 ‘엔젤’로 바꿀정도로 생활화

엔젤이 생활화 됐다는 이야기도 남달랐다. 김강수 상임이사는 “최근에 스크린 골프 아이디를 ‘엔젤00’이라고 바꿨습니다. 생활화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 한 분을 만나 저도 모르게 릴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아주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계속할 생각입니다.”라고 체화된 엔젤의 모습을 밝혔다.

이런 엔젤들의 각오에 대구FC 구단 관계자의 가슴도

벽차올랐다. 이날 참석한 이도현 대구FC미래기획실장은 “평소에도 엔젤이라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감사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더욱 가슴 벽잡니다. 앞으로 엔젤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머슴 같은 마음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나는 엔젤 릴레이왕이다

— 2017 베스트 릴레이어 안홍윤 VS 2018 도전자 추화엽 —



세계적인 테니스코트에서 조코비치와 정현의 빅 매치를 며칠 앞둔 2018년 1월의 어느 날.

만촌동 감자탕 집에서는 2017년 대구FC엔젤클럽 최다 릴레이어 안홍윤 엔젤과

2018년 최다 릴레이어 도전자 추화엽 엔젤의 '빅 매치'가 있었다.

주인엔젤 인심이 훈훈한 감자탕 집에 기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베스트 릴레이어 사이에는 뜨거운 소주잔이 오가고 있었다.

김종두 사무총장은 독감으로 힘든 가운데 이 분위기가 궁금하여 참을 수 없었다며 나와 자리 잡고 있었고,

감자탕집 주인인 엄태건 엔젤이 빠질 수 없다며 참석, 김밥천사 김미숙 엔젤이 이날 1일 사진작가로 초대됐다.

먼저 기세등등한 도전자인 추화엽 엔젤의 계획을 물었다.



VS



추화엽 엔젤은 “저는 올해 365명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1명 합니더, 한꺼번에 10명씩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사람들을 다져야 되니까 365명만 하겠습디!” 자신만만했다.

엔젤에 가입할 때 릴레이로 기자촌이 하겠다던 게 생각나서 지금까지 몇 명이나 릴레이를 했나 물었더니 옆에서 김종두 사무총장이 “올해들어 8명 릴레이 했습니다”라고 거든다.

별써 2018년 1월도 18일이나 지났다고 하자 “문제없다카이~ 연초라서 쫓~~매 기다리는 중이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라고 억울하다는 듯 말하더니 바로 ‘액션’이 이어졌다.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말씀을~~”이라며 바로 자리를 박차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가.

사실 추 엔젤은 노래하는 것을 무지 좋아한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 때,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일로서나 개인사로나 힘들어할 때 노래하는 것만큼 좋은 약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언제나 너털웃음 웃고 다니는 그에게도 힘든 일은 존재하나보다.

그는 우리 노동요, 민요들도 다 힘든 노동일을 이겨내기 위한 노래였다고, 노래의 힘은 위대하다고 했다.

한참을 노래를 듣다가 추천했는데 당사자들이 가입하지 않겠다면 어떡하냐고 물었다.

추 엔젤은 “좋은 모임이잖아요~. 내가, 내 기업이 덕 보려는 게 아니고 좋은 일에 십시일반 동참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할 이유가 없지. 우리 국채보상운동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십시일반, 생각해보세요. 대구시민 250만 명이 1000원씩만 내면 25억입니다. 이것이 십시일반의 힘 아닙니까?”

그가 너무나 진지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허풍처럼 보였던 365명도 가능한 듯 여겨졌다.

도전자의 너무 큰 공약에 부담을 느꼈을까? 전년도 베스트 릴레이어 안홍윤 엔젤은 술잔만 기울이며 그저 웃고 있었다.

작년 챔피언으로서 도전자의 넘치는 패기가 만만찮아 보인다는 안홍윤 엔젤이 입을 열었다.

“작년에 제가 35명 릴레이해서 베스트 릴레이어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엔젤에 초대하는 것이 보람 있기도 하고,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고 하자 안 엔젤은 “사실, 추화엽 엔젤님 말씀처럼 워낙 취지가 좋고 사심 없는 기부로 공익성이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자신 있게 전달을 못해서 좀 느렸었는데, 엔젤활동을 하면서 차츰 나 자신이 엔젤에 동화되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어필하니까 성공률도 높았습니다”라면서 지난해를 회상하듯 잠시 말을 멈췄다.

이어 안 엔젤은 “비전선포식, 발대식 같은 행사를 진행한 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 가입시키고 싶은 사람을 경기 있는 날 스타디움에 같이 가서 함께 응원을 한 것은 진짜 효과가 좋았습니다. 한 번 같이 가서 응원하고 나면 바로 가입합니다. 뛰는 선수들 보고,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엔젤들 보면 말이 필요없거든요. ‘이 좋은 주말에 이 사람들이 와 여기 와서 이려고 있노~’라면서, 자기도 그렇게 된다니까요~”라며 웃었다.

릴레이 챔피언을 할 수 있었던 저력이 궁금했다.

안 엔젤은 “제가 아직 40대 초반으로 사회모임에서 젊은 나이에 속하다보니 모임마다에서 총무나 사무총장을 많이 맡아 했습니다. 사회적 모임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아 꾸준히 봉사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임에서 저와 돈독한 분들이 모두 엔젤에 가입하셨거든요. 거기에 강병규 본부장이나 이호경 회장의 측면 지원도 힘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가입은 제가 시켰어도 만날 때마다 엔젤 자랑하고 취지 설명하고 하는 일을 두 분이 워낙 열심히 해놓으셨거든요”라며 혼자 힘의 힘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챔피언 수성을 위한 올해 목표에 대해 안 엔젤이 “2018년에 50명을 릴레이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하자 자리에 있던 모두가 “에이~~ 여기는 365명이라 카는데~~~. 게임 끝났네~~”라며 ‘야유’를 보냈다.

“아니쪼~ 길고 짧은 건 대박야 알지요~ 구체적인 계획 없는 숫자 공약은 소용없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던 안 엔젤이 말을 이었다.

“작년에는 1명씩 릴레이 하다보니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단체 릴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른 모임 공식회의 때, 공식적으로 엔젤 설명할 기회를 얻어서 집중력 있게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서 한꺼번에 여러 명이 가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라고.

이어 그는 “이 방법은 엔젤클럽이 1004명이 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초창기에는 공식적으로 엔젤클럽 설명한다고 하면 ‘그게 뭘데? 그걸 여기서 왜 설명하는데?’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은 엔젤클럽이 많이 알려졌고, 내심 ‘왜 나한테는 가입하라고 안 권하지?’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이런 방법이 통할 거라 생각됩니다”라고 덧붙혔다.

이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물개박수를 쳤다.

이제 다시 도전자인 추화엽 엔젤에게 시선이 쏟아졌다.

뭔가 말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추 엔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채 자켓에서 붓펜을 꺼내들고 수첩을 가져와 무언가 쓰기 시작했다. 수준급 필체가 눈에 띄었다.

추 엔젤은 “멸사봉공입니다. 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의를 받는다. 이게 바로 엔젤클럽의 취지 아닙니까? 첫째, 절대 정치색을 띠지 않는다. 둘째,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대구FC구단경영에 개입하지 않는다.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십시일반 하면 무조건 됩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또 다시 물개박수가 터져 나오고 모두들 파이팅을 외치며 건배로 자리를 마무리했다.

릴레이 할 목표가 365대 50. 숫자만 놓고 보면 차이가 꽤 커 보이지만 결과는 알 수 없는 일.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릴레이를 할지 아니면 지금 이 기사를 보고 비웃는 분이 챔피언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릴레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항상 엔젤을 생각하고 대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숫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엔젤族이 겨울을 이기는 법 '수요 만남의 날'



수요일에는 푸른재킷을~ 그대에게 입혀주고파!

신입엔젤, 재킷 못 입은 엔젤 모두 모여라!

3월 개막을 기다리는 '엔젤종족'이 긴긴 겨울을 이기는 법이 있다. 언젠가부터 수요일 아침마다 엔젤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모여서는 무슨 의식처럼 푸른 재킷을 입혀주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많지가 않았다. 이제 막 엔젤로 추천된 분, 그리고 벌써 엔젤의 날개를 달아놓고도 아직 푸른 재킷을 못 입은 엔젤들이다. 여기에 천사의 날개를 달아준 추천 엔젤도 찾아들이기 시작했다. 추천엔젤들은 어느 순간부터 푸른 재킷을 직접 입혀주며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진정한 엔젤족으로

만들어 주는 의식 같았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리는 '대구 FC엔젤클럽 수요만남의 날'이었다. '수요만남의 날'은 엔젤 임원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엔젤이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무국 업무에 부하가 걸리자 일일이 새롭게 가입한 엔젤을 못 찾아다니면서 불만이 생겼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임원진은 물론 애를 먹고 릴레이 한 엔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고, 사무국으로도 '불만 섞인' 연락이 온다. 전적으로 사무국에서 잘못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내놓은 것이 '대구 FC엔젤클럽 수요만남의 날'이었다. 따끈따끈한 신입엔젤은 물론, 기념품을 못 받거나 미처 연락이 닿지 않은 엔젤과의 만남을 직접 주선한 것이다.

강병규 운영본부장은 "엔젤 규모가 커지면서 사무국에서 일일이 다니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한 것도 없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다"며 "비시즌에는 비교적 찾기 쉽고 엔젤사무국이 있는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에서 임원진과 신입 및 그동안

기념품을 받지 못한 엔젤들과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안했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엔젤로고를 넣어 현수막도 만들고, 임원들은 목욕재계(?)하고 기다린다. 신입엔젤에게는 '신성한 마음'으로 진심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었고, 그동안 제대로 대접 못한

엔젤에게는 사죄의 마음을 담았다. 그렇게 1월부터 시작한 수요만남의 날이 이어지고 있다. 분위기는 '그웬잇'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한다. 처음에는 당사자들만 참여했지만, 이제는 추천한 엔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한다. 푸른 재킷을 입혀주고, 사인볼 주고, 사진도

찍는다. 엔젤은 릴레이 한 사람이 '왕'이다. '엔젤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수요일 만남의 첫날 새벽 눈 뚫고 엔젤 오남매 출동!

첫 수요만남의 날은 2018년 새해 1월 10일이었다. 첫 날인 만큼 그날을 자세하게 회상해 본다. 대구에 뜬 눈까지 내리는 악조건이었다. 열 명 가까이 오시기로 했는데 눈이 변수였다. 그렇게 오전 9시가 됐다. 눈 속을 뚫고 독수리 오형제가 아닌, '엔젤 오남매'가 나타났다. 윤창섭엔젤(GOLDEN-B 대표), 강철원엔젤(예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신정원엔젤(한국센서 대표), 이재남엔젤(DGB

생명 팀장), 박홍식엔젤(엔에스디자인 대표) (아래 사진 왼쪽에서부터)이다. 이 중에 강철원엔젤은 업무 차 서울에 있다가 새벽 3시에 대구로 왔다. 무엇에 썩였을까? 강철원엔젤은 엔젤가입이 '인생의 또 다른 터닝포인트'라는 명언을 남기고 다시 서울로 차를 몰았다고 한다. 엔젤 추천은 벌써 받았으나 이제야 푸른 재킷의 사나이가 된 윤창섭엔젤은 '섬섬함' 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이날부터 바로

릴레이에 돌입했다. 두 사람을 릴레이 했고, 다음 수요만남의 날에 직접 데려 와서 푸른 재킷을 입혔다. 그가 릴레이한 류광열 엔젤은 다음 수요만남의 날에 바로 참석했다. 후일 다른 모임에서도 무엇에 홀린 듯 "오라고 해서 왔다. 하지만, 배워서 열심히 활동하는 엔젤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앞으로 활약을 예고했다. 그렇게 수요만남의 날 첫 문을 열었다.



▼ 1월 10일 첫번째 수요만남의 날



이번엔 빗속을 뚫고 여덟명의 푸른 엔젤 참석

다음 수요일의 날인 1월17일도 심상치 않았다. 하필 비가 왔다. 유행가 가사처럼 ‘비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들’을 생각해 하는 날이었다. 굳은 날이 이어져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빗속을 뚫고 여덟 명의 엔젤이 푸른 재킷의 주인공이 됐다. 김진태엔젤(팔공인터내셔널 이사), 류광열엔젤

(원재산업 대표), 장세주엔젤(한국포장산업 대표), 권오상엔젤(변호사), 홍민수엔젤(WOORAM 대표), 이창환엔젤(토담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치우엔젤(대구음악협회 회장), 김치호엔젤(도영건설 대표)(아래 사진 왼쪽에서 부터)이었다. 앞으로 엔젤에서 활약 할 ‘여덟 명의 공신(?)’이라고 할까. 함께 모여

파이팅을 외치는 엔젤 여덟 공신의 목소리가 호텔 인터볼고 너머 ‘팔공산’에 닿을 듯 했다. 분위기가 그랬다. 마침 이날 엔젤에 가입한 분 가운데는 ‘팔공’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인가, 필연인가? 그렇다면 엔젤과 인연을 맺는 우리는 또 우연인가, 필연인가?



▲ 1월 17일 수요일만의 날

▼ 1월 24일 수요일만의 날



갈수록 업그레이드, 맹추위 속에도 뜨거운 수요일만당

1월24일 세 번째 수요일만의 날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행사 참석 대상자가 아닌 엔젤이 참석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참석 기준이 없기도 했다. 관심 있는 엔젤에게는 누구든 간에 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도 영하의 날씨가 변수였다. 영하 12도였다. 하지만 수요일만의 날은 뜨겁기만 했다.

이날은 임익기엔젤(브라이트 대표), 이동원엔젤(현대자동차 차장), 김준현엔젤(가람건축사

사무소 대표), 장극윤엔젤(예진수예침장 대표), 이윤희엔젤(한국알카리A水 대표), 김상호엔젤(내일건설 대표), 배종찬엔젤(기성광고 대표)(위 사진 왼쪽에서부터)등 행운의 일곱 엔젤이 참석했다. 새로운 풍경은 바로 릴레이를 추천한 엔젤들의 ‘권리행사’였다. 시작은 신입 이윤희엔젤의 가입을 축하하기 위해 안상영엔젤이 찾아오면서부터다. 사실 이윤희엔젤은 백무연엔젤이 추천했다. 하지만 평소 이윤희엔젤과 지인인 안상영엔젤이 가입 소식을 듣고 출근하면서 운전대를 돌린 것이다.

이윤희 엔젤이 푸른 재킷을 입고 난 뒤 안상영엔젤과 기념촬영을 함께 하자, 이후부터 너도나도 릴레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장했다. 신입엔젤을 릴레이하거나(아버지), 릴레이 한 엔젤을 앞서 릴레이 한 공(할아버지)을 자처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한편으로 이윤희엔젤 역시 자신이 추천한 이동원엔젤과 함께 참석해 딸이면서도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하기도 했다. 순간 행사장에는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이 분위기는 2월7일 있었던 수요일만의 날에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 2월 7일 수요일만의 날

▼ 2월 21일 수요일만의 날



새로운 엔젤문화로 정착, 개막 후엔 대구스타디움으로 이어져

2월7일에 열린 수요일만의 날은 처음부터 릴레이 추천인들의 목소리가 컸다. 행사 전부터 윤창섭엔젤과 안홍운엔젤이 참석키로 했고, 여기에 장정숙 엔젤도 가세했다. 이날 참석한 엔젤은 최진오 엔젤(한국디자인모형 대표), 김기섭 엔젤(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 원장), 장안중엔젤(석문전기 상무), 한동엽엔젤(방천가족족발 대표), 최미애엔젤(뉴니케 팀장), 박민천엔젤(다온PLUS 대표), 조정연엔젤(대청디앤씨 대표), 서정원엔젤(효성그라비아

대표), 윤남수엔젤(아석전기 대표)(사진 왼쪽에서부터) 등으로 지금까지 수요일만의 날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여기에 추천인까지 합류해 직접 사인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3월을 코앞에 둔 2월21일에도 수요일만의 날은 계속됐다. 설 연휴 끝 바쁜 중에도 양종호(수성구축구협회 회장), 김진수(엔에이골프 대표), 박현주(장아푸드 대표), 김순조(삼성생명 명인 COT), 최규락(티센 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 소장), 김홍석(디지털 신세기)엔젤 등 여섯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엔젤 임원에서 수요일 아침마다 열정을 갖고, 회의를 하고 또 엔젤만담의 날을 갖는 것에 대해 감동하며, 엔젤을 널리 릴레이 해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많은 인원이 모인 행사는 아니었지만, 수요일만의 날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렇게 비시즌의 추위를 이겨냈다.

3월엔 가즈아! 엔젤족의 영혼이 스며있는 대구스타디움으로

이제 3월이다. 엔젤족의 아지트가 바뀐다. 지난 한 해 동안 엔젤족의 영혼, 즉 ‘시민정신(시티즌오블리제)’이 스며있는 대구스타디움 ‘엔젤존’이다. 엔젤의 깃발이 나뚫기고, 함성이 돌아온다. 엔젤전사인 대구FC 선수들도 돌아온다. 신입엔젤, 아직 푸른 재킷을 받지

못한 엔젤, 예비 엔젤, 그리고 추천한 엔젤이 이번에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엔젤족이 된 기쁨을 같이 하게 된다. 바로 ‘대구FC홈경기 엔젤만담의 날’이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엔젤(신입 또는 기념품 미수령 엔젤, 추천 엔젤)은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단독방에

참석의사를 남기면 되고, 대구스타디움으로 직접 찾아와도 된다.

“이제 3월 ~ 대구스타디움에서 푸른 재킷을 입고 만납시다.”





천사데이

대구FC엔젤클럽, 천사들의 샴페인을 터뜨리다

2017년 11월 28일 오후 6시 30분,
호텔 인터볼고 대구 컨벤션홀.
마침내, 천사들이 샴페인을 터뜨렸다.

2016년 11월, 비전선포식에서 '명문자립구단'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전용구장이 완공되는 2018년 말까지 엔젤회원 1004명을 목표한지 딱 1년만이다.
목표달성을 1년 앞당겨, 마침내 엔젤회원 1004명을 달성했다.

아무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꿈같은 이 자리에 천사들이 모였다.

잘 짜여진 1,000만 관객의 드라마였다면 자화자찬일까?
세계 태권도 대회의 TV채널은 쉽게 돌리지만, 자식들의 승품 심사는 회사에 조퇴를
하고서라도 보러 가는 게 부모마음인데, 이번 우리 천사들의 경기, 천사데이
는 그 기대감과 열기가 가히 월드컵 결승전과 맞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FC구단주인 권영진 대구시장, 최길영
대구시의회 부의장, 진영환 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구시 및 시의회
관계자와 대학 및 협약기관장, 언론사 임원, 체육담당기자,
대구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등 내빈 40여명과 대구FC
구단 임직원과 선수들, 서포터즈, 크루 등 구단관계자 60여명,
엔젤회원 450여명 총 55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엔젤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2~3시간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도착해, 안내데스크에서 명찰을 나눠주고,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해서 테이블로 안내하고, 다과를 준비했다.

온전히 엔젤들의 협찬으로 마련된 선물들도 착착 도착했다. 풍국면
선물세트 500박스, 무알콜 손소독제 500개, 레드피아노 식사
할인권 500세트 등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은 천사의 날, 천사들이 주인공인 만큼 너무 많은 내빈들의
소개는 자막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
992번째 회원부터 1004번째 회원의 엔젤 가입식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992호 엔젤부터 1004호까지 13명의 엔젤영입을
비공개로 추진해왔다. 이날 가입한 엔젤 13명은 '대구의 자랑',
'비전과 희망', '난관극복', '출향인사', '대구가 제2의 고향', '봉사'
등의 컨셉을 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인사들로 초대했다.



- 992호 박한상 갑을상사그룹(주) 대표,
- 993호 KK그룹 박윤경 회장,
- 994호 경북대 모발이식센터장 김정철 교수,
- 995호 고문당인쇄 장선운 대표,
- 996호 계명대학교 음대학장 테너 하석배 교수,
- 997호 팔이식 수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시킨 W병원 이상현 원장,
- 998호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
- 999호 일본 JPGA에서 활약중인 조민규 프로,
- 1000호 대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코바체프,
- 1001호 지역 대표 여성경제인 효림산업 한무경 회장,
- 1002호 경북청도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이배,
- 1003호 출향기업인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황우곤 대표
- 1004호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사진작가 유병완씨

모두가 궁금했던 1004호 엔젤은 왕성한 작품활동으로 장애를 극복하며
모든 장애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사진작가였다. 2015년 대한민국
사진대전에 입상하는 등 다수의 입상경력을 가진 유병완씨는,
작품활동으로 얻은 수익전액을 자신과 비슷한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기금으로 기부하고 있는 원래 천사였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행사를 위해 13분의 천사를 선정하고, 발표하지만 1호에서 1004호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의 천사이며,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던 초창기에 기꺼이 1호, 2호, 3호로 나서주시며 오늘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SL그룹 이충곤 회장이 제10호 다이아몬드 엔젤에 가입했다. 이충곤 회장은 “지금까지도 많은 후원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는데 엔젤의 정신과 실천을 보니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충곤 회장의 감동이 메아리를 쳤을까? 천사데이 행사 이후 4~5명의 다이아몬드 회원이 더 가입될 예정이다.

천사들의 기운은 행사 중에도 상승했다. 이호경 회장은 2차 목표로 2018년 말 전용구장 완공시까지 엔젤회원 2018명, 2020년까지 12,000명의 엔젤 및 엔시오 회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선포했다. 12,000명의 숫자는 2018년 말 완공하는 전용구장의 수용인원으로, 엔젤로 전용구장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로 설정됐다.

이호경 회장이 엔젤클럽 2차 목표 발표를 하고 내려가려는데 진행자가 회장에게 다시 무대로 올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인의 초대로 행사장에 왔다가 엔젤클럽 취지에 감동한 김영숙 DHC TOP 보건의료산업최고위과정 원장이 현장에서 바로 1005호 엔젤회원에 가입하겠다는 쪽지가 올라온 것이다.

즉석에서 1005호 엔젤의 가입식이 거행되면서 2차 목표를 향한 릴레이는 바로 시작되었고, 행사이후 20여 일만에 40여명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천사데이 행사에서는 서로 감사한 마음을 주고받는 훈훈한 풍경도 이어졌다.

먼저, 구단주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구단 활성화와 지역 프로축구 저변확대에 기여한 ‘엔젤클럽’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유공엔젤 정영준 엔젤(다원아이디 대표)과 안상영 엔젤(광진종합건설 대표)에게 유공엔젤 표창을, 서포터즈 배정호 회장과 재정이사 이중호(세신정밀 대표)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대구FC 조광래 사장은 정원명 크루 회장, 색소폰응원단, 대구시 체육과 최영임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은 지역의 스포츠전문기자 매일신문사 이호준 기자, 대구MBC 석원 기자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엔젤클럽에서는 클래식 잔류에 크게 기여한 대구FC 주장 한희훈 선수와 2017시즌 골키퍼부분 베스트 11에 선정된 조현우 선수에게 각각 금 5돈의 선물을 증정했다.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1004라는 숫자를 희망이라 부르고 미래라고 일컫고 싶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250만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의 DNA를 가진 전국의 모든 분들이 엔젤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열정을, 승리와 대구를 릴레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에서 “대구FC엔젤클럽은 잠자던 대구정신을 일깨웠다. 힘을 보태야할 때 발벗고 나서는 대구의 저력을 1004명의 엔젤들로 확인할 수 있다”며, “대구市的 발전, 대구축구의 발전을 위해 전용구장과 클럽하우스를 계획대로 건립하여 대구FC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고, 대구시민들이 축구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명품 색소폰 연주자 김민재씨의 오프닝 연주로 시작했다. 김민재씨는 본인의 출연료 100만원 전액을 엔젤클럽에 기부하며, 온몸으로 엔젤을 응원했다.

2부 만찬에 이어 3부 축하이벤트에서는 케이크 커팅과 샴페인 터뜨리가 이어졌다. 이날은 1004명 엔젤 모두의 날인만큼, 샴페인은 헤드테이블에서만 아니라 전 테이블에서 약 70명의 샴페인을 동시에 터뜨려 장관을 이루었다.

샴페인이 터지자 좌석에서 서빙요원으로 깜짝 변장한 ‘인간토 솔리스트’ 성악가들이 ‘축제의 노래’를 불렀다. 감동의 물결이 샴페인을 타고, 축제의 노래를 타고,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마지막 행운권 추첨은 릴레이 회원을 기록한 카드를 제출한 엔젤 중 50명을 추첨해 호텔 인터볼고(서기수회장 부부엔젤)이 기증한 호텔숙박권(50만원 상당) 20명과 공연기획 성우(배성혁 엔젤)에서 기증한 뮤지컬티켓(20만원 상당)2매씩 30명에게 전달했다.

큰 경기 때 마다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이다와 얼음을 공수하며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장외에서 경기력을 뒷받침해 주시는 엔젤들과 언제나 넉넉하게 엔젤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원로 엔젤들의 자리도 빛났다.

메시나 호나우도 경기보다 기성용이나 손흥민 경기에 흥미를 갖고 긴장하는 것은 경기 내용이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편의 경기이기 때문이다.

1004명 엔젤 모두는 우리 편이며, 같은 편은 같은 곳을 바라본다.

이제 다음 목표는 전용구장에서 2018명이 "대구는 축구다, 축구는 대구다"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다.

엔젤은 살아있는 대구정신이며,

대구市的 신재생 에너지이다.





엔젤과 함께 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기

토치릴레이는 올림픽 성공! 엔젤릴레이는 2018 달성!

이호경-예영숙-백무연 엔젤, 2018년 희망을 릴레이하다
엔젤 회원들도 엔젤깃발 들고 함께 달려

지난 2월25일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이 성공리에 폐막됐다. 환희와 감동, 아쉬움과 기대감 등 대회와 관련된 술한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그 이야기 속에 엔젤의 스토리도 담겨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다. 대구FC엔젤클럽 소속 엔젤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성화봉송주자로 참여하는 영예를 안았다. 성화를 봉송하면서 올림픽 성공은 물론, 엔젤클럽의 발전을 기원하고 활동을 홍보했다. 이는 엔젤클럽이 그동안 펼쳐온 지역 사랑 활동과 건전한 시민정신이 또 한번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당시 뜻 깊었던 엔젤들의 성화봉송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지난 2017년 12월30일 성화봉송주자로 나선 엔젤 회원은 이호경 회장과 예영숙엔젤, 백무연엔젤 등 3명이다. 이호경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대구FC 홈구장인 대구스타디움 앞에서, 그리고 예영숙엔젤은 오후 3시40분부터 월드컵네거리에서 경산방면으로 달렸다. 백무연 엔젤은 이날 마지막 성화봉송주자가 되는 영예를 안았다. 성화를 든 엔젤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함께 대구FC의 2018년 선전과 엔젤클럽의 발전을 함께 기원하며 달렸다. 이 자리에는 엔젤 회원들도 함께 나와, 평창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응원하는 피켓과 엔젤클럽 깃발을 흔들며 함께 뛰었다.

“올림픽과 대구FC엔젤의 성공”함께 염원하며 달렸다

대구FC의 홈 구장인 대구스타디움 앞에서 성화봉송을 한 이호경 회장은 “성화봉송은 혼자 했지만, 1000명이 넘는 엔젤클럽 회원들이 함께 편 것”이라며, “무엇보다 릴레이를 통해 평창까지 가는 성화봉송 방식이 릴레이를 통해 시티즌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엔젤클럽의 취지와 같이 더욱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성화 봉송 중에 목청 높여 대구FC 엔젤클럽의 발전과 대구FC의 2018년 선전을 외치며 대구FC 엔젤클럽과 대구FC를 시민들에게 홍보 했다.

대구스타디움을 뒤로 하고 성화를 이어 받은 예영숙 엔젤도 “추운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 손을 흔들고 박수를 쳐서 말 그대로 잔치분위기였다”며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은 88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88올림픽으로 우리가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듯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선진국을 향해

비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엔젤 회원으로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다.

백무연 엔젤은 2일차 마지막성화 봉송주자로 대미를 장식했다. 성화봉송주자로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화랑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는 등 체중조절을 할정도로 남다른 준비를 했다는 백무연 엔젤은 “이날 오후 6시27분부터 동대구역 2번 출구에서 동대구역 광장에 마련된 성화 안치대 무대까지 마지막 성화를 봉송했다”며 “무대행사를 끝내고 광장에서 성화봉송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외국인과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심장이 뛰고 전율과 같은 감동을 느꼈다”고 봉송 소감을 밝혔다. 백엔젤은 이 모두가 엔젤회원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며 엔젤회원이 된 것을 감사했다.



설 앞둔 박현주엔젤, 대구FC선수단에 전통된장 후원 '박장(된장)'먹고 올해는 상위스플릿 진출 기대



▲ 박현주 엔젤이 대구FC선수들에게 후원할 박장된장세트를 포장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박장대소(朴醬大笑)’!

“대구FC선수들이 우리 ‘박장’(朴醬)을 먹고 ‘크게 웃는’(大笑),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우리 전통된장을 고집하는 박현주 엔젤(사진 : 장아푸드 대표)이 설 명절을 앞둔 2월 14일 선수는 물론 코칭스태프 등 대구FC선수단 전원에게 100% 순수 콩으로 빚은 ‘박장 된장’ 세트를 후원하면서, “상위스플릿 A’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덕담을 남겼다.

박현주 엔젤은 ‘천사의 날개’를 단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엔젤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도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늘 생각했다고 한다.

“명절을 앞두고 선수들이 설 연휴까지 반납하면서 훈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쓰였어요. 가족과 함께해야하는 설 명절에, 타지에서 선수들이 고생하는 만큼 우리 전통된장을 먹으며 조금이라도 좋은 컨디션으로 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후원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후원한 박장 세트는 된장 250g 3개, 간장 250ml 1병으로 구성된 것으로, 총 300만원 상당이다. ‘박장’은 박현주 엔젤의 성 ‘박(朴)’과 된장의 ‘장(醬)’을 합성한 장아푸드의 대표 브랜드로, 경북 안동의 비옥한 토지에서 맑은 물과 햇살을 머금은 국내산 콩으로 빚은 전통 된장이다.



특히, 건조기가 아닌 ‘구들’에서 메주를 띄우는 등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는데다 2~6년 이상 숙성시켜 깊은 맛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한다. 여기에도 현대인들의 다양한 입맛과 제품 디자인 또한 눈높이에 맞춰 생산해 연예인 등 젊은 층에서도 즐겨 먹는다고 한다.

여린 외모에도 된장 같은 ‘진득함’과 ‘의리’를 강조하는 박현주 엔젤은 “처음 전통된장 사업에 뛰어들 때부터 구수한 맛도 맛있지만 된장의 진득함과 익을수록 깊이를 더하는 ‘숙성’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콩 한쪽, 소금 한 줌, 물 한 바가지라도 고르고 골라 정성을 들여 전통된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박장’이 된 사연을 털어놨다.



내년 해외 전지훈련 시에도 후원 약속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지원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현주엔젤은 새희망봉사단의 일원으로 5년째 청각장애인을 후원하고 있는 등 넉넉한 ‘된장인심’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골프선수에게 된장을 후원한 바 있는 박현주엔젤은 “우리 전통된장은 속이 편하고 신진대사를 좋게 해 면역력을 높이는 등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에도 좋다”며 “올해는 미처 몰랐는데 내년에는 장기간 동안 해외전지훈련을 떠나는 대구FC선수들의 건강을 우리 된장으로 책임지겠다”고 추가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Angel Insight_엔젤단톡방

엔젤단톡방 올해로 2년째!

첫날 20명에서 현재 463명 회원 활동

엔젤소통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2016년2월24일.

대구FC엔젤클럽에게 있어서 이날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대구FC 단톡방이 열린 날이다. 올해로 2년째를 맞았다. 엔젤클럽 단톡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단톡방 오픈 전과 후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단톡방 오픈 전에는 50명도 안되던 회원이 단톡방이 열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18년 2월28일 기준으로 463명이다. 단톡방 인원만 2년 사이 10배 넘게 늘어났고, 전체 회원수는 1100명을 돌파했다. 그만큼 단톡방의 역할이 컸다는 의미다. 중간에 대구FC 엔젤클럽 밴드가 만들어지고, 카페가 열리고, 구단 홈페이지에도 엔젤공간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엔젤의 가장 큰 소통공간은 단톡방이다. 엔젤 소통의 큰 역할을 하던 그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봤다.

2016년2월24일 단톡방 오픈, 첫글 정영준 엔젤

2016년2월24일 이날 점심시간에 강병규, 이호경, 이동경, 정영준, 김현만, 조두석 엔젤과 구단 및 대구시 관계자가 호텔 인터볼고에서 모여 엔젤활성화 방안을 논의 했다. 그 중 거론된 것이 바로 단톡방 오픈이었다. 이 모임이 끝난 뒤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2시35분 단톡방이 열렸고, 단톡방에 처음 초대된 회원은 이호경 회장을 비롯 강병규, 정영준, 조두석, 김현만, 이동경 엔젤 등 이다.

첫 번째 댓글을 올린 회원은 정영준 엔젤이었다. 오픈 1분 만이었다. 첫 번째 올린 사진은 이날 함께 찍은 사진이다. 첫 번째 공지는 2016년 대구 FC 출정식 참여요청 글이었다. 단톡을 통해 첫 릴레이를 한 엔젤은 이호경회장이다. 두 분을 추천했다.

그리고 이날 오후 4시44분 안타깝게도 J모 엔젤이 단톡방을 처음으로 나갔고, 20분 뒤인 5시4분 이호경 회장이 다시 초대해 불러들였다. 이 때 시작된 회장과 탈퇴자와의 줄다리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카톡방 오픈을 보고 당시 대구시체육과장 이었던 이도현 대구FC 미래기획실장은 “카톡보고 눈시울이 다 붉어집니다. 이렇게 지역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어 힘이 절로 나네예. 감사드립니다”라고 감격하였고, 1호 배장수 엔젤도 카톡을 통해 출정식에 참가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오픈 첫날부터 릴레이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바로 안상영 엔젤을 두고서다. 권일경 엔젤이 안상영 엔젤을 출정식에 데려간다고 하자, 이동경 엔젤이 “내가 꼬실라 겠는데”라며 아쉬움을 표시하였고, “노기원 엔젤은 내가 짬”이라고 단톡방 처음으로 ‘짬’을 했다. 그리고 부산했던 이날의 마지막 카톡은 이호경 회장이 올렸다. 미래를 예측한 메시지였다.

“모든 분들 대단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는 올리는 ‘톡톡’, 그래도 우리는 엔젤

물론, 인원이 많다보니 불편함도 많다. 한두 사람이 글을 올려도 카톡방은 부산하다. 그런 만큼 아침저녁 할 것 없이 ‘카톡’소리가 울려댄다. 그래서 좀 쉴까 싶어 빠져나가도, 금방 다른 회원들이 불러들인다.

이후 대구FC엔젤클럽 단톡방은 소위 한번 걸렸다면 빠져나갈 수 없는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다. 물론,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한 회원도 있다. 단톡방에서 빠져나간 이유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스마트폰 조작실수’였고, 그 다음은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다. 하지만, 많은 엔젤들이 단톡방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엔젤클럽 단톡방은 개인 홍보나, 이익추구, 정치적 색깔을 배제한 만큼 순수한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463명이 넘는 가까운 사람들이 별다른 이해 관계없이 ‘시민정신, 축구사랑, 지역사랑’이라는 목적으로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단톡방에 가장 많이 오르는 내용은 역시 엔젤회원 가입소식과 환영메시지다. 기본적으로 엔젤클럽 사무국에서는 엔젤회원이 되면 단톡방에 먼저 올릴지를 물어보고, 허락받으면 즉시 초대한다. 여기에 엔젤들의 환영인사가 이어지고, 신입엔젤의 화답이 뒤따른다. 또 다른 소식은 대구FC와 관련된 내용이다. 출정식부터 발대식 등등 각종 행사에서부터 원정경기에서 승전보를 보내오는 사진 등이다. 시즌이 시작되면 주말에도 엔젤특공장은 쉴 없이 돌아갔으니, 그에 따른 카톡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반대로 이제 습관이 된 탓에 카톡이 조용하면 오히려 섭섭해 하는 엔젤도 있다. 그만큼 엔젤단톡방이 생활이 됐다는 얘기다. 단톡방에 가장 많이 오른 단어는 ‘대구FC’, ‘엔젤’, ‘릴레이’, ‘감사합니다’등 이었고, 구호로는 ‘축구는 대구다’가 많았다. 김재홍 엔젤의 전매특허인 ‘브라보’도 유행어로 자주 오르는 내용이었고, 이동경 엔젤은 가끔 ‘구조개혁없는 시민구단, 재앙을 예약하다’등 시민구단을 돌아보는 내용을 링크하며 엔젤의 인식을 깨우기도 한다.

엔젤단톡방 작가시대 개막 ‘글쟁이’출현

엔젤단톡방에 글쟁이들이 나타나면서 엔젤작가시대를 열었다. 강정영 엔젤은 엔젤클럽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눈에 정갈하게 올려 단톡방 공식 ‘보도채널’이 됐다. 뿐 만 아니라 세징야, 한희훈 등 선수와의 인터뷰를 정감 있게 소개해 프로 글쟁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엔젤행사는 경기장 안에서 완료한다’는 ‘원내주의’를 고집하는 안상영 엔젤 역시 엔젤 작가시대에 합류했다. 각종 엔젤행사에 정감 있는 글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대구FC경기의 프리뷰와 리뷰도 안 엔젤이 공들이는 글이다. 바쁜 업무 중에도 대구FC는 물론 K리그 전체를 훑어보며 글의 깊이와 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최근 단톡방에 올린 ‘쿤밍전후지 방문기’ 역시 엔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많은 엔젤들이 가슴 축축한 글을 올리면서 엔젤단톡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 추가로 더 많은 작가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하루도 엔젤단톡방이 열렸다.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카톡’

소리는 울려퍼질 것이다. 불편하기도 하지만 정겨운 소리이기도 하다. 나가는 회원, 다시 불러들이는 사무국과의 줄다리기도 계속될 것이다. 현재 카톡방을 나가면 사무국의 사무총장이 개인 카톡으로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전화를 직접 한 뒤 다시 초대한다. 때로는 이호경 회장이나 추천한 엔젤이 불러들이기도 한다. 김종두 사무총장은 “탈퇴하는 분이 있으면 직접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엔젤단톡방의 취지를 설명하며 다시 초대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엔젤단톡방 사용 시 배려도 필요하다.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자칫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두 총장은 “사무국 자체로 카톡방 운영시 주의 사항을 정리해서 공지하기도 한다”며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엔젤클럽이라는 큰 그림을 생각해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 좋은 소통공간이 될 것”이라고 엔젤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엔젤단톡방 이렇게 이용하면 좋아요!

▣ 목적

- 대구FC엔젤 단톡방은 엔젤의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스토리 창고입니다. 새로운 얼굴이 소개되기도 하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정겨운 공간입니다. 엔젤님들이 좀 더 불편함 없이 따뜻한 사랑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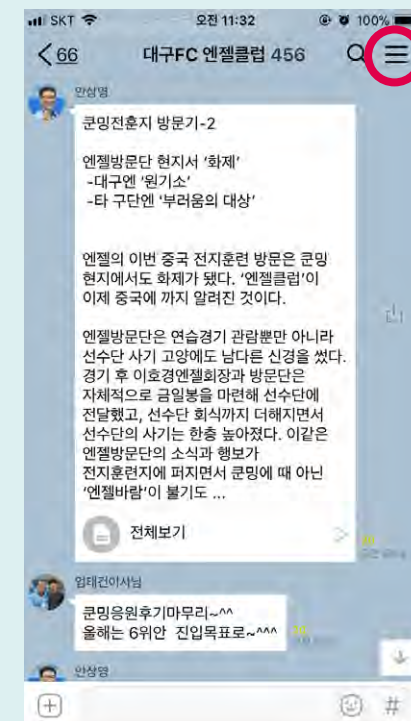
▣ 회원초대 대상

- 신입회원을 초대합니다.
- 가입축하글, 엔젤클럽과 관련된 글, 대구FC소식 게재
- 엔젤의 위상을 높인 이야기, 엔젤과 관련된 가슴 따뜻한 이야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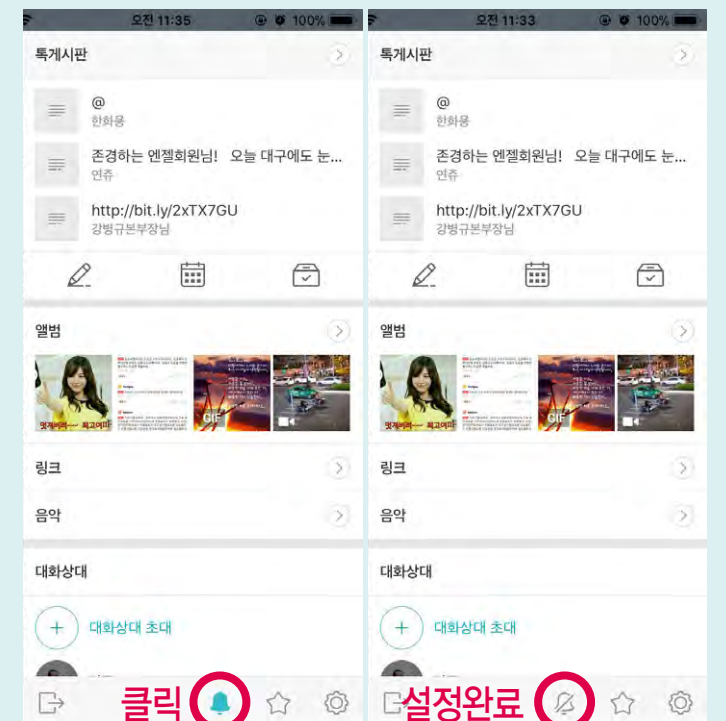
▣ 유의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인 사항은 금지합니다.
- 개인사업과 관련된 사항도 제한합니다.
- 애경사 또는 개인적인 사담은 개별 문자를 이용합니다.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시비 거리 제공을 금지합니다.
- 22시(밤 10시)이후, 또 새벽시간에는 가능한 글 게시나 답 카톡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취침하시는 분을 위하여)

▣ 카톡무음설정방법



클릭



✱ 본 공간을 통하여 엔젤클럽의 발전과 즐거움이 더해지는 생활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젤이 보는 대구FC 2018!

6강 가능, 첫 골은 **세징야** – 차기 국대는 **정우재!**

단톡방 설문 및 전화 인터뷰 실시

대구FC엔젤들은 2018년 시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엔젤들의 '축구'에 대한 애정이 깊어갈수록 대구FC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엔젤사무국에서는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엔젤단톡방을 통하여

2018년 대구FC를 전망하는 설문을 실시했으며,

축구 사랑이 남다른 직관족을 대상으로 올 시즌을 전망해봤다.

단톡방 투표 기간이 짧고 응답수가 많지 않아 데이터로 쓰기 부족했지만,

추가적으로 전화 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반영했다.



엔젤 대다수, 상위스플릿 진출 기대!

엔젤들은 대구FC의 2018년에 대해 희망적이었다. 많은 엔젤들이 대구 FC가 충분히 상위스플릿 A(1~6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엔젤사무국에서 단톡방을 통해 2018년 대구FC 예상 순위를 물은 결과 총 90명 가운데 90%에 가까운 78명이 '6위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6위'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4~5위'가 20명이었다. '1위', 즉 우승을 하겠다는 응답도 8명이나 됐다. ACL 진출권인 '2~3위'는 2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에 비해 하위스플릿에 해당하는 7위를 하겠다는 응답은 12명에 그쳤다. 단톡방 설문 조사 외에 전화를 통한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위기였다.

지난 1월 직접 중국 쿤밍 전지훈련장을 찾아가 직접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지켜본 엄태건 엔젤은 “직접 전지훈련장에 가보니 올해도 외국인 선수들이 좋은 것 같았다. 새롭게 영입된 카이온도 몸놀림이 좋고 기술도 있었다.”며 “6위에서 8위 정도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홈경기 직관 100%인 강해구 엔젤도 “상위 스플릿 A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 좋은 성적이면 좋겠지만, 우선은 목표를 그렇게 잡은 만큼 그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투자한 것도 고려해야하는 만큼 6위 정도면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프로선수의 부모가 본 2018년 대구FC는 어떨까? 최근 상주상무에 입단, 대구를 잠시 떠난 신창무 선수의 어머니 박기자 엔젤은 “젊은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며 “지난해 다져온 조직력이 살아있고, 1부에 대한 적응력도 키운 만큼 상위 스플릿 진입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창단 때부터 대구FC 경기를 보아온 김상도엔젤도 “지난해 보다 확실히 나은 것 같다. 챌린지는 물론 클래식을 거치면서 조직력을 갖춘 ‘원팀 (One Team)’이 됐다. 지난해만큼 골폭도 많지 않을 것 같다. 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홈페이지를 통해 전지훈련과정을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실전으로 이어진다면 6위까지 가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홈 어웨이 등 전 경기 직관은 물론 연습장 까지 찾아다니는 김동규 엔젤은 두 단계 더 높은 4위에 한 표를 던졌다. 그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6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바람은 4위다. 솔직히 ACL 응원가는 게 꿈이다. 4위만 하면, 혹시 상위팀 중에 FA 우승팀이 생겨 대구에게 ACL의 기회가 올 수 있다.”며 “지난해 잘 해준 주니오가 팀을 떠나 아쉽지만 새롭게 영입된 카이온과 지안이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이 잘해준다면 8위를 넘어 6위, 그리고 그 이상의 순위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다”고 희망했다.

현실적으로 7, 8위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일부 엔젤의 생각은 달랐다. 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FC의 선수에 대한 투자, 이적 및 영입 등을 봤을 때, 올해처럼 8위만 해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평소 축구사랑이 남다른 서태현 엔젤은 ‘현실’과 ‘희망사항’의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했다. “희망사항, 그리고 목표는 상위스플릿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수층 및 타구단과 비교했을 때는 올해 거둔 성적만 유지해도 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서태현 엔젤은 “지난해에도 엄청나게 잘한 것이다. 시즌 초반 만하더라도 우리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후반 갈수록 안정을 찾아갔다. 정신없이 뛰기만 했는데 후반부터 여유가 생기면서 플레이가 살아났다. 올해도 시즌 초반만

잘 이겨내면 기대이상의 성적도 가능할 것”이라며 희망의 끝을 놓진 않았다.

오랫동안 대구FC 팬으로 경기를 지켜본 김동수 엔젤은 상위스플릿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부터 조심스럽게 던졌다.

김동수 엔젤은 “나 뿐 만 아니라 주위의 분들도 현실적으로 6위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현재 대구 전력, 리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다”며 상위스플릿 진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동수엔젤은 경기외적으로 긍정적인 판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수 엔젤은 “9.24 전북 전 VAR 판정과 관련하여 엔젤의 역할이 컸고 올해는 다를 것이라고 본다.”며 “모든 것이 잘 풀리면 6위도 가능할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골 주인공은 세징야! 카이온 활약도 기대

엔젤들은 2018시즌에도 세징야의 사랑이 남다르다. 단독방 설문조사에서도 첫 골 넣을 선수로 세징야를 가장 많이 뽑았다. 응답자 5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명이 세징야가 첫골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다음이 카이온이었다. 설문조사 초기에는 카이온이 앞서 갔다. 전지훈련지에서 치른 연습경기에서 카이온이 골을 계속 넣은 영향이 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징야로 몰렸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새 외국인 선수 지안이 6표였고, 수비수에서는 캡틴 한희훈도 3표가 나왔다. 골키퍼 조현우(?)도 2표로 1표 씩을 받은 정우재와 홍승현을 앞 질렀다.

지난 엔젤매거진 인터뷰 당시 세징야의 아버지를 자처한 엄태건엔젤은 “양아들(?)에 대한 사심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세징야는 대구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며 올 시즌도 좋은 활약이 기대된다고 했다. 서태현 엔젤도 첫골의 주인공으로 세징야를 뽑았다. 그동안 대구FC에서 오래 뛰었고 기량도 물이 올랐다는 것이다. 별명 그대로 대구의 에이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강해구 엔젤은 지난해 세징야의 슈팅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서 올해도 세징야의 슈팅타임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설문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새얼굴 카이온에 대한 기대도 높다. 카이온은 이미 중국전지훈련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외국인 선수들은 전지훈련 보다는 시즌 들어가서 제 기량이 올라오는데 카이온은 이미 K리그 경험이 있어서인지 전지훈련지에서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에서 가진 연습경기에서 5골(6경기)을 기록했다. 실제로 새로운 외국인 스타를 기대하는 김동규엔젤이 설문조사에서 카이온에게 표를 던졌다. 여러 자료를 보니 연습경기에 골도 넣고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 김상도 엔젤도 이번에 합류한 지안에게 첫 골의 영예를 줬다. 이들의 바람대로 올 시즌도 새로운 용병스타를 기대해 본다.

차기 국대 후보, 정우재, 한희훈! 김대원, 홍승현도 기대

‘조현우’라는 걸출한 국가대표 골키퍼를 갖게 됐지만, 엔젤들은 여전히 ‘태극마크’가 고프다. 필드 플레이에서도 국대 선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로 정우재를 뽑았다. 단독방 설문조사에서 차기 국가대표감으로 정우재에게 가장 많은 29표를 던졌다. 서태현 엔젤은 “한희훈도 국대급이지만, 차기 국가대표 인만큼 정우재가 가능성이 높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발전가능성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엄태건, 김동규엔젤, 그리고 김상도 엔젤도 정우재가 국가대표에 뽑히기를 희망했다. 다만, 김상도 엔젤은 “같은 포지션에 전북의 김진수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앞으로 정우재가 김진수를 넘어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희훈선수도 엔젤에게 친근하다. 한선수는 이미 지난해 헌신적인 플레이로 엔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강해구 엔젤은 “한희훈 선수는 올해도 좋은 활약이 기대된다. 투지 넘치는 플레이와 믿음직한 플레이, 그리고 헌신적인 모습이 좋다.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평했다. 김동수 엔젤 역시 “현재 국가대표팀이 중앙수비가 약한 만큼 한희훈 선수가 필요할 것”이라며 “최근 전북의 김민재 선수가 주목받고 있지만, 나이, 경험, 투지, 안정감 등 수비수 덕목으로 봤을 때 한희훈이

제격”이라고 말했다. 박기자 엔젤도 ‘듬직한 희훈씨’를 국대감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엔젤들은 김대원, 홍승현선수 등 젊은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국가대표 예상 선수로 김대원도 엔젤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중국전지훈련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엔젤의 눈을 사로잡았다. 중국에서 김대원의 플레이를 눈여겨 본 안상영 엔젤은 그의 재능에 후한 점수를 주며, 선발이 아니더라도 조커로 좋은 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지난해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한 홍승현 역시 국가대표 기대주다. 홍승현 팬인 김동수는 “지난해 홍승현선수가 골 찬스가 있었는데도 욕심을 안내더라. 올해는 만나면 골 욕심을 내라고 반드시 말해줄 것”이라고 첫 골을 기대하기도 했다. 김동수 엔젤은 또 이번에 입단한 전주현도 눈여겨 보고 있다. “대학가 최고의 패스마스터라고 불리는 전주현은 안정적인 볼 키퍼와 탈 압박, 테크닉,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킬 패스 능력 등을 두루 갖춘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다”며 “연세대 출신으로, 단신이지만 김선민 느낌이 나는 만큼 잘 성장한다면 중원에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우재



한희훈



김대원



홍승현

목표달성 위해선 중원 보강이 관건

경기적인 측면에서 엔젤들은 대구의 중원을 가장 많이 염려했다. 신창무, 김선민 등이 군복무로 빠져나갔고, 류재문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걱정이 생긴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중원자원을 눈여겨 봤다는 엄태건은 “김선민이 빠져나가고 얼마나 보강 됐는지가 의문이었다. 초기여서 전지훈련지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중원만 보강된다면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상도 엔젤 역시 “공수 조율도 중요하지만 중원이 풀리면 곧바로 실점상황과 연결

된다”며 “이를 해결할 확실한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기대치가 높지 않다”며 걱정했다. 김동수와 김동규 엔젤은 김선민이 빠진 자리를 황순민이 잘 메워 중원이 빨리 안정되길 기대했다. 수비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서태현 엔젤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구의 수비는 불안 하다”며 “대구가 6위 이상 성적을 내는 상위권 팀이 되려면 수비도 그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한다. 수비가 안정이 되어야 빌드업도 잘되고 중원도 무너지지 않는다”며 수비 보강을 강조했다.



우승 후보는 전북, 천적은 제주, 울산

엔젤들은 올해도 우승후보로 전북을 꼽았다. 단톡방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30명이 전북현대의 우승을 예상했다. 다음은 수원, 제주, 서울 순이었다. 투자 면에서나 선수 면면에서나 아직은 전북이 우승 트로피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ACL 등에서 수원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크호스로 떠올랐고, 순위 외에 울산도 조심스럽게 우승후보로 점쳐지기도 했다. 김동규 엔젤은 “여러 가지로 봐서 이번에도 전북이 우승할 것 같지만, 울산의 선전도 기대해 본다.

울산은 주니오랑, 황일수 등 대구 선수들이 있는 만큼 전북 독주를 막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 외 대부분의 엔젤들이 전북 우승을 예상했다. 또, 대구가 가장 힘든 상대로는 제주, 강원, 울산을 들었다. 김동수 엔젤은 “제주는 부천SK 시절부터 대구가 어려운 경기를 했다. 강원 역시 라이벌로서 만만치 않은 팀이다.”라며 “이 팀들을 넘어서야 6위권이 사정권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아듀! 대구스타디움 유종의 미 거두길

한편 대구FC 창단 때부터 대구스타디움을 내 집처럼 드나든 김상도 엔젤은 올해가 남다르다고 했다. 15년을 함께 하면서 정들었던 대구스타디움을 올해를 끝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한국 축구환경에 가장 적합하다는 전용구장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지만 미우나 고우나 추억을 함께 한 대구스타디움과의 이별도 섭섭한 모양이다.

“여기에서 창단했고, 강등도 당했지만, 다시 일어나 승격하고 클래식 잔류에도 성공했다.”는 김상도 엔젤은 “창단 이후 줄곧 홈구장으로 써온 대구스타디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한다.”며 “가장 좋은 그림은 상위스플릿으로 마무리 하고 전용구장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 좋은 선수로 돌아오겠습니다”

엔젤의 아들 ‘신창무’아름다운 재회 약속

지난 1월28일 상주상무 입대

전화조사를 하면서 지난 1월 상주상무에 입단, 군복무를 하게 된 대구FC 신창무 선수의 어머니 박기자 엔젤에게도 연락해봤다. 박기자 엔젤은 “우선 창무가 대구FC에서 못 뛰게 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럴수록 대구FC를 더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했다. 신창무 선수는 현재 상주상무에서 적응 잘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FC 전망에 앞서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엔젤’입장에서 신창무선수의 사심이(?) 들어간 전망을 들어 봤다.

Q K리그에서 가장 먼저 골을 넣을 선수는?

A ‘신창무’

Q 상주상무 중에 차기 국가대표가 될 선수는?

A ‘신창무’

Q 대구를 제외한 우승팀은?

A ‘상주상무’

기승전 ‘창무’다.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창무 선수가 상주상무에서도 잘 뛰고 더 성장해서 제대 후 대구로 돌아오기를 바라 것은 엔젤 모두의 마음이다.

엔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신창무 선수는 “어머니가 ‘엔젤’이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엔젤님들께서 선수들에게 보내준 관심과 진심어린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며 “상주상무에 있는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엔젤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아름다운 재회를 약속했다.



▲ 신창무 선수가 입대하면서 박기자 엔젤과 함께 기념촬영을 남기고 있다

꽃의 도시 '쿤밍'에서 꿈같았던 스프링캠프!

엔젤방문단, 중국 쿤밍으로 원정응원

연습경기 관람, 선수 격려, '스플릿 A 게 섰거라'

연초 전지훈련을 떠난 선수단의 근황이 궁금했다. 지난 시즌 이상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젊은 선수들의 성장통은 없을까? 알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주말을 이용하여 현지 팀과 평가전을 치른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호경회장과 강병규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전지훈련 격려 방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은 먼저 중국 쿤밍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2년 연속 우리에게 기분 좋은 결과를 안겨준 단골 훈련지 쿤밍은 '꽃의 도시'라는 명성처럼 따뜻한 초봄의 날씨로 우리

엔젤응원단을 반겨줬다. 고산지대의 청정함이 도시 곳곳에서 묻어났다. 적당한 날씨와 해발 1,800m 지형을 이용하여 조성한 50여 면의 천연잔디구장은 전지훈련의 메카로 손색이 없었다.

방문단 도착 시간에 맞춰, 토요일 오후 3시 중국 허베이성팀과 연습경기 휘슬이 울렸다. 보름 남짓 손발을 맞춘 터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주니오와 에반드로가 떠난 자리에 보강된 카이온과 지안의 실력을 보고 싶었다. 김동우가 맡았던 좌측 수비와 중원을 조율했던 김선민의 대체 역할을 누가 할지도 의문이었다.



안상영 엔젤의 미리보는 2018 대구FC 보고서



골키퍼 장갑은 국대로 차출되어 터키로 날아간 조현우를 대신해서 신에 최영은 선수가 졌다. 성균관대 출신으로 수비리딩과 화이팅은 이미 조현우를 위협하고도 남았다.

수비진은 김우석(좌), 한희훈(중), 김진혁(우)을 선발로 투입하고 후반엔 김우석 자리에 홍정운을 이동시켜 임대 완료되어 친정팀으로 복귀한 김동우 자리를 점점했다.

중원의 게임메이커 역할은 홍정운, 황순민에게 맡기고 좌우윙어는 정우재, 홍승현을 기용하여 상대의 측면을 공략했다. 지난 시즌 후반, 상무 전역 후 팀에 합류한 황순민은 그동안 해결사 번호인 10번을 달았으나 이번에는 새롭게 영입된 지안에게 그 번호를 양보하고 '20번'을 받았다. 부담이 줄어서인지 황순민은 지난 시즌 보다 한결 몸이 가벼워 보였다.

전방 공격진은 부상에서 회복중인 세징야를 대신해서 신에 김대원을 투입했다. 기대했던 세징야의 플레이를 보지는 못했지만, 기대주 김대원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 축구 명문 보인고 출신으로 연령대별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이승우와 손발을 맞춘 실력이라 나이(97년생)를 초월한 세련된 몸놀림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 주었다.

2016년 FC안양전에서 데뷔골을 넣은 김대원은 지난 시즌 38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도 후반 주니오 대신 투입되어 경기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로 깊은 인상을 남겨 늘 눈여겨보고 있던 선수다. 세징야가 출전하더라도 주전 한자리는 차지할 것 같은 실력을 보여주었다. 등번호도 지난 시즌 달았던 37번 대신 14번을 부여받아 루키군에서 주전으로 성장한 것 같아 기분이 더 좋았다.

새 외인 카이온·지안 활약 기대, 한희훈 등 기존 선수 건재 확인

전방 투톱은 지안(10번)과 카이온(9번)이 차지했다. 두 선수는 팀 합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선수단과 손발을 맞출 시간도 없었고 아직은 전술을 다듬는 시기라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초 레오와 에반드로의 조합보다는 적극성과 볼키퍼 능력에서 후한 점수를 주고 싶었다.

허베이성탐을 상대로 정우재, 지안, 김대원이 차례로 골 맛을 보며 자신감을 끌어 올렸다. 후반에는 오광진, 김우석으로 좌우 윙어를 동시에 교체하며 우리 팀이 가진 윙어의 두 가지 옵션을 모두 가동해 보았다.

신예들 역시 테스트 무대에 올랐다. 이번에 입단한 고재현(대륜고)과 임재혁(신갈고)이 그 주인공. 이들은 U18대표로 나란히 선발돼 2019년 U-20월드컵을 노리고 있는데 이날 후반에 투입돼 실전감각을 익혔다. 이들의 올 시즌 데뷔 역시 지켜볼 만하다.

신예 키퍼 최영은의 화이팅과 믿고 보는 한희훈의 든직함, 김대원의 눈부신 성장, 신예 외국인선수 듀오 지안과 카이온의 기대감은 장거리 비행의 피곤함을 보상해 주고도 남았다.



엔젤방문단 ‘대구엔 원기소’, ‘타 구단엔 부러움의 대상’

엔젤의 이번 중국 전지훈련 방문은 쿤밍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다. ‘엔젤클럽’이 이제 중국에까지 알려진 것이다.

엔젤방문단은 연습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선수단 사기 고양에도 남다른 신경을 썼다. 경기 후 이호경 엔젤회장과 방문단은 자체적으로 금일봉을 마련해 선수단에 전달했고, 선수단 회식까지 더해지면서 선수단의 사기는 한층 높아졌다. 이같은 엔젤방문단의 소식과 행보가 전지훈련지에 퍼지면서 쿤밍에 꽤 아닌 ‘엔젤바람’이 불기도 했다.

실제로 같은 호텔에 투숙하며 전지훈련 중인 부산아이파크와 중국 프로 팀들에게 입소문을 통해 방문단 소식이 전해졌고, 우연히 마주친 최윤겸 감독의 처진 어깨(?)를 통해 엔젤방문단의 격려 방문 소식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음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엔젤방문단의 격려는 우리 선수에게는 ‘원기소’가 된 모양이다. 확실히,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마주친 우리선수단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쳐흘렀다. 수준 높은 훈련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구단의 뒷바라지 때문인지 선수들의 열기가 태릉선수촌을 방불케 했다. 여기에 엔젤의 격려가 더 해지니 선수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전지훈련을 통해 반가운 얼굴도 볼 수 있었다. 바로 ‘레오’였다. 지난 시즌 전반기만 해도 대구FC의 주 공격수로 팬들의 많은 박수를 받던 외국인 선수였다. 특히, ‘밀림의 왕자 레오’를 패러디해 ‘대구의 왕자(?)’로 불리며 어린 팬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높았던

친절한 ‘레오씨’였다. 마침 전훈지에 도착하니 외국인 선수 만행적인 세징야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우리 일행을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지난 시즌 하반기 대구를 떠나 부산아이파크로 이적했는데, 이번에 쿤밍으로 전지훈련을 왔다. 지난 시즌 마지막까지 함께 못하고 떠나보낸 게 못내 아쉬웠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가워 뜨겁게 인사를 나눴다. 옛 동료인 세징야가 우리 선수 못지않게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에서 훈훈한 ‘대구의 정(情)’을 느낄 수 있었다.

점심과 저녁식사는 구단에서 10년을 근속한 조리사가 동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국내파 선수들은 물론 외국인선수들의 기호에 맞춘 맞춤형 식단으로 이원화하여 영양 상태를 관리하고 있었다. 세끼를 호텔식에 의존하는 다른 구단과는 건강관리와 사기진작에 차별성을 두고 있었다. 덕분에 엔젤방문단도 중국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한식을 맛볼 수 있었다.

조광래대표의 구릿빛 얼굴에서 대구모 선수단을 이끌고 온 책임자의 노심초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걸 보고 올 시즌 상위 스플릿에 대한 기대감이 욕심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안드레 감독을 비롯한 50여명 선수들과 아쉬운 작별을 고 할 때는 녹록치 않는 여정에 쌓인 피로가 봄눈 녹듯 녹았다. 선수단의 수고와 엔젤의 열정이 뭉쳐질 올 시즌은 감히 외치고 싶다.

“스플릿 A- 게 쏘겨라!”



안상영 엔젤



“왜 엔젤인가?”

‘엔젤인문학’, 대구FC엔젤클럽을 보는 또 다른 시선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많은 것에 인문학을 붙입니다. 걷는데도 인문학, 나무에도 인문학, 부모에도 인문학, 병원에도 인문학이 붙을 정도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를 두고 인문학의 남용이라며 부작용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인문학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 크게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탁월한 사유의 시선’(21세기 북스 펴냄)이라는 책을 내놓은 최진석 서강대 교수는 철학과 인문학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높은 ‘시선’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높은 사유의 시선을 가질 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고민하다가도 때로는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지’라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좀 더 높은 사유의 시선’중 하나라고 합니다.

엔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진부한 것 같지만 ‘엔젤’에 ‘인문학’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엔젤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엔젤이 단순히 대구FC에 돈을 후원하고 축구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엔젤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엔젤을 왜 하느냐고…’

엔젤클럽, 하나의 ‘장르’로 정착돼야

앞서 말씀드린 최진석교수는 ‘장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교수에 따르면 우리는 전기밥솥을 잘 만들어 수출까지 하지만, ‘전기밥솥’이라는 것 자체를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전기밥솥이나 자동차라는 장르를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르를 만든 것은 선진국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장르를 따라 온 것입니다. 축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대구FC는 2002년 한일월드컵 성공의 열기를 바탕으로 창단했습니다. 세계 최고 클럽인 맨체스터유나이티드를 지향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아는 사실이지만, 유럽 축구문화는 하루 이틀에 자리 잡힌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축구는 하나의 삶이 되었고, 그들만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영국 남자의 일생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와 손잡고, 커서는 친구와 어깨동무를 하고, 아버지가 되어서는 아이와 함께 축구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철저한 준비 없이 선진축구문화의 ‘장르’를 마냥 쫓아간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왜 시민구단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인이라고 해야 할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자발적인 동력도 없었습니다. 월드컵의 열기로 호기롭게 시작한 시민구단은 그렇게 방향타를 잃어 왔습니다.

엔젤이야기는 ‘대구사람’, ‘대구사랑’의 서사시

이런 점에서 엔젤의 존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공을 엔젤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대구FC 터닝포인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엔젤의 본격적인 활동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 대구FC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시민구단의 존재 이유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엔젤 관중의 유입으로 객단가가 처음으로 리그 1위까지 올랐고, 관중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FC도 이와 함께 1부 승격은 물론, 이제 리그 상위권과 우승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초기 엔젤 성공의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엔젤이 갖는 인문학적 특성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사유의 시선’으로 우리 지역 사회를 지켜보고, 시민구단을 염려하고,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왜 엔젤인가?’를 진지하게 자문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이 엔젤의 가치입니다. 바로 ‘축구사랑(시민구단)’을 통하여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적 색깔은 아예 배제하고, 시민정신과 시민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기질’입니다. ‘대구 FC엔젤클럽의 이야기’는 바로 ‘대구사람의 이야기, 대구기질’에 대한 서사입니다. 모 일간지 체육부장은 칼럼에서 엔젤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뽕쫂해 뒤로 빠져 있다가도 나서야 할 때, 힘을 보태야 할 땐 팔 걷고 나서는 대구의 기질을 잘 드러내는 단면이다”

시(詩)로 표현한다면 대구사람의 기질이 ‘엔젤’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발현된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통해 꿈을 이루어가듯, 엔젤회원들은 ‘시민구단’을 통해 ‘대구사람, 대구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결국 엔젤의 성공이 곧 ‘대구의 성공’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엔젤은 대구다’라는 슬로건이 바로 그 상징이요, ‘시티 오브 엔젤’이 엔젤의 꿈일 것입니다. 이는 분명 유럽의 축구 장르와는 다른 우리들만의 ‘장르’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K리그 개막! ‘Angel in Stadium’을 기대하며

물론 엔젤이 하나의 장르로 정착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현상이 있어야 하며 이 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회원 1004명 달성이 그 증표였습니다. 번듯한 ‘천사데이’행사를 개최하고, 이 곳 저 곳에서 엔젤클럽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 그것이 엔젤현상입니다. 엔젤현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현장, ‘경기장’을 통해 결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경기장에서 대구기질이 넘쳐나야 하고, 대구이야기가 가득해야합니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 경기장 채운다면 한 번 채운다.”실제로 스포츠 분야에서 대구기질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을 연고로 한 모 프로농구팀이 32연패를 했지만 대구시민들은 오히려 ‘팀이 이길 때까지 응원하겠다’며 경기장을 꾸준히 찾으며, 대구기질을 보여주었지요.

만약, 2주에 한 번꼴로 열리는 대구FC 홈경기가 엔젤을 비롯한 시민들로 가득 찬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구를 상징하는 깃발이 휘날리며, 푸른 옷을 입은 관중들은 일순간 하나가 됩니다. 관중과 하나 된 푸른



전사들은 그라운드에서 대구를 대표하여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할 테지요. 이것이 가슴 벅찬 서사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구의 자랑거리요 대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뒤 따릅니다. 대구FC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입장권 가격, 광고 단가도 현실화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득 찬 경기장에서 지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은, 돈으로 파질 수 없는 ‘대구의 힘’이며 그곳에서 공유하는 감동은 지역사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TV속 유럽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축구 감동을 맞볼 수 있습니다. 엔젤이 이런 분위기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갈 때, ‘엔젤’이라는 ‘현상’은 비로소 ‘장르’로 정착될 것입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내년이면 대구도 전용구장을 갖습니다. 국내 프로축구 여건에 최적화된 경기장입니다. 1만2천석 규모에 4면 모두 지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위치 한 만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관람석과 그라운드의 최단 거리는 7미터. 터질듯 한 선수의 근육도 볼 수 있고,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선수의 발끝을 떠난 공은 코앞에서 우릴 향해 날아옵니다. 정말 한번 해볼 만합니다.

다만, 올해가 고비입니다. 6만7천석의 종합경기장 대구스타디움을 한 해 더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올해 대구스타디움의 분위기가 향후 전용구장 만원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이제 3월! 2018년 K리그 개막입니다. ‘엔젤’이라는 장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스타디움으로 향해야 합니다. ‘Angel in Stadium’을 기대합니다.



김용하
대구FC 前 사무국장



첫 번째 ‘엔젤의 사나이’는 누구?

올해부터 MOA(Man of Angel) 시상제 실시
매 홈경기마다 엔젤단독방 투표로 선정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이 엔젤클럽의 정신을 기리고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MOA(Man of Angel)’시상제를 실시한다.

엔젤클럽은 오는 3월10일(토) 오후 2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8년 K리그1(클래식) 홈 개막전부터 시즌 종료까지 매 홈경기마다 엔젤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선수를 ‘MOA(Man of Angel)’로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엔젤정신(△페어플레이 △헌신적 플레이 △팀을 위한 플레이 △대구 및 팬에 대한 애정)에 가장 부합하는 선수로 하며, 선정방법은 당일 홈경기 출전 선수를 대상으로 ‘엔젤클럽 단독방’에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시상은 다음 홈 경기 식전행사로 한다.



페어플레이, 헌신, 팀플레이 등 엔젤정신이 선정 기준

이번 ‘MOA(Man of Angel)’시상제는 지난해 화제가 됐던 엔젤클럽의 ‘9.24 전북 사태’항의 모금운동에서 착안했다. 엔젤클럽은 전북전에서 대구FC선수들이 성공한 2골이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VAR)’에 의해 취소되자 이에 해 강력히 항의했고, 다음 홈경기에서 항의표시로 항의 문구를 경기장에 내걸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를 두고 관리의 책임을 물어 대구FC 구단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엔젤클럽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과징금 충당을 위해 동전 등 모두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다. 하지만,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내기로 함에 따라 이 모금액을 선수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번 시상제가 만들어졌다.

엔젤클럽은 이와함께 대구FC의 미래가 될 ‘리저브(R)리그’(2군) 경기에서 뛰는 선수에 대해서도 ‘MOA(Man of Angel)’시상제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전으로 경기에 출전하거나 올 시즌 활약이 기대되는 홍승현, 홍정운, 김대원, 정승원, 김진혁, 김우석 등이 R리그에서 좋은 플레이를 선보이며 성장했다. R리그 경기는 당일 참석하여 응원한 엔젤이 선정할 예정이다.

이호경 회장은 “K리그1(클래식)에서 뛰는 선수 뿐만아니라 2군 경기에서 땀을 흘리는 선수도 우리 선수”라며 “대구FC의 미래,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들에게도 엔젤의 손길이 미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엔젤클럽은 올 한 해 동안 ‘MOA’시상제를 실시 후, 반응이 좋으면 향후에는 경기별로 ‘MOA’스폰서를 별도로 구해서 엔젤클럽의 대표적인 선수 시상제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올 시즌 3월10일(토) 홈에서 열리는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서 누가 첫 번째 ‘엔젤의 사나이’가 될지 기대된다.



Angel Club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History of Angel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엔젤들의 선물

2017년 12월 12일

김완준 엔젤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을 방문하여 1일 산타가 되어 방한용 장갑을 선물했다. 김동규 엔젤은 머플러를 선물했다.



조현우 북한전 선발 출전

2017년 12월 12일

대구FC골키퍼 조현우가 12월12일 오후 4시 30분 열리는 EAFF E-1 풋볼 챔피언십 북한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자, 많은 엔젤들이 조현우 선수를 뜨겁게 응원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조현우 선수는 무실점으로 선방해 1대0 승리에 기여했다.



2018 엔젤클럽 운영방안 TF회의

2017년 12월 13일

대구FC엔젤클럽의 2018년 운영방안을 위한 TF팀 회의를 시작을 했다. TF팀은 이후 1개월 여 동안 '2018년도 엔젤클럽 운영 및 활동방향'에 대하여 매주 수요일 아침 7시30분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신창무 선수 군입대

2017년 12월 27일

박기자 엔젤의 아들이자 대구FC 공격수인 신창무 선수가 상주상무에 최종합격했다. U-18(현풍고) 출신으로 2014시즌 대구FC에 입단하여 4시즌 간 72경기 2득점 3도움을 기록한 신창무 선수가 상주상무프로축구단에 최종 합격하여 군 복무를 하게 됐다. 신창무 선수는 2018년 1월 15일(월) 오후 2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상주상무 선수로 2018년 시즌을 맞게 된다.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군밍 동계전지훈련지 방문 2018년 1월 20일

이호경 회장, 강병규 본부장, 안상영 엔젤, 심인철 엔젤, 정영준 엔젤, 엄태진 엔젤, 김재홍 엔젤 등은 중국 군밍 대구FC 동계전지훈련지를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동남아에서도 계속되는 엔젤릴레이 2018년 1월 27일

엔젤클럽 회원들이 지난 1월27일 태국 방콕 샹그릴라 선상 카페에서도 엔젤릴레이를 펼쳤다. 이날 추천받은 조정연 엔젤은 2월7일 수요만남의 날에 참석, 엔젤의 날개를 달았다.



대구FC엔젤클럽 2018년 1차
이사회 및 임원 출정식개회 2018년 1월 30일

30일 오후 8시 인터볼로호텔에서 2018년 1차 이사회 및 임원출정식이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2017년 결산과 2018년 사업계획, 그리고 회칙개정과 조직개편(안)을 심의했으며, 홈 개막전인 3월10일(토)오후 2시 대구스타디움 엔젤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엔시오 본부 운영회의 2018년 2월 6일

엔시오본부 김완준 상임부회장과 배문구, 정영준, 최오원 상임이사 등이 엔시오 본부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이호경 회장 대구FC선수 격려 2018년 2월 12일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회장이 2월12일 대구국제공항에서 마지막 다금질을 위해 제주로 전지훈련을 떠나는 대구FC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회장은 이날 조광래 대표와 함께 티타임을 가지는 한편, 감독 안드레, 주장 한희훈, 조현우 선수 등을 일일이 격려하며 무사히 마무리 훈련을 마치고 오기를 기원했다.



재래시장 장보기행사 참석 2018년 2월 14일

설을 앞두고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에 이재표 엔젤, 박진향 엔젤, 진덕수 다이아몬드 엔젤, 우외태 엔젤이 참석했다. 엔젤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합시다'라는 어깨띠를 메고 재래시장 장보기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김형동 엔젤 제주전지훈련지 방문 2018년 2월 18일

김형동엔젤(대구시체육진흥과장)은 대구FC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제주전지훈련장을 방문, 마무리 훈련 중인 선수들을 응원했다. 김형동엔젤은 대구FC상위스플릿 진출을 지원하며 화이팅을 외쳤다.



엔젤본부 2018년 첫 간담회 2018년 2월 20일

엔젤본부(상임부회장 엄태진)가 구단 및 사무국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첫 간담회를 갖고, 시즌 개막준비 및 향후 엔젤본부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다이아몬드 엔젤

※ 본 명단은 가입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삼보모터스(주) 이재하



대영코어텍(주) 정태호



(주)태왕이앤씨 노기원



(주)서한 조종수



삼익THK(주) 진영환



한국OSG(주) 정태일



(주)세신정밀 이익재



대흥코스텍(주) 진덕수



SL(주) 이충곤

엔젤클럽 자문위원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오섭	(주)청구푸드시스템 대표이사	박윤경	KK주식회사 회장
김성열	(주)아나 대표이사	송준기	대한적십자사대구지사회장
김영재	안경회계법인 대표	엄달현	(주)대창엠코 대표이사
김충환	김창준한미미래재단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대표이사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총장	장익현	딤프이사장 / 前 대구변호사회회장
도재영	(주)웅진기업 대표이사	주대중	함창장학재단이사장
박명수	명진금융 대표	천자우	(주)에슬린 대표이사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하운수	한국공조 대표
박순복	대가대 미래포럼 원장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 부총장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	하홍만	명성골프 대표이사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민수	세영회계법인	권재행	한국다문화재단	김상수	청운신탁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권정미	S라인 포톤 테라피	김상완	(주)한백종합기술공사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권준호	권준호 법률사무소	김상우	세무법인 대한
강병호	(주)신경일염직	권혁	대구경북인재개발원 참금	김상원	부호채어원(주)
강보철	일진수지	권혁준	요셉 성형외과	김상호	(주)내일건설
강삼동	(주)에이지	권호겸	(주)풍림	김상훈	(주)모턴테크
강신일	(주)대영에코건설	금윤식(법일)	(주)폴드브릿지	김석	삼탁아스콘(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
강영철	에스에스엘엔(주)	김갑태	(주)아름	김석호	한도식품
강은주	한국일보	김강수	푸르덴셜	김선일	(주)상일종합관리
강은희	前여성복지부장관	김경태	리더스금융판매 (주)센트럴	김성곤	호텔 인터볼고
강의원	(주)일신건설엔지니어링	김고용	(주)명종스틸	김성렬	(주)대성건설
강일규	대서산업(주)	김관식	더나은요양병원	김성률	
강일만	(주)세신엔지니어링	김광덕	대구시 자격 연맹회장	김성열	(주)아나
강정숙	(주)동재건설	김광배	(주)디에스종합건설	김성준	G&B오토모빌(주)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본부	김광수	(주)한맥창호	김성호	(주)성산종합건설
강준기	(주)포머스	김국경	(주)세영디앤씨	김성호	(주)오상인터네셔널/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강철원	(주)에일커뮤니케이션즈	김규일	(주)세원이엔지	김세종	(주)천궁산업개발
강태중	(주)한도엔지니어링	김규정	삼성생명	김세종	비즈니스컨설턴트
강해구	경민테크	김규혁	(주)포위즈시스템	김수현	
고경집	부부엔젤	김기섭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	김숙현	세원 공인중개사
고민환	주식회사 상산건설	김기완	경북염료	김순조	삼성생명
고백희	디자인 '갭'	김기철		김승근	대구일보
고삼규	보광병원	김길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공영우	동성건설	김길생	(주)동화주택	김승필	(주)삼성프린팅솔루션
공윤옥	신진회계법인	김대경		김시보	백두산업
공인옥	(주)백향에스엔피	김대엽	(주)대영레테크	김시승	(주)다윈
곽기철	지우C&D	김덕신	(주)우진비철	김예경	
곽덕섭	(주)태명건설	김덕영	성서연합외과의원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곽동호	곽과파병원	김도현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김영만	홀인원 로스트볼
곽신혁	Eco Farm(주)	김동구	금복주	김영숙	대구보건대학교 대외협력실장
곽재환	(주)중산도시개발	김동국	DK 글로벌 코리아	김영식	영진전공
곽재훈	운경재단	김동규	(주)범서	김영엽	지디종합건설(주)
곽준성	삼성전자	김동섭	대구가톨릭 대학교	김영주	주식회사경북합판
곽진섭	(주)금오조경	김동용	(주)씨엔	김영준	변호사
구건우	PR네트웍스	김동우	World First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구명일	(주)크린포시스템	김동읍	(주)조광종합포장	김영택	일월건설
구미숙		김동조	플레이위즈	김영화	(주)영화
구분도	렉서스 대구	김말분	부부엔젤	김영희	구병원
권경훈	강북연합정형외과	김명수	대남건설	김완준	(주)제이아이디
권광	행복을 심는 치과	김명용	(주)명성	김용규	창녕 참우 축산
권대열	(주)부원	김명웅	DGB생명 AM사업부	김용범	(주)에스알
권병균	행복을 심는 치과	김명진	한신타스가스	김용봉	(주)와이즈리
권석원	동진건설(주)	김무길	삼성전자 무비스 B2B	김용식	(주)정맥산업
권성숙	결혼정보회사 바로연대구지사	김미숙	주원	김대운(용운)	(주)태하시스템창호
권승진	정산인터볼고CC	김민석	(주)서한	김용찬	(주)보광건설
권시원	(주)중산도시개발	김민선	의사회서포터즈	김유일	김샘 대표
권엽	대구테크노파크	김민지	스피지김교육	김유석	경북대학교
권연숙		김민태	제이와이 건설	김윤곤	부성주식회사
권영갑	(주)EMS	김범대	미플러스피부과	김윤찬	CREDIT AGRICOLE Investment Bank
권영식		김병렬	오성고속관광(주)	김인수	대호화학산업
권오상	변호사	김병오	필즈학원	김인식	삼성생명
권오섭	(주)청구푸드시스템	김병찬	건축사무소한동	김일권	(주)하우스탑디앤씨
권오춘	아름다운건설	김봉찬	(주)리치하우스	김재엽	(주)하우스탑디앤씨
권오훈		김상걸	(주)미래세한 감정평가 법인 대구지사	김재필	(주)주안
권일경	(주)위드	김상덕	부경TS	김재필	산록 도시락
권장대	(주)세화정공	김상도	(주)셀피코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권재원	(주)아우노	김상섭	(주)티브로드 대구방송	김재홍	대구광역시 하키협회 / 대호약품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정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노영균	안강삼성의원	박우용	(주)대산라이팅
김정철	경북대학모발이식센터	노정섭	대어초밥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김정희	김정희건강피부관리실	노주호	(주)대성아이디	박운락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노현영	코리아와이드경북	박원득	한용금속
김종신	세광종합상사	노혜영	부부엔젤	박윤경	KK주식회사
김종철	주식회사 신흥버스	농협두류은행		박윤하	(주)우경정보기술
김종호	(주)케이원	농협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대구지역총국	박은이	(주)슈만
김종호	(주)우인바스텍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대구총국	박인호	(주)삼영이엔터
김종환	(주)메디피아이앤씨	도건우	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박재관	제일푸드
김종훈	영남대학교의료원	도윤호	대영 코아텍 (주)	박재범	AIG어드바이저(주)대구지역본부
김중희	웨딩하모니	도재영	(주)웅진기업	박재영	
김주성	광개토병원	두준옥		박재현	(주)신우씨엠디
김주형	웨딩클	류광열	(주)원재산업	박점희	플라워아트 / 한국화원협회
김주환	(주)경안플랜트,경안솔라	류시장		박정기	진성, 일진종합건설
김준현	세무법인대명	류영애	세무사	박정민	(주)간여행사
김준현	가람건축사사무소	류형우	대구예총	박정배	(주)우방
김준홍		류호충	신라산부인과	박정희	
김지건		류훈	중앙세라믹스	박종철	(주)우일건설
김지미	(주)시마	문길남	신세계	박종호	(주)삼정 종합페차장
김진수	엔에이골프(주)	문문문	(주)디에스팩	박종홍	금호개발
김진엽	송산엘앤씨	문영일	(주)태웅	박종화	(주)세보종합건설 (달서구 축구협회 회장)
김진일	무창산업	문제혁	(주)동아티오엘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김창식	(주)경북합판	문준기	대경맥주(주)	박준	게임물산(주)
김창욱		문현훈	덕영치과 기공소	박준규	(주)이노베이션
김창호		민재철	(주)뛰는아이들	박준섭	박준섭 법률사무소
김창희		민춘홍	한국PIPE	박준수	
김춘희		박경국	(주)성우 아이디	박종희	(주)TJS 스틸
김충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박경우	현창건설	박지훈	농협중앙회 - 고령축산물공판장
김지호	주식회사 도영전설	박경진	해나 C&D	박진숙	동일가구
김태길	피앤에이	박경환	박경환 변호사 사무실	박진우	(주)효성종합건설
김태순	팔공온천 호텔	박관식	명진BS치과	박진향	어번라이팅
김태형	피앤에이	박금화	서라벌대학	박찬력	경북봉투사
김태훈	태경건설	박기양	세무사	박찬학	대구시 체육진흥과
김판권	(주)명산	박기자	(주)무영	박창오(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김한수	마이스산업연구원	박대진	(주)이비팜	박철형	한빛에너지(주)
김해용	인덕염공(주)	박동술	성동제통의원	박춘영	인터볼고CC
김현만	서원종합건설(주)	박미경	삼성요양센터/자인삼성요양센터	박태민	뮤직라운지 팬트하우스
김현수	대호기업	박민천	(주)다온PLUS	박태정	주원조경
김현숙	(재)한국의학연구소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박한상	감을상사그룹(주)
김형동	대구시 체육진흥과	박병규		박한석	팔공 컨트리 클럽
김호준	준 에니팜	박병욱	달인의 썸닭	박해대	(주)미래테크
김홍근	건축사사무소 ADF	박석현	(주)TBC	박해동	강북요양병원
김홍석	디지털신세기	박성욱	(주)삼송BNC	박해연	유진제지
김홍식(김췌)	대경대학교	박성준		박현경	
김홍철		박성호	금강운수(주)	박현근	
김휘중	주식회사 굿유니폼	박성진	꿈그린	박현구	장아푸드
김홍수	주식회사 이명E&C건설	박성훈	(주)퍼닉스건설	박혜영	(전)교사
김희곤	연세재활요양병원	박성희	(주)AK메디 / (주)한울홈스	박혜은	
김희찬	PEGDYCCO	박세정	링크샵 커뮤니케이션	박홍식	NS디자인
나광무	엘리바덴 온천	박소민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협의회	박희경	도미니크
나상수	의사회축구단	박소이	미래테크	박희진	은성복어
남경원	경원지과 상사	박순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반용식	반지과
남병환		박승국	이시아요양병원	반정옥	미르건축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박승현		방우정	리더스
남재현	(주)리버원	박신영	하나투어	배극중	(주)서엔비건설
노기원	(주)태양이앤씨	박신제	PSJ창업네트웍스	배명수	근영토건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대표	박영석	계명대학교 교수	배문구	승창침장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배석우	에스와이하우징 대구경북총판 / 세종정공	손동태	(주)미래테크	양종호	수성구축구협회
배성혁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덱프) / 예술기획 성우	손동현	동현케이블	엄경록	(주)대철
배영호	영신에프앤씨	손민호	동서가스	엄관식	엄관식 수학교습소
배우균	카이도 코리아	손병갑	로타리3700지구/(주)성도	엄달현	(주)대창엠코
배인규	(주)한남라이팅	손상명	(주)신아	엄복태	스타커뮤니케이션즈(주)
배인호	성호건설(주)/ 경북건설협회	손상주	장사	엄용선	(주)동네방네소식
배장수	진명전력 주식회사	손상철	명가건설	엄재국	(주)포맨
배종찬	기성광고	손성태	성진포머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배창희	인덕텍스타일	손수원	(주)수경	여승훈	상록수재단
배태관	백산자카드(주)	손영훈	성도팩	여태용	세계 주류 대표
배효삼	(주)달구벌석권	손원배	태명약업사 태명헬스케어	여영숙	삼성생명 명예전무
백건호	(주)경동BK	손인락	영남일보	예춘호	요셉성형외과
백덕열	지오 종합건설	손인택	(주)서한	오기우	(주)엘리건스
백무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손주옥	(주)한국개발무설계	오무선	OMS뷰티살롱
백복현		손중배	(주)유레카	오순덕	
백순정	네추럴플러스	손지영	삼성디지털프라자 수성점	오재완	(주)한국 키네티코 엔지니어링 / 에스엠인더스트리
백영기	아름다운 사람들	손형문	대진렌탈	오택근	더좋은병원(수성구)
백용환	(주)미래테크	송남희	본죽 시지점	우경호	제일약품(주)
백운규	우림종합엔지니어링 /은마건설	송대선		우상현	
백운일	(주)백광테크	송미향	(주)현대미주여행사	우승민	스포츠와
백을수	(주)국제ITS	송석훈	우리연합의원	우영제	(주)한영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송원배	(주)대영레데코	우외태	유화 비엔피
백현석	더블유병원	송정우		우종곤	영인 E&C
변창훈	대구한의학대학교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유다건	경대일어일문학과
서기수	(주)즐거운 세상 / 바르미	송진오	(주)아이에스메이드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송재은		유병완	
서상인		송해신		유호정	
서상협		신경우	하나은행	윤귀자	(주)부창솔라
서상환	현대개발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윤남수	(주)아식전기
서숙영		신기영	ARSTROMA	윤민환	
서순옥		신선영	대구 미래대학	윤소원	한국일보
서영득	색동가방	신성필	(주)세양	윤영수	(주)우정건축자재
서용교		신영필	주노캐피탈	윤용득	교통시스템 연구소
서정우	신성기업 / 포그니코리아	신용범	(주)한미산업	윤종현	수성문화원
서정욱	광고회사 MSC	신재열	(주)안다미로	윤창권	그린에어시스템
서정원	(주)대신	신재천	대구영화인협회	윤창섭	GOLDEN-B
서정원	효성그라비아 렌탈이벤트	신정원	(주)한국센서	윤태경	바로본병원
서제영		신철균	다모 건축사	윤형돈	미래에셋대우
서준균	대경전력	신철수	에나 인더스트리	은영기	한솔개발
서준덕	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신현창	(주)옥일디앤씨 / 윈더플러스랜드	이갑열	(주)상일종합관리-SL산업개발
서중호	(주)아진산업	신호철	플러스메드 / 삼성메디슨	이강태	한국교통정보
서찬곤	(주)E하얀바다	신화섭	여행박사	이강하	(주)아스코
서찬교	대원전기	신희득	(주)용성건설중기	이경곤	주식회사 유성기초
서철현	대구대학교	심건희	(주)천지재건	이경호	(주)한길산업
서태현	(주)산동개발	심상형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서형석	투썸플레이스 / 서린디앤씨	심인철	동명테크웍스	이경훈	인터볼고 아티스클럽
석경환		안상영	광진종합건설(주)	이광해	아사다라
성경환	성경건설	안성용	(주)앤디스코나	이기만	대경영상의학과
성달표	현대통상	안용모	경일대 석좌교수	이기식	(주)현대스텐
성무용	前대구은행 부행장	안조셀	미래테크	이기화	행복을 심는 치과
성병철	(주)디자인JSP	안종수	태권도협회회장/태원엔씨건설	이대영	
성부영	청일건설(주)/삼익건설(주)	안준태	예진건설	이대우	기운산업
성석훈	(주)대덕건설/(주)명덕건설	안태현	태원전력	이대형	세계실업(주)
성수환	신영남산업 주식회사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이덕록	(주)서보
성점화	(주)뉴프라이	양대석	(주)약령시 사람들	이덕현	디스이즈모든
성정용	(주)신도시건설	양승섭	(주)대경	이도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정호	(주)미래테크	양은지		이동건	SK건설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재익	가람테크	임영태	농협 사월지점
이동관	매일신문	이재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임용규	
이동명	(주)자비스	이재표	(주)제이에프	임익기	브라이트
이동섭	울스타당구장	이재하	삼보모터스	임재현	(주)현대목재산업
이동성	(주)홍맥 건축디자인	이재형	삼익HPS	임재형	(주)원규
이동열	참좋은요양병원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임창광	KOG
이동원	변호사 이동원 법률사무소	이재훈	푸드윈	임홍규	(주)대평산업개발
이동원	현대자동차 앞산지점	이정미	아사무역	장극윤	영진수예침장
이동현	(주)우행주 건축	이정주		장기석	주호산업, 아인
이명현	동광명품도어	이정훈	(주)TPC	장기철	JCI
이무철	금융기계(주)	이종경	(주)도원	장기철	부강철강
이문열	(주)대산경영	이종복	삼해인터스트리	장도미	(주)Queens
이민화	(주)백강	이종운	덕재건설	장동렬	경산건설
이배	화가	이종원	KOG	장민우	주식회사 대영금속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이종현	(주)퓨리치	장병배	범어 대성당 주임신부
이복환	군민신문	이주현	앨플러스	장병환	삼보이데아
이복희	광덕전력	이주형	(주)켈컴	장선윤	고문당인쇄(주)
이상권	운경재단	이준근	SSLM주식회사	장성태	대한개발
이상락	한국관광상품센터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장세주	(주)한국포장산업
이상열	(주)씨유컴퍼니	이중원	경산상공회의소/ 원호금융(주)	장세철	고려건설
이상탁	반도광학(반도옵티컬)	이중호	(주)세신정밀	장수미	
이상혁	(주)비토코리아 / 슬립리스인시애틀	이지언	운경재단	장안중	(주)석문전기
이상홍	팔공인터내셔널(주)	이지완	명진BS치과	장영자	HILIVING
이상효		이진백	G&B오토모빌(주)	장원규	(주)화성
이석우	(주)삼진씨앤씨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장원용	대구MBC
이선찬	진성테크	이진호		장운제	장운제연합치과의원
이성구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이성동	금보건설	이창근	극동1급정비공장	장제철	AIG어드바이저
이성배	(주)에가	이창두	(주)알파메틱	장재태	영대ROTC동창회장
이성태	주식회사 풋살스포츠	이창영	경산성당	장재화	(주)창녕참우축산
이성하	BL 성형외과	이창환	토담건축사사무소	장정숙	(주)자원환경
이소윤		이창희	이코노식자재마트	장정호	장정호 법률사무소
이승민	리얼홀딩스	이충경	JUWEL J	장종욱	아곱의집
이승진	나우산업개발	이충곤	SL(주)	장팔술	
이승현	(주)동서개발	이지우	대구음악협회	장혜정	백산부동산
이시연	DESIGN GROUP KHAN	이태훈	(주)에드엔피알스미스	장홍석	대원테크
이암우	옛바사랑협동조합	이필후	대구 그린에너지센터	전미조	효성복지재단
이영순		이한일	드림병원	전성렬	동양OA
이영우	(주)대광엔지니어링	이현	코디박	전수근	삼명종합상사
이영준	선경건축자재센터	이현수	MG새마을금고	전영호	팔공신협
이영호		이현득	변호사이현득법률사무실	전용수	(주)산동아관광
이용재	석문전기	이형선	지성건설(주)	전익상	
이원영	(주)평산개발	이형원	일성집장	전재관	전재관한의원
이원우	한은 이앤씨	이호경	월드산업 주식회사	전중달	제이디 건설(주)
이원찬	(주)이진산업	이호경	(주)대영에코건설	전태제	대구CC
이윤하	그린사이언스	이화선	(주)화선	전태영	화인건축사
이윤환	미래테크	이희도		전형노	메가미래라이프
이윤희	한국알카리에이수(주)	이희준	SGI 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정경용	□ 초심
이은수		이희채	이희채건축사사무소	정군섭	(주)대영산업
이은준	(주)SJ홀딩스	인재현		정기욱	
이용찬	(주)건화	임건주	다은비엔에이	정기은	분홍빛병원(행정원장)
이익재	(주)세신정밀	임광호	열린치과	정기출	삼성생명
이인경	(주)서울원복	임명섭	(주)영남바른상조	정모경	정원자카텍
이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 화인쿠치네	임병욱		정민교	대영모던텍(주)
이재남	DGB생명	임상택	위드고	정병창	세종건설
이재덕	금성가구	임상훈	엔티엘의료재단	정병환	대구시보도기획팀
이재덕	한국인의 밥상	임영미	DGB생명	정성인	경인D&C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소영	창성산업	진영환	삼익THK	최태원	
정승진	한국OSG	진혜윤	(주)보강디엠에스 / 벡스스투어(주)	최한교	디스이즈모든
정연일	한 패밀리 병원	차순봉	선우종합건설	최해동	
정영만	J아르곤	차영규	민영산업/ 문화원	최현희	(주)아르테코무이
정영목	(주)대한피앤씨건설	차인석	대성엔팩스	최효욱	(주)월성주택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차훈일	(주)샘초롱 농업회사법인	추재엽	(주)대영에코건설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천상현	홍전사(주)	추화엽	대성크린텍
정용화	빠리바닷가재	천용구	(주)가우/ 대구실내 디자이너 협회장	코바체프	대구시향
정우필	(주)서한	천종열	(주)윤성건설	하달용	(주)삼건환경건설
정원호	(주)삼화봉재	천종태		하석배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정일균	(주)다온시스템	천항구	연세클리닉	하승우	하승우내과
정장화	수성안전기	최경목	수성정비센터	하윤수	한국공조
정재간	대구대학교	최경수	삼익테크	하정식	서보정밀
정재석	탐메디케어	최고현	대구MBC	하종범	더 포스코샵
정재호	초록들코리아(주)	최규락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주)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정규	(주)지엠이앤씨	최대식	(주)동경주산업개발	하태욱	대구과학대학교
정태경	(주)대성건설	최동욱	(주)한라개발	하호만	농협
정태일	한국OSG	최만수	인터볼고CC	한금재	(주)한국테크
정태호	대영 코어텍 (주)/ 대영(주)대영모던텍(주)폼그리기(주)	최명수	(주)오성종합주류	한금재	케이프린텍
정택수	매일에드	최명환	정진사종합건축사사무소(주)	한도준	삼익키라우
정하용	동진특수인쇄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한동엽	방천가족족발
정한재	청운신협	최미애	(주)뉴니케	한무경	효림
정현수	(주)보극이앤씨	최상대	화진기공사	한상섭	대구 경상병원
정호균	메디피아	최상무	오페라하우스	한영필	(주)에스피코리아
정홍표	(주)홍성건설	최석훈	남산병원	한화용	금도에너지(주)
조국진	(주)로림	최신주	(주)연호개발 / 제이엠지개발	함동호	에듀대표
조규현		최성문	크레텍 책임	허성규	우진시스템
조두석	(주)에드메이저	최성욱	(주)책임전력공사	허용훈	(주)건화트렌더로그
조득환	(주)금강알텍	최성주	(주)동진금속	허원희	HK GOLF
조만현	(주)동우씨엔건설	최세욱	(주)우경정보기술	허정수	명진약품
조민규	프로골퍼	최승규	이에스티안전	허진걸	(주)영산전기
조민성	동영열직(주)	최양원	(주)이루게미칼	허필수	동성중공업
조병래	디자인해밀	최영철	(주)삼코	허홍만	명성골프
조봉준	동일	최영호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조산웅	유마스텐 메디컬 그룹	최영환	동명테크원(주)	현정규	(주)영진기공
조성섭	(주)도원이앤씨	최영훈	KT텔레캅	홍덕률	대구대학교
조성수	에이엘테크	최예영	태양인 이제마 한의원 원장	홍민수	WOORAM 우람
조영래	(주)원행D&C	최오원	(주)이랜트카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 추진본부
조영만	제이에이지	최용석	빠른감자탕	홍석환	소방감리원 기술단
조용호	(주)이팩시스템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홍영돈	에스와이페널(주)
조장형	(주)나래퍼음	최우영		홍장현	(주)뉴영남인테리어
조정연	(주)대청디앤씨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홍진수	세인트나인
조정욱	두손건축	최은석		홍철자	부부엔젤
조종수	(주)서한 대표/ 대구건설협회	최익진	(주)풍국면	홍효정	
조준근	대구시 학원 총연합회	최인철		황성	(주)진일공업
조준호	(주)태일	최인호	(주)명성티엠에스	황세영	매천축산/조원한우
조지혜	제이커뮤니케이션	최일경	명문엔달	황영	(주)푸르맘
조철래	(주)성지여행	최재호	주식회사 골든크라운	황우곤	파인스트리트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최재홍		황인혁	인성데이터
조예필		최종태	(주)솔트커뮤니케이션즈	황정철	제주스프링
주대중	함창교육재단(영화식당)	최종혜	동양종합건설(주)	황정현	
주운수	토정건설(주) 토정개발(주)	최주희	변호사	황종길	성신건설
지성한	오성시스템(주)	최준혁		황현호	인터테크주식회사
지용호	(주)대한공조	최진오	한국디자인모형		
진경훈	(주)코엔코	최장배	신항도시개발(주)		
진덕수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최철환	광풍 퍼니처		



Daegu FC Report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난 것이다.
-줄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대구FC, 2018시즌 주장으로 **한희훈** 임명

지능적 수비, 허슬 플레이, 특유의 파이팅으로 많은 사랑
한희훈 "스플릿 A 목표 이룰 수 있도록 자신감 가지고 출전수범"



DF6.
한희훈

등번호	6번
생년월일	1990년 8월 10일
포지션	DF
신장 / 체중	183cm / 78kg

경력
2013~2014 : 에히메FC(일본) / 34경기2득점
2015 : 도치기SC(일본) / 31경기 1득점
2016 : 부천FC / 40경기 3득점

수상경력
2011 : 전국대학축구대회 우수 선수상



2018 대구FC 주장

한희훈

HAN HEEHOON

지난해 헌신적인 플레이로 대구의 클래식 잔류를 이끈 수비수
한희훈이 주장완장을 차고 2018시즌 대구FC를 이끈다.

한희훈은 안정감 있고 지능적인 수비 능력, 태클, 공중볼 장악능력이 돋보이는 수비수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빠진 박태홍을 대신해 주장 완장을 건네받았으며, 시즌 내내 출전수범하는 태도와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 특유의 파이팅으로 동료 선수들과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클래식 잔류가 걸린 스플릿 라운드에서는 손등골절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 전 경기를 모두 소화하는 투혼을 발휘하기도 했다. 한희훈은 K리그 통산 76경기 4득점, 대구FC에서 36경기 1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주장으로 임명된 한희훈은 “지난 시즌 잠시 주장을 맡았을 때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안드레 감독님과 조광래 대표이사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동료 선수들이 잘 따 다. 경기장 안팎에서 먼저 출전수범한다면 동료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줄 것이라 믿는다.”며, 소감을 밝혔다.

올 시즌 각오에 대해서는 “많은 팬 분들이 영입 선수가 별로 없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구에는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가 필요하다. 지금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많고, 같은 목표를 향해 땀 흘리고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올 시즌 목표인 스플릿 A 진출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FC, 기능성 강화된 유니폼 입고 '스플릿 A' 도전!

구단 상징 색상 하늘색 유지, 품질과 세련미 더한 2018시즌 유니폼 발표

대구FC가 '스플릿 A'도전에 함께 할 2018시즌 유니폼을 공개했다.

이번 유니폼에서 대구는 구단을 상징하는 색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유니폼의 품질과 세련미를 한층 더 살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홈 유니폼은 하늘색, 원정 유니폼은 남색, 셔드 유니폼은 흰색이다. 골키퍼 유니폼 홈 녹색, 원정 빨간색을 유지했다. 하의는 다섯 가지 유니폼 모두 상의와 같은 색이다.

홈 유니폼의 하늘색은 대구FC의 전통이 담겨있다. 대구FC는 2003년 처음 리그에 참가한 이후 줄곧 푸른색 계통의 유니폼을 사용해왔다. 원정 유니폼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남색을 유지했고, 흰색의 셔드 유니폼은 지난 해 시즌 중반 공개되어 큰 인기를 끈만큼 홈, 원정 유니폼과 동시에 공개하게 되었다.

품질은 기능성을 갖춰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이번 유니폼은 원단이 메쉬 소재로 되어있어 가볍다. 뿐만 아니라 통풍이 잘되어 땀 배출에 용이하며, 스판이 포함된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되어 선수들이 가볍게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이번 유니폼은 팬들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평상시에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도록 세련미를 강조했다. 심플한 넥 칼라 디자인과 단색으로 들어간 엠블럼(홈 유니폼 제외, 원정, 셔드, GK 홈, GK 원정)이 유니폼 각각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오른쪽 소매에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단색 유니폼에 대구 지역의 특징인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상징하는 삼각형을 넣어 포인트를 줬다. 넥 칼라를 풀고 잠글 수 있는 단추에는 'DAEGU FC' 영문으로 새겨져 소장가치를 높였다.



변경되는 폰트도 세련미를 한층 더했다. 이번 유니폼에 들어가는 선수 이름과 번호 폰트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심플하고 직선적인 느낌이며, 적당한 굵기로 제작되어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독성을 고려한 디자인이다. 이번 유니폼 디자인은 스포츠 디자인 전문회사 '스미스 스포츠'와 함께했다.

가슴에 들어가는 메인스폰서는 지난해와 같은 '대구은행 DGB'이다. 지난 유니폼 소매에 위치했던 '아진산업(주)'은 유니폼 뒷면 선수 이름 위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새로운 스폰서로는 '대성에너지(주)'가 유니폼 뒷면 등번호 아래쪽에 위치하게 된다.



R리그

프로축구! 주중에도 한다

R리그, 주 중 낮 경기로 대구스타움 보조구장에서 열려

올 해 총 21경기, 여기에 대구FC의 미래가 있다

R리그는 쉽게 말해 2군 리그다. 많은 분들이 헛갈려 하는 부분이 1부, 2부 그리고 1군, 2군이다. 실제로 2군 리그를 챌린지 또는 2부 리그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정리하자면 1부, 2부는 리그 차원에서의 구분이고, 1군, 2군은 같은 팀 내에서의 구분이다. 현재 K리그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뉘어 있다. 정식명칭은 지난해까지 1부 리그가 클래식이고, 2부가 챌린지다. 물론 올해부터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1, K리그2로 쓰기로 했다. 이처럼 1부, 2부는 리그차원에서의 구분이고, 1군과 2군은 같은 팀에서의 구분이다. 알려진 대로 1군은 주전, 2군은 비주전이다. 당연히 2군 선수들의 출전기회가 많지 않다. 연맹과 구단은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K리그와는 별도로 R리그를 운영하면서 2군 선수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대구FC가 적극적이다. 유망주 키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조광래 대표는 그동안 연맹에 꾸준히 R리그를 제기 했고, 2016년부터 운영 중이다.

사실 2군 리그는 골극이 많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각 팀별로 2군까지 운영할 선수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스 팀 선수들이 R리그에 대거 뛰는 경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존폐를 거듭했다.

먼저 2군 리그는 1990년에 처음으로 창설됐다. 하지만 단 한 시즌만 운영되다가 폐지됐다. 다시 2000년에 재창설되고, 2009년부터 리그 명칭이 R리그(리저브리그)로 확정되면서 정착되는 가 싶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팀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가와 불참을 반복하면서 자리 잡지 못했고, 결국 2012년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2013년에 전북, 대전, 경남, 상주 등 4개 구단이 자발적으로 R리그 재개를 시도했지만, 자체적인 리그운영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5년이 흘렀고, 2016년부터 R리그가 공식적으로 재개됐다. 당시 조광래 대표는 시민구단이 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선수양성이 절대적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R리그 부활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부활 첫째 K리그 클래식 6팀(FC 서울, 성남 FC, 수원 삼성 블루윙즈, 울산 현대, 인천 유나이티드, 전북 현대 모터스) 과 K리그 챌린지 8팀(고양 자이크로, 대구 FC, 대전 시티즌, 부산 아이파크, 부천 FC 1995, 서울 이랜드, 안산 무궁화, 충주 험멜) 등 총 14구단이 A조 리그(중부리그)와 B조 리그(남부리그) 소속으로 나뉘어 R리그에 참가했다. 대구FC는 남부팀 B조에 속해 조 우승까지 차지했다. 이 때 활약한 선수들이 지금은 주전급으로 성장했다.

홍승현, 김우석, 김대원, 박한빈, 홍정은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대구FC를 비롯 경남FC, 대전시티즌, 부산아이파크, 울산현대, 전남드래곤즈,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등 남부리그 8팀과 중부리그 7팀(강원FC, 부천FC 1995, FC서울, 수원삼성, 안산그리너스, 인천유나이티드, 제주유나이티드) 등 모두 15개 팀이 합류했다.

대구FC는 울산현대와의 원정경기를 시작으로, 총 21경기를 소화한다. 홈경기는 3월부터 시작해(3월20일/화 또는 3월22일/목 중 택일) 총 10경기를 치른다. R리그는 팀 사정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변동이 많다.

경기는 평일에 한다. 대구는 주로 대구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한다. 입장료는 무료. 하지만 여름 땀벌에도 주로 낮에 한다. 원정도 먼 거리를 당일 갔다가 그날 온다. 모두들 루키 시절이 있다. 힘들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내일이 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엔젤이 올해에는 대구의 미래를 위해 이 곳으로 달려가겠다는 주중 관전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FC 홈경기 전 경기를 직관한 모 엔젤은 “평일에도 경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며 “R리그 프로축구경기인 만큼 시간이 되면 직관할 예정”이라고 다른 엔젤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물론, 팀 사정상 변동이 많아 매 경기 마다 엔젤단독방에 공지할 예정이다.



R리그 2018 남부리그

남부리그(8팀) :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포항

일자	시간	Home	Away	장소
03.27(화)	14:00	대구	대전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04.03(화)	14:00	대구	부산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05.22(화)	17:00	대구	경남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06.05(화)	17:00	대구	전남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06.12(화)	17:00	대구	전북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06.26(화)	17:00	대구	포항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07.31(화)	17:00	대구	울산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09.18(화)	14:00	대구	대전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10.16(화)	14:00	대구	울산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10.30(화)	14:00	대구	전남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1) 홈경기 개최일 화요일 or 목요일 개최(홈팀 지정)

(2) 경기개최시간 홈구단 자율(혹서기 6라운드(5월 4주차)~14라운드(7월 4주차))

※ R리그는 구단 사정상 일정 변경이 많은 만큼, 사무국에서 경기시 마다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2018 DAEJU FC SCHEDULE

HOME
AWAY

MARCH

03	10	17	31
SAT 2PM	SAT 2PM	SAT 2PM	SAT 4PM

APRIL

07	11	15	21	25	28
SAT 4PM	WED 7:30PM	SUN 2PM	SAT 2PM	WED 7:30PM	SAT 2PM

MAY

02	05	13	19
WED 7:30PM	SAT 2PM	SUN 4PM	SAT 4PM

JULY

08	11	15	18	22	29
SUN 7PM	WED 19:30PM	SUN 19PM	WED 7:30PM	SUN 7PM	SUN 7PM

AUGUST

05	11	15	18	22	26
SUN 7PM	SAT 7PM	WED 7PM	SAT 7PM	WED 7:30PM	SUN 7PM

SEPTEMBER

02	16	22	26	30
SUN 7PM	SUN 4PM	SAT 4PM	WED 2PM	SUN 4PM

OCTOBER

06	20
SAT 2PM	SAT 2PM

대구FC, '2018시즌' 일정 확정...

3월 3일(토) 포항 원정 시작으로 9개월 대장정
홈개막전은 3월 10일(토) 수원전에서 치러

‘스플릿 A’에 도전하는 대구FC의 2018시즌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구는 3월 3일(토) 포항을 상대로 개막전을 가졌으며 10월 20일(토) 까지 정규라운드 33경기를 치르게 된다. 3월 10일(토)에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수원삼성과의 경기로 홈개막전을 치렀다.

2018시즌 K리그1 개막을 앞두고 안드레 감독은 올 시즌 예상 순위는 6 위이며, ‘스플릿 A’진출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해 K리그 클래식 베스트 11 골키퍼로 선정된 조현우 선수는 올해도 베스트 11 골키퍼 부문을 수상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시즌 맹활약을 했던 주니오, 에반드로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대구를 떠났다. 하지만 ‘공격의 줄기’역할을 하는 세징야가 건재하고 새로 합류한 카이온, 지안이 힘을 보태고 있다. 올 시즌 대구FC가 K리그1 잔류와 스플릿 A진출을 모두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01 <출정가>_선수 입장곡 승리의 바람이 불어온다 두손 모아 뚝을 높이 올려라 영광의 바다로 우리 나가자 거칠 것은 무엇도 없노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02 <푸른 태양> 푸른 태양이 비추는 나의 도시 상쾌한 바람 내음이 나를 깨워 두 팔을 높이 들고, 또 소리쳐 불려라 대구에 퍼질 이 노래를 알레오(짝짝짝짝) 알레 알레오(짝짝짝짝) 알레오(짝짝짝짝) 알레 알레오(짝짝짝짝 짹)	03 <이 순간> 이 순간만은 미친듯 놀아보자 오오오 (북소리가 크게 울린다, 자리에서 일어나 근심 따윈 던져버리고, 오늘을 불태우자 여기는 우리의 낙원, 목소리를 크게 높여 이 순간만은 미친듯 놀아보자 오오오) x2
07 <대구 트위스트>_득점 후 오 대구, 오 FC One, Two, One, Two, Three, Four (알레 알레 알레 알레 알레 대구 알레 알레 알레 알레 알레 대구 알레 알레 알레 알레 알레 대구 We are 대구FC 어이 어이 어이) x2	08 <맹 세> 힘든 세상이 와도 저 멀리 그댈 볼수 없는 곳이라도 너에게 맹세해 끝까지 대구의 사람으로 남겠다고 Vamos(바모) 대구 나의 사랑 Vamos(바모) 대구 함께 가 Vamos(바모) 대구 나의 사랑 어디라도 함께 가	09 <바이러스 in 대구> 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 대구FC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
13 <참 Song>_득점 후 오 나의 친구여 이곳에서 축제를 열어 참소주 한병에 나의 모든 근심을 담아 우리의 청춘을 이곳에서 불태워 보자 가난한 이몸에 대구의 혼을 담아 뛰어 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 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	14 <한 번 뿐인 내 청춘을 대구에게> 한 번 뿐인 내 청춘을~ 대구에게~ 내 심장이 뛰는 한 멈추지 않아~ 이 노래를~	15 <Go with DaeguFC> 알레알레 대구 알레알레 대구 알레알레 알레 알레 오오오오 오오 오오 Go With 대구FC
19 <알레 대구>_두 손 들고 알레~ 대구 알레~ 대구 알레~ 대구 알레~ 대구 알레 (짝짝) 대구(짝짝짝) 알레 (짝짝) 대구(짝짝짝) 알레 (짝짝) 대구(짝짝짝) 알레 (짝짝) 대구(짝짝짝) 알레~대구 알레~대구 알레~대구 알레~대구(짝짝짝)	20 <오 랄라>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어디라도 그대들과 함께하리라 헤이	21 <블루 하트 콜> 소리쳐라(짝짝) 노래하라(짝짝) 가슴이 원하는 그대로(짝짝) 소리쳐라(짝짝) 노래하라(짝짝) 승리는 우리 것이다 대구올레 대구올레 부르자 승리의 노래 대구올레 대구올레 부르자 승리의 노래

04 <Goal's 대구> (선창) 알레 대구FC (후창) 알레 대구FC (선창) 골 대구FC (후창) 골 대구FC (선창) 승리하라 대구FC (후창) 승리하라 대구FC One, Two, One, Two, Three, Four 알레 대구FC, 골 대구FC, 승리하라 대구FC	05 <내 사랑 대구> 내 사랑 대구, 내 사랑 대구 내 사랑 대구FC 내 사랑 대구, 내 사랑 대구 내 사랑 대구FC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06 <대구 없이는 못 살아> (대구 없이는 못 살아 대구 없이는 못 살아 대구 없이는 못 살아 대구 없인 못 살아)x2 랄라라 라라 라라라 랄라라 라라 라라라 랄라라 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10 <대구FC 콜> 짝 짹 짹 짹 대구 FC	11 <대구 콜> 짝짝짝 짹 짹 대~ 구~	12 <You & I> 사랑하는 나의 대구 그리고 우리 이곳에 모여 (짝짝) 이렇게 그대와 나는 멋진 오늘을 함께 할거야 랄라라 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 라라라라라 대구 랄라라 랄라라라라 랄랄랄라라 라라라라라
16 <Song for 대구> 알레 알레 알레 알레 알레 나는 부르네 대구위해 이 노래르~으을~	17 <하나뿐인 나의 사랑> 그댄 하나뿐인 나의 사랑이야 널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널 생각하는 내 마음이야 고갤 들어봐 그대, 우린 언제나 여기에 있고 많은 시간이 가도, 너와 멀어지진 않아 힘이 든다면 그대, 내가 다리가 되어 줄테니 고개 숙이지 말고, 언제나 뒤를 돌아봐 우리 모든걸 그대 위해~ 노래해~에 너의 모든걸 우리에게~ 보여줘~어	18 <대구의 찬가> 오오 오오오 오오대구FC 오오 오오오 오오 승리하리라 24 <그대와 우리 함께> 오늘은 대~구와 내가 (상대팀 이름) 죽이는 날~ 그대와 우리 함께면, 두려움 따윈 없네 천~국과 지옥, 그~ 어디라도 우리 맞잡은 두~손, 절대 놓지 않아 모두가 등을 돌려 널 찾지 않는대도 우린 여기 서있을게 우리를 바웃는 어떤 것이라도 그대와 우리 함께, 다 헤쳐나가자
22 	23 그라지예 페이스북 Facebook.com/daeguafc 인스타그램 @daegufc_grazie	



DAEGU FC
DAEGU FOOTBALL CLUB

대구FC 태양의 전사들



태양의 전사들



감독.
안드레

생년월일	1972년 11월 16일
국적	브라질

선수경력

1992 ~ 1995년 : Santos Futebol Clube(브라질)
1996 ~ 1997년 : Portuguesa Santista(브라질)
1998 ~ 1999년 : Marilia(브라질)
2000 ~ 2002년 : 안양 LG 치타스
2003 ~ 2004년 : Quindao(중국)
2005 ~ 2008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지도자 경력

2008 ~ 2012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코치
2012 ~ 2014년 : Clube Atletico Bragantino(브라질) 감독대행
2015 ~ 2017년 : 대구FC 코치
2017 : 대구FC 감독대행
2018 ~ 대구FC 감독



GK코치.
이용발

생년월일	1973년 3월 15일
학력	동아대

선수경력

1994 ~ 2003년 유공 코끼리 / 부천SK
2004 ~ 2005년 전북 현대 모터스
2006년 : 경남FC

지도자 경력

2009 ~ 2013년 연세대학교 GK코치
2014년 인천유나이티드 GK코치
2015 ~ 대구FC GK코치

수상경력

1999 ~ 2002년 : 전경기 무교체 특별상
2000년 : K리그 스포츠조선 베스트 11



코치.
최원권

생년월일	1981년 11월 8일
학력	동북고

선수경력

2000년 ~ 2008년 FC서울
2009년 ~ 2010년 광주상무
2011년 ~ 2013년 제주Utd
2013년 대구FC

지도자 경력

2016년 ~ 대구FC 코치

대표 경력

2000년 ~ 2008년 대한민국 U-23
2003년 ~ 2004년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상

K리그 우승 1회(2000년)
K리그 준우승 2회(2001년, 2002년)
슈퍼컵 우승 1회(2001년)
리그컵 우승 1회(2001년)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 준우승 1회(2002년)



코치.
베네디토

생년월일	1974년 3월 5일
국적	브라질

주요경력

1993~1995: Esporte Clube Santo André(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6: Sport Club Corinthians Paulista(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7~1998: Associação Portuguesa de Desportos(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9: Alecrim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1999~2000: União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1~2002: Esporte Clube São Bent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3: Nacional Atlético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4: Clube Atlético Juventus(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5: Clube Atlético Bragantin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6: Associação Portuguesa de Desportos(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7: Paulista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7: América Futebol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7: Clube Atlético Bragantin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08~2014: Clube Atlético Bragantino(브라질) 피지컬 코치
2014: Criciúma Esporte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15: Goiás Esporte Club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16: Atlético Clube Goianiense(브라질) 피지컬 코치
2017~: 대구FC 피지컬 코치



전력분석/통역.
이종현

생년월일	1987년 1월 8일
학력	과천초

선수경력

2004~2006 Americano Futebol Clube (브라질)
2007 Marilia Atletico Clube (브라질)
2008 Atletico Sorocaba (브라질)
2010년 : 경남FC
2011년 : 인천유나이티드
2012~2014년 : 김해시청 축구단

지도자 경력

2015년 ~ 대구FC 전력분석 통역



트레이너.
노현욱

생년월일	1970년 3월 13일
학력	대구보건대

주요경력

대구FC 트레이너
삼성라이온즈 닥터
한화이글즈 닥터
원 휘트니스센터 관리팀장





트레이너.
박해승

생년월일	1984년 3월 11일
학력	대구대

주요경력

대구FC 트레이너

대구FC U-18(현풍고) 트레이너



트레이너.
이대균

생년월일	1990년 8월 8일
학력	대구의한대

주요경력

대구FC 트레이너

영덕고등학교 축구부 트레이너

부산외국어대학교 축구부 트레이너

LG트윈스 트레이너 인턴십

신평고등학교 축구부 트레이너



GK21.
조현우

생년월일	1991년 9월 25일
학력	전문대
신장 / 체중	189cm / 75kg

경력

2013~2017 : 대구FC 144경기 1도움 175실점

대표경력

2013~2014 : 대한민국 U-23

2010 : 대한민국 U-20

2015~2018 :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상경력

2015~2016 : K리그 챌린지 베스트 11 GK

2017 : EAFF E-1 풋볼 챔피언십 우승

2017 : EAFF E-1 풋볼 챔피언십 최우수 골키퍼

2017 : K리그 클래식 베스트 11 GK



GK31.
이현우

생년월일	1994년 3월 20일
학력	용인대
신장 / 체중	185cm / 72kg

경력

2017 : 대구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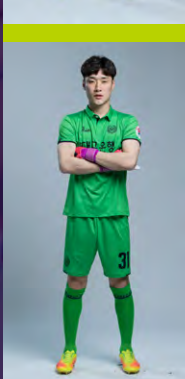
수상경력

2014 : 전국 1, 2학년 대학대회 우승

2014 : 전국 1, 2학년 대학대회 GK상

2015 : U리그 왕중왕전 우승

2015 : U리그 왕중왕전 GK상



장비담당.
고강훈

생년월일	1994년 8월 16일
학력	계명대 스포츠마케팅학과

경력

2013 : 대구FC 크루 2기

2016 : 대구FC 크루 5기

2017 : 대구FC 크루 6기

수상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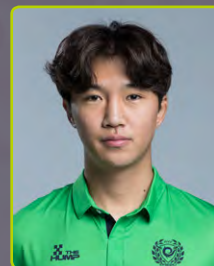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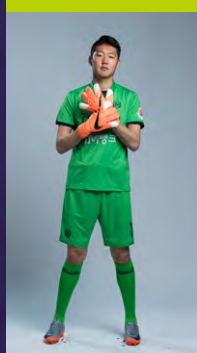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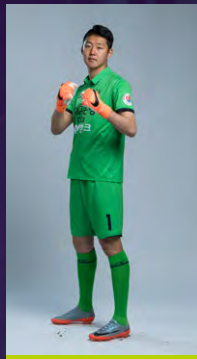
2013 : 대구FC 크루 2기 공로상

2016 : 대구FC 크루 5기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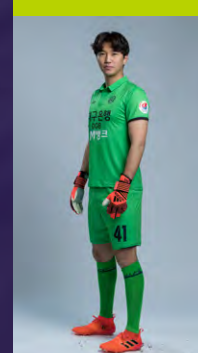
GK1.
최영은

생년월일	1995년 9월 26일
학력	성균관대
신장 / 체중	189cm/78kg



GK41.
손재혁

생년월일	1997년 9월 3일
학력	서울디지털대
신장 / 체중	193cm/85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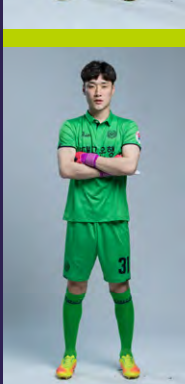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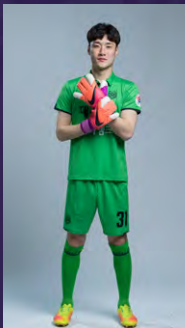
GK55.
김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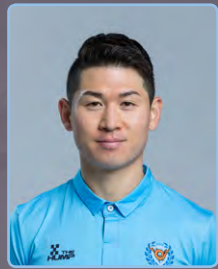
생년월일	1992년 6월 5일
학력	단국대
신장 / 체중	187cm/77kg

경력

2015~2017 : 전북현대

2018~ : 대구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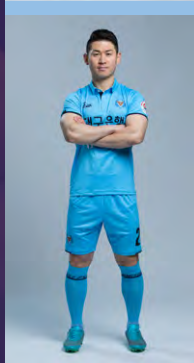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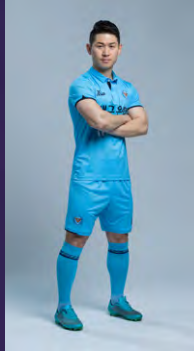


DF2.
오광진

생년월일	1987년 6월 4일
학력	울산대
신장 / 체중	172cm / 64kg

경력

2010~2011 : 울산현대
2011~2012 : 경남FC
2012~2013 : 김해시청 21경기
2013~2015 : 수원FC 44경기 2도움
2016~ : 대구FC 27경기



DF3.
김우석

생년월일	1996년 8월 4일
학력	신갈고
신장 / 체중	187cm / 74kg

경력

2016~2017 : 대구FC 12경기 1득점



DF13.
홍승현

생년월일	1996년 12월 28일
학력	동북고
신장 / 체중	180cm / 69kg

경력

2016~2017 : 대구FC 22경기 1도움

대표경력

2017 : 대한민국 U-23



DF16.
강윤구

생년월일	1993년 2월 8일
학력	동아대
신장 / 체중	170cm / 70kg

경력

2013 : 빙셀고베(일본)
2014 : 오이타트리카타(일본)
2015 : 에히메FC(일본)
2016 : 청주시FC
2017 : 목포시청 24경기 4도움

대표경력

2013 : 대한민국 U-20
2014 : 대한민국 U-21



DF5.
홍정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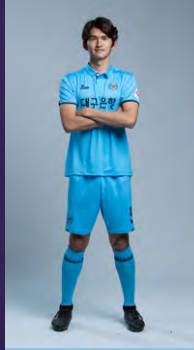
생년월일	1994년 11월 29일
학력	명지대
신장 / 체중	187cm / 76kg

경력

2016~2017 : 대구FC 26경기

대표경력

2015~2016 : 대한민국 U-23



DF6.
한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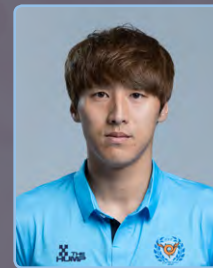
생년월일	1990년 8월 10일
학력	상지대
신장 / 체중	183cm / 76kg

경력

2013~2014 : 에히메FC(일본) 34경기 2득점
2015 : 도치기SC(일본) 31경기 1득점
2016 : 부천FC 40경기 3득점
2017~ : 대구FC 36경기 1득점

수상경력

2011 : 전국대학축구대회 우수 선수상



DF22.
정우재

생년월일	1992년 6월 28일
학력	예원예술대
신장 / 체중	179cm / 70kg

경력

2011~2012 : 츠바이겐 가나자와
2014 : 성남 2경기
2015 : 충주 26경기 1득점 1도움
2016~2017 : 대구FC 70경기 4득점 8도움



DF27.
박시윤

생년월일	1993년 5월 2일
학력	한국국제대
신장 / 체중	173cm / 62kg

경력

2016 : 충주함멜
2017~ : 대구FC





DF28.
이동건

생년월일	1999년 2월 7일
학력	신갈고
신장 / 체중	183cm/69kg

경력

2016 : 춘계한국고교축구연맹전 우승
2017 : 문체부장관배 우승



DF30.
김진혁

생년월일	1993년 6월 3일
학력	송실대
신장 / 체중	187cm / 71kg

경력

2015 : 대구FC 12경기
2016 : 울산현대미포조선 22경기 1득점
2017 : 대구FC 32경기 4도움

대표경력

2015 : 대한민국 U-22

수상경력

2015 : 킹스컵 우승
2016 : 내셔널리그 우승



DF35.
서재민

생년월일	1997년 12월 4일
학력	현풍고
신장 / 체중	169cm/6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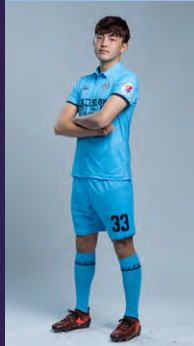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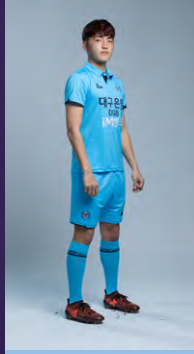
경력

2016~2017 : 수원삼성 46경기 2득점 2도움



DF33.
김태한

생년월일	1996년 2월 24일
학력	한양대-현풍고
신장 / 체중	183cm/77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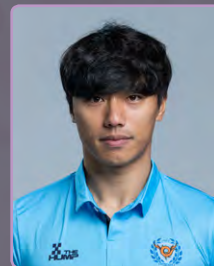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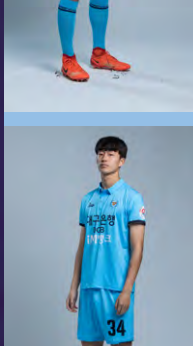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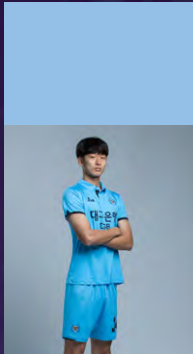


DF34.
진동휘

생년월일	1995년 4월 5일
학력	명지대
신장 / 체중	187cm/73kg

경력

2016~2017 : 수원삼성 46경기 2득점 2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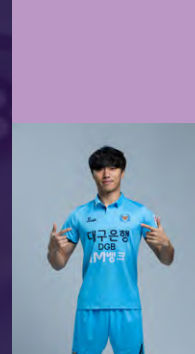


MF4.
고승범

생년월일	1994년 4월 24일
학력	경희대
신장 / 체중	174cm/72kg

경력

2016~2017 : 수원삼성 46경기 2득점 2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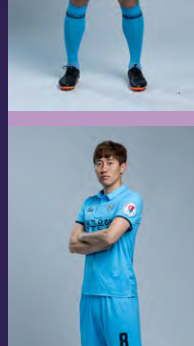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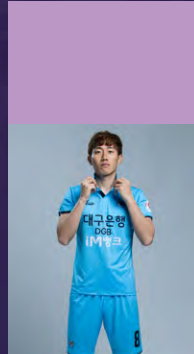


MF8.
정선호

생년월일	1989년 3월 25일
학력	동의대
신장 / 체중	182cm/78kg

경력

2013~2016 : 성남 77경기 4득점 3도움/AQL 7경기
2017 : 상주 2경기





MF19.
이해웅

생년월일	1998년 11월 20일
학력	신갈고
신장 / 체중	173cm/64kg

경력

2017 : 대구 1경기



MF20.
황순민

생년월일	1990년 9월 14일
학력	카미무라고(일본)
신장 / 체중	178cm/69kg

경력

2011 : 쇼난 벨마레(일본)
2012~2015 : 대구 84경기 11득점 7도움
2016~2017 : 상주 16경기 1득점
2017 : 대구 8경기 1도움

대표경력

2010 : 대한민국 U-23



MF29.
류재문

생년월일	1993년 11월 8일
학력	영남대
신장 / 체중	184cm/72kg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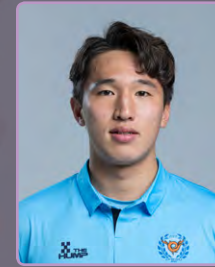
2015~2017 : 대구FC 64경기 7득점 6도움

대표경력

2011~2012 : 대한민국 U-20

수상경력

2012 : 제 43회 전국 추계 대학연맹전 우승
2013 : U리그 권역 우승
2013 : U리그 챔피언십 우승
2014 : U리그 권역 우승



MF36.
박한빈

생년월일	1997년 9월 21일
학력	신갈고
신장 / 체중	183cm/80kg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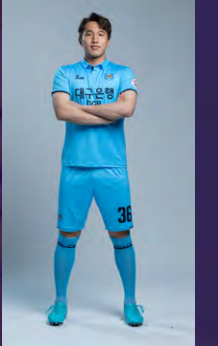
2015~2017 : 대구FC 23경기

대표경력

2014~2015 : 대한민국 U-19

수상경력

2016 : JS컵 MVP



MF25.
민경민

생년월일	1996년 6월 4일
학력	중원대
신장 / 체중	185cm/75kg

경력

2016 : U리그 권역 우승



MF26.
고재현

생년월일	1999년 3월 5일
학력	대륜고
신장 / 체중	180cm/67kg

경력

2017 : 대한민국 U-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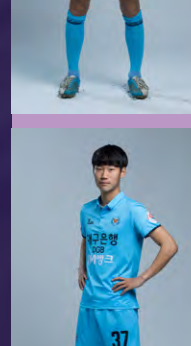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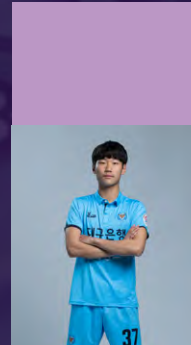


MF37.
오후성

생년월일	1999년 8월 25일
학력	현풍고
신장 / 체중	173cm/64kg

대표경력

2016 : 대한민국 U-17



MF38.
장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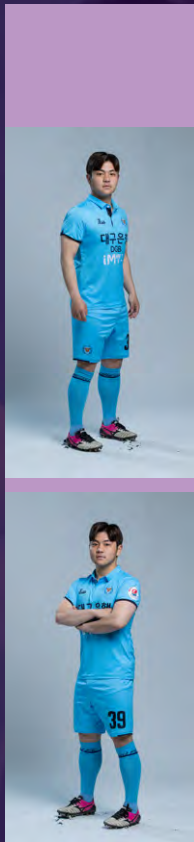
생년월일	1997년 6월 17일
학력	한남대
신장 / 체중	180cm/66kg





MF39.
전주현

생년월일	1996년 4월 24일
학력	연세대
신장 / 체중	174cm/72kg



MF40.
조용재

생년월일	1998년 1월 6일
학력	현풍고
신장 / 체중	173cm/68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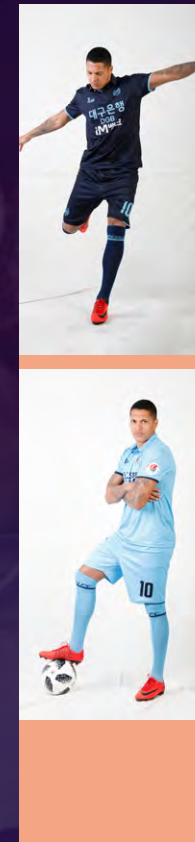


FW10.
지안

생년월일	1993년 7월 2일
국적	브라질
신장 / 체중	181cm/82kg

경력

2013 : 오에스치(브라질)
2014 : 마두레이라(브라질)
2014 : 하우프레투(브라질)
2015 : 마투넨시(브라질)
2016 : 삼파이우 코헤아(브라질)
2016 : 노브리존치뉴(브라질)
2017 : 사우케이루(브라질)
2017 : 보투포랑겐시(브라질)
2018~ : 대구FC



FW11.
세징야

생년월일	1989년 11월 29일
국적	브라질
신장 / 체중	177cm / 74kg

경력

2010 : 오스발두 크루스(브라질)
2011~2012 : 바르바렌시(브라질)
2012 : 브라간치뉴(브라질)
2013 : 바르바렌시(브라질)
2013~2014 : 브라간치뉴(브라질)
2014~2015 : 아틀레치쿠 미네이루(브라질)
2015 : 폰치 프레타(브라질)
2016~2017 : 대구FC 63경기 18득점 15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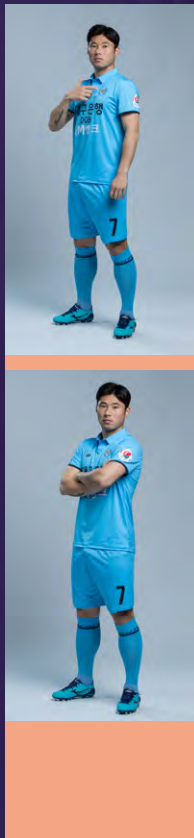


FW7.
전현철

생년월일	1990년 7월 3일
학력	아주대
신장 / 체중	175cm/72kg

경력

2012 : 성남 22경기 3득점
2013~2015 : 전남 71경기 9득점 1도움
2016~2017 : 부산 19경기 2도움
2017 : 대구FC 11경기 2득점 1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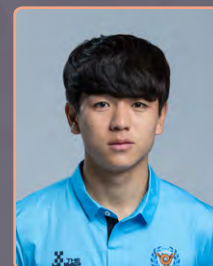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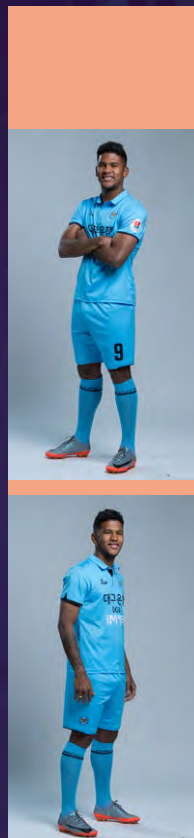


FW9.
카이온

생년월일	1990년 10월 5일
국적	브라질
신장 / 체중	184cm/79kg

경력

2009~2010 : 강원FC
2012 : 브라간치뉴(브라질)
2012 : 미라솔(브라질)
2012 : 카시아스(브라질)
2013 : 사페코엔시(브라질)
2013 : 나우치쿠(브라질)
2013 : 미라솔(브라질)
2014~2015 : 알쇼르타(이라크)
2014 : 포르투게자(브라질)
2014 : 아우다스(브라질)
2015~2016 : HB코이에(덴마크)
2016~2017 : 주벤투지(브라질)
2016 : 아틀레치쿠 고이아니엔시(브라질)
2016 : 크루제이로 RS(브라질)
2017 : 파이산두SC(브라질)
2018~ : 대구FC



FW14.
김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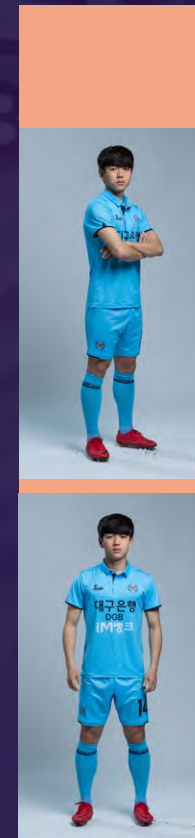
생년월일	1997년 2월 10일
국적	보인고
신장 / 체중	172cm/64kg

경력

2016~2017 : 대구FC 16경기 1득점 1도움

대표경력

2015 : 대한민국 U-18
2017 : 대한민국 U-22



FW15.
임재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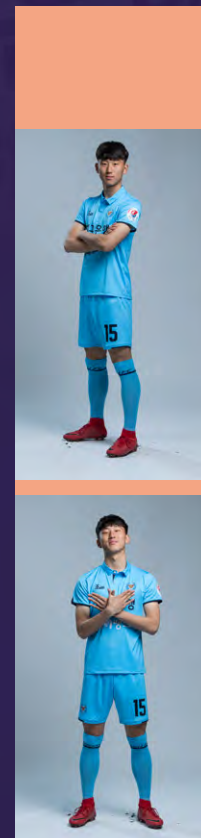
생년월일	1999년 2월 6일
국적	신갈고
신장 / 체중	180cm/66kg

대표경력

2016 : 대한민국 U-17
2017 : 대한민국 U-18

수상경력

2016 : 춘계한국고교축구연맹전 우승
2017 : 문체부장관배 우승





FW17.
김경준

생년월일	1996년 10월 1일
학력	영남대
신장 / 체중	180cm/70kg

경력

2017 : 대구FC 3경기

수상경력

2015 : U리그 권역 우승
2016 : 전국체전 우승
2016 : U리그 권역 우승
2016 : U리그 권역 득점왕
2016 : 추계 1, 2학년 대학대회 우승
2016 : 추계 1, 2학년 대회 득점왕
2016 : 전국추계대학연맹전 우승
2016 : 추계대학연맹전 득점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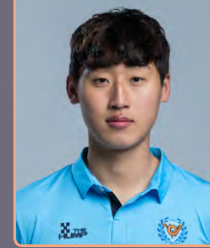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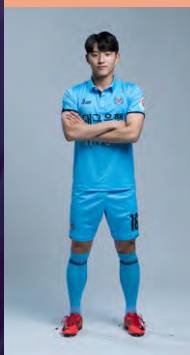


FW18.
정승원

생년월일	1997년 2월 27일
국적	안동고
신장 / 체중	170cm/68kg

경력

2017 : 대구FC 9경기



FW42.
손석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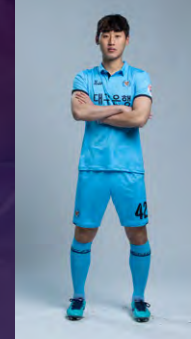
생년월일	1998년 9월 4일
국적	현풍고
신장 / 체중	179cm/72kg

대표경력

2016 : 대한민국 U-18

수상경력

2016 : K리그 주니어 전기 리그 득점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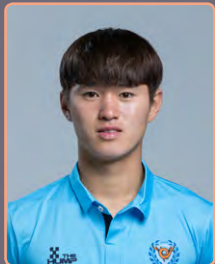


FW45.
정충엽

생년월일	1998년 6월 2일
국적	부평고
신장 / 체중	184cm/71kg

대표경력

2015 : 대통령금배 축구대회 우승
2015 : 전국체전 동메달
2016 : 대통령금배 축구대회 우승



FW23.
예병원

생년월일	1998년 3월 25일
학력	대륜고
신장 / 체중	174cm/65kg



FW32.
정치인

생년월일	1997년 8월 21일
국적	대구공고
신장 / 체중	182cm/71kg

대표경력

2016 : U19 대표팀

수상경력

2015 : 전국체전 준우승

경력

2016~ : 대구FC 11경기 6득점



Half time talk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줄 뿐이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존 로스



축구의 나라를 가다

축구의 나라를 가다 ③ 스웨덴



스톡홀름의 관광 명소인 시청 앞 광장에서 바라 본 감라스탄(old city) 풍경. 감라스탄에는 왕궁과 노벨박물관 등이 있다.

◆ 스웨덴

축구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빅매치 중의 빅매치인 월드컵이 올해 러시아에서 열린다. 천신만고 끝에 본선행 티켓을 따낸 한국은 멕시코, 독일, 스웨덴과 함께 F조에 편성됐다. 호락호락한 팀이 하나도 없어 1승은 고사하고 1골이라도 제대로 넣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경기는 6월 18일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펼쳐질 스웨덴전이다. 신태용 국가대표 감독은 "스웨덴과의 조별예선 1차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16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2006 독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의 본선 진출국이란 점이 그런 인상을 심어준 건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은 절대 호락호락한 팀이 아니다. 유럽최종예선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를 차례로 무너뜨렸고 1958년 월드컵 준우승을 비롯해 세 차례 월드컵(1938, 1950, 1994)에서 4강에 오른 전통의 강팀이다.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축구보다 더 강한 게 많은 스웨덴으로 가보자. 볼보자동차, 연어, 말괄량이 삤삤 그리고 7080세대의 아이콘이었던 아바(ABBA)가 바로 스웨덴산이다. 여행의 출발은 북유럽의 베니스로 알려진 수도 스톡홀름이다.

◆ 북유럽의 베니스 아니 그 이상인 스톡홀름

베니스, 부다페스트, 뮌헨, 크라이스트처치 등 아름다운 도시 여론조사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곳들이 있지만 스톡홀름은 2위 자리를 내줄 의지가 없는 곳이다. 도시 깊숙이 바다와 호수가 뒤섞인 14개의 섬과 60여개의 다리로 이뤄진 섬의 도시 스톡홀름은 물길을 따라 보트와 전차가 다니고 고풍스런 호텔이 옛날 성처럼 들어서 있다. 어디를 봐도 정말 예서 같다. 아무 곳이나 사진을 찍고 현상해서 우표만 붙이면 엽서가 되는 곳, 구름과 도시의 조화도 서로 짝 맞냥 완벽한 화음을 내는 곳이다. 올드시티인 감라스탄의 작은 골목, 의자 한 두개만 내어놓은 카페마저도 걸음을 자연스레 멈추게 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느껴지는 건 의도한 것보다 더 뛰어난 센스다. 거기에 건축물이 한 몫 하는 건 물론이다. 특히 여행객들이 빠트리지 않고 가는 곳 중 하나인 스톡홀름 시청사는 매년 12월 노벨상 시상식 축하연이 열리는 곳이지만 그것보다 건축학적 아름다움을 더 높이 평가받는 곳이다. 1923년 건설된 시청사 마당에서 바로 보이는 바다같이 넓은 말라렌 호수는 발트해로 이어진다. 유럽의 대부분 시청사가 관광코스에 포함돼 있지만 스톡홀름의 그것은 단연 으뜸이다. 오죽하면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이 부러워질 정도일까. 왕궁도 인기 코스다.

스웨덴 왕궁은 이탈리아의 바로크 양식과 프랑스의 로코코 양식이 결합된 건물이다. 13세기 지어질 당시에 요새였다가

18세기에 왕궁으로 바뀌었다. 1982년까지 왕과 왕비가 실제로 거주했지만 지금은 왕족 집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동물원, 놀이공원 등이 있는 유르고텐의 바사박물관도 스톡홀름의 명소다. 스칸디나비아 3국의 박물관 중 가장 관광객이 많은 곳이다.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전함으로 1625년에 건조돼 3년 뒤 처녀항해 때 진수식을 하자마자 열린 포문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침몰한 바사호가 전시된 곳이다. 침몰한 바사호는 1961년 인양됐는데 배에서 25구의 유골이 발견됐다. 시내 중심인 노르말름에서 바사박물관을 가기 위해 트램이 있는 세르겔 광장 쪽으로 가다가 용무가 급해 스톡홀름 최대 백화점인 NK 백화점에 들어갔다. 4층에만 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올라갔더니 소변 한번 보는데 2크로네를 달라고 했다. 우리 돈 3천 원 정도 된다. 어디서나 화장실을 공짜로 쓰는 한국과 달리 남미와 유럽에서 공짜 화장실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남미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화장실은 돈을 받지 않는다. 공중화장실 가격도 200원을 넘는 곳은 없다. 유럽은 다르다. 물론 쇼핑몰에서 돈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 기차역에서 돈을 받는 곳이 있듯이. 정확한 기준은 없다. 따라서 화장실 비용이 비싼 도시는 차라리 카페에 들어가 차를 한 잔 마시고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득'이다. 어차피 줘야 될 돈이면 차라리 차라도 한잔 마시면 덜 아까울 테니 말이다.

NK백화점을 나오자 스톡홀름 만남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르겔광장이 반긴다. 올 연말 공사가 마무리 되는 이곳의 소음 차단막에는 '향후 50년 스톡홀름의 중심을 바꿔놓을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서 죄송하다'고 쓰여 있다. 차단막을 보면서 최소 반세기를 내다보는 자신감 있는 도시계획이 이미 넘치도록 아름다운 이 도시를 얼마나 조화롭게 바꿀지 너무나 큰 기대로 다가왔다.

◆ 이제는 전설이 된 스웨덴 국민 가수 아바

아바(ABBA), 그 이름만으로도 7080세대들은 가슴이 설렌다. 73년 유로비전송 콘테스트에서 '워터루(Waterloo)'로 대상을 받은 이후 유럽과 한태평양지역에 슈가팝을 이끌었던 혼성그룹인 아바. 손에 다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히트곡들을 양산했던 그 전설을 유르고텐에 있는 아바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었다. 2013년 5월에 개관한 박물관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지만 20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바박물관이 인상적인 건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이다. 입장권에 찍힌 바코드를 찍으면서부터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아바 노래를 부르면 점수가 나오는 녹음실, 얼굴 사진을 찍으면 3D로 아바 의상을 입은 가수로 변신시켜주는 코너, 제5의 아바 멤버로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는 3D홀로그램 스테이지 등이 그것이다. 2014년에 처음 왔을 때 무대에 서보라고 직원이 권유했지만 다음에 하겠다며 돌아섰는데 이번엔 용기를 내어 무대에 섰다. 맘마미아와 댄싱퀸 중 한 곡을 선택해 부르라고 한다. 댄싱퀸을 부르겠다고 하니 직원이 반주 및 홀로그램을 함께 준비 해준다. 아바 멤버들이 홀로그램을 통해 밴드가 되고 무대에 서는 이는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식이다. 노래가 끝나자 무대 아래서 구경하던 관람객들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뜨겁게 박수를 쳐준다. 이런 체험 프로그램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화가 된다. 박물관을 나서더라도 자신의 입장권 고유번호를 이용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한 달간 다시 볼 수 있다. 물론 내려받기도 가능하다. 일회성으로 날아가는 노래가 아니라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남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히트곡 중 하나인 '링'노래가 나오는 곳엔 노래 내용과 맞게 전화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실제 멤버 중 한 명이 왕왕 전화를 걸기도 한다는 설명도 들었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박물관의 진수가 이런 게 아닐까.

▼스톡홀름 내해를 바라보며 여름의 햇살을 즐기는 시민들. 스톡홀름의 여름은 5주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짧아서 여름 내내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스웨덴 왕립 오페라 극장 앞. 신도심인 노르말름에서 구 도심인 감라스탄을 지나가는 길에 있다.



▼ 스웨덴의 축구 클럽 유르고르덴 IF 함마르뷔 IF의 홈구장인 텔레2아레나. 스톡홀름 도심에서 전철로 10분 거리에 있다. 개폐식 돋구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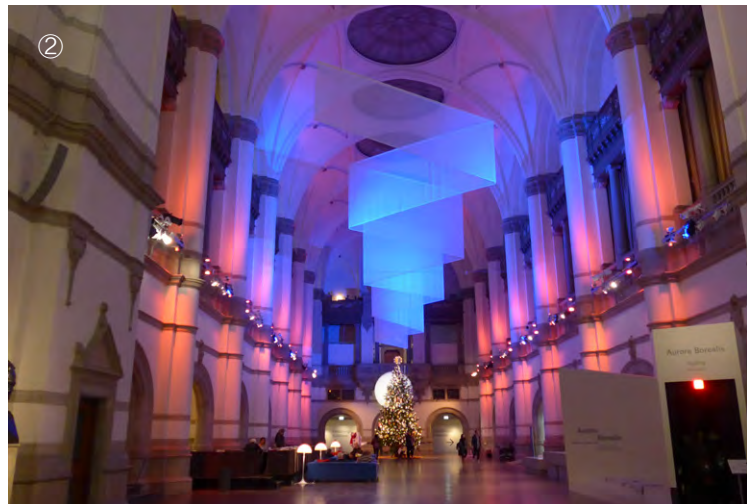


▲ 7080세대의 팝 아이콘인 아바박물관은 유르고텐섬에 있다. NK백화점 앞에서 7번 트램을 타고 10분 정도 가면 된다. 아바가 입었던 무대 의상에서부터 작업실, 밀납인형 등은 물론 관객들의 체험공간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 ‘마녀배달부 키키’의 배경 고틀란드섬

아바박물관에서 나와 천천히 스톡홀름 시내를 구경하며 숙소로 도착하니 로비 TV에서 흑백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잉그마르 베리히만의 ‘산딸기’였다. 반가웠다. 대학시절 학교시청각 교육실에서 유럽예술영화제 때 양철북과 함께 본 영화였다. 1980년대만 해도 유럽영화를 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특히 시네티말로 ‘예술영화’는 더했다. 잔잔한 영화라서 기억 속에서 지워진 줄 알았더니 주연을 맡은 노 교수의 모습을 보니 단번에 생각이 났다. 그리고 보니 감독인 베리히만의 고향이 스웨덴에서 가장 큰 섬인 고틀란드가 아닌가. 독일의 습한 겨울날씨가 많은 철학자를 배출했다면 스웨덴 그 중에서도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고틀란드의 햇살과 바다 그리고 동화같이 예쁜 마을이 거장을 탄생시켰나 보다. 얼마나 동화 같은 곳이면 일본의 ‘스튜디오 지브리’만화인 ‘마녀배달부 키키’의 배경이 됐을까. 고틀란드는 물에서 90km 떨어져 있어 비행기나 페리로 가야 한다. 갈 때는 비행기를 때는 페리를 끊었다. 다 돌아볼 수 없어서 고틀란드의 중심인 옛 바이킹 유적지 비스뷔를 당일치기로 갔다. 바이킹고어에 ‘뷔(by)’는 농장을 의미한다. 이곳이 과거엔 비스농장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12~14세기 발트해 연안 한자동맹의 중심지였던 것은 분명하다. 13세기에 지은 성벽과 200개 이상의 창고와 거상들의 저택이 있는 비스뷔는 요새화된 상업 도시였다. 지금도 성벽이 곳곳에 남아있고 삐뚤삐뚤한 골목에 레스토랑, 호텔, 박물관 등이 숨겨져 있다. 마침 여름 휴가시즌이라 중앙 광장에서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었다. 바닷가 앞에는 ADHD관련 학술대회가 길거리 부스에서 개최 중이었다. 평소에는 조용한 곳으로 공원과 비스뷔 시내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않지만 여름 시즌만큼은 고틀란드도 바쁘다는 게 실감났다. 정오에 도착해 4시간 정도 비스뷔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페리에 몸을 실었다. 파도 한점 없는 발트해 위를 달리는 페리에서의 단잠은 천국 같았다.

고틀란드 전경. 미야자키 하야오가 ‘마녀배달부 키키’의 배경 그림으로 사용했던 풍경이다.



◆ 아랍계 무슬림이 넘쳐나는 제2의 도시 예테보리

배를 타고 섬에 갔으니 이제 기차 여행을 즐기기 가장 좋은 곳인 스웨덴의 특성을 십분 살려 열차를 타러 갈 시간이다. 유럽의 기차 가운데 예테사이트가 가장 일찍 열리는 게 바로 SJ 즉 스웨덴 기차다. 미리 여행 준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보통 1달 전에 열리는 SNCF(프랑스), 서너 달 전에 살 수 있는 트레니탈리아(이탈리아열차), 렌페(스페인열차) 등이 유럽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차다. 이 중 SJ는 처음 오픈할 때 구매하는 가격과 출발 임박해서 사는 가격이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처음 오픈할 때 1등석을 구매해 놓으면 나중에 2등석 가격보다 싸다는 말이다. 물론 2등석이라고 불편하지는 않지만 1등석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비스킷, 커피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북유럽의 비싼 물가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인 것이다. 적당한 시간 기차 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를 다음 목적지로 정했다.

열차는 자작나무 숲과 호수로 이어진 철로를 따라 3시간 반 정도 후에 예테보리 중앙역에 멈췄다. 예테보리에서 북쪽으로 연결된 철로는 노르웨이로 넘어가지만 남쪽으로는 더 이상 기차가 달릴 수 없다. 배로 유럽 내륙인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갈 수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도시라고는 하지만 워낙 스웨덴이 인구가 적은 나라이다 보니 예테보리 도심은 어느 북유럽 도시와 마찬가지로 걸어서 이곳저곳을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역에서 내려 숙소 쪽으로 걸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건 2년 전 조용하고 깨끗하던 예테보리가 아니란 것이었다. 스톡홀름의 경우 집시들과 EU 저소득국가에서 온 노숙자나 걸인들이 수년 전부터 조금씩 증가했지만 예테보리는 자국민과 유럽인들이 찾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러나 눈을 의심할 정도로 걸인들은 물론 아프리카 및 아랍계 난민과 그들과 인연이 있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기엔 도가 지나친 장면들이 많았다. 도시는 담배꽂초로 넘쳐나고 몇 걸음만 지나면 외국인 알콜중독자, 걸인들이 말을 건다. 더 충격적인 건 구스타브 아돌프 2세 동상을 둘러싸고 지난 2016년 7월3일 발생한 이라크테러사건 희생자를 위한 추모회를 펼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17세기 국왕으로 스웨덴의 국력을 몇 배나 키운 구스타브 아돌프 2세는 예테보리는 물론 스웨덴이 지금의 국력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왕이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동상 주위에 낙서를 하고 돌아가며 초를 켜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되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동상에 낙서를 하고 자신들의 나라에서 벌어진 테러에 대해 무질서하게 추모행사를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기 때문이었다. EU로 인해 국경이 없어진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장점도 많지만 제어할 수 없는 단점도 많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택한 게 경제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란 게 이해가 됐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EU국가이긴 해도 유로가 아닌 자국 화폐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었다. 스톡홀름으로 가기 위해 체크아웃을 하네 프론트 여직원이 예테보리가 어땠냐고 물었다. 느낀 걸 얘기했더니 옆 사람 눈치를 보면서 자기도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무슬림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는 모두 무슬림이라서 불안하단 말도 덧붙였다. 그녀의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스칸디나비아를 안고 북유럽을 찾은 무슬림들을 손가락질 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그들을 머물 수 있도록 해준 국가에 대해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서로의 진정한 공존이 시작되기에.

이런



① 스톡홀름의 흔한 여름 풍경 ② 바사박물관 앞에 있는 노르딕박물관. 생활용품부터 사진까지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③ 바사박물관 내부에 전시된 실물과 똑같은 바사호 모습.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전함인 바사호는 1625년 건조돼 3년 뒤 체르 항해 때 진수식을 하자마자 열린 포문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침몰한 배다. ④ 자연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예테보리에 자전거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⑤ 스웨덴 제2의 도시 예테보리 도심. 트램이 눈길을 끈다. ⑥ 예테보리 중앙역. 왼쪽 안내관광판에 스톡홀름 중앙역에 간다고 적혀 있다. ⑦ 2016년 여름에 발생한 이라크폭탄테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무슬림들이 예테보리 구스타브 아돌프2세 동상 아래에 촛불을 켜놓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추앙받는
살아있는 전설

세바스티앙 살가도

세 번째 이야기

"나의 사진은 예술도 아니면 단지 인간 비극을 기록한 것도 아니다. 내 사진에서 나는 가장 최악의 조건속에서도 살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표현하고 싶었다."

세바스티앙 살가도는 1944년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 작은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 상파울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에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다.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서 농업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 한 그는 1971년부터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커퍼레이션에서 경제학자로 근무하며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하게 된다.

아프리카는 매혹적이고 신비한 대륙인 만큼 오래 전부터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왔고 제국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민족, 국가 간 분쟁이 잦은 곳이다.

상황이 그러다보니 살가도가 본 아프리카의 당시 모습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다.



이 때 그는 아프리카의 참상을 경제학 보고서가 아니라 사진으로 세상에 알리는 일이 더욱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건축학을 전공한 아내가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를 빌려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살가도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며 1973년부터 사진가로 입문하여 활동하게 된다. 그는 취재 스타일도 유명하다. 테마가 정해지면 수년동안 몇 달씩 피사체와 동고동락하며 사진을 찍는 작업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중남미 지역을 돌아다니면 인디언 농부들의 일상을 담은 사진집 <다른 아메리카인(Other Americans)>은 1977년 시작해 1983년까지 7년 동안 작업해 완성했으며, 1987년부터 1993년까지 7년간은 중국, 인도, 소련, 방글라데시, 쿠바, 프랑스, 브라질, 미국 등 세계 26개국에 흩어져 있는 40여개의 작업현장을 찾아다니며 노동자를 테마로한 사진집을 만든다. 그리고 이민, 난민, 망명자 시리즈 또한 1993년에 시작해 7년이란 기간에 걸쳐 세계 43개 국을 돌며 매년 9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완성한다.

살가도는 오랜기간 발로 뛰어다니며 전쟁과 빈곤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생생히 담아냈다. 그러나 살가도의 사진은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고통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모습. 살가도는 바로 그들의 긍정적 삶을 카메라 렌즈에 담은 것이다.

살가도의 사진은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지구촌 노동자와 빈민들이 보여주는 삶의 의지에 주목해왔으며 인류애라는 보편적 감성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치밀한 취재와 아름다운 사진으로 세계의 포토 저널리즘을 선도해 온 살가도, 그는 몇 달씩 피사체와 동고동락하며 사진을 찍는 작업 방식으로 유명한데 현재도 여전히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최고의 사진가로서의 명성을 얻게된 그는 1984년부터 10여년 동안 '매그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다가 1994년에 매그넘을 탈퇴한 후 부인과 함께 아마조네스 이미지(Amazonas Images)를 설립한다. 2001년부터는 '유니세프'특별대표로 활동하며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으로 아프리카 소아마비 박멸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지구의 인간과 자연, 생물의 원시적 관계를 테마로 [제네시스Genesis]를 촬영 했다.

휴머니즘 다큐의 백미를 보여주는 사진가에게 수여하는 유진 스미스 상 이외에 50여 개의 세계보도사진상을 수상한 그는 지상 최고의 포토 저널리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일보 사진부 기자 **김진홍**

사랑스런 봄 햇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되던 한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주춤하고 한낮엔 포근한 햇살이 낮설게 성큼 다가온 요즘이다.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피부는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느끼는 만큼 외부환경에 맞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겨울에서 봄으로 향하는 환절기에는 연약해진 우리피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면 피부 혈액순환이 둔화되어 표피가 거칠어지며 피부건조증이 나타나 결국 민감한 피부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봄철에는 공기 중의 먼지나 꽃가루 등에 의해 알레르기가 유발되며 자외선의 양과 강도의 증가로 피부탄력이 저하되고 잔주름 및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한 봄철 피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자외선으로부터의 피부보호가 중요하다.

자외선에 대비하기 위해 시판되는 수많은 자외선차단제 중 기본적으로 체크할 사항이 바로 자외선차단지수이다. SPF라고 표기된 차단지수는 자외선B를 차단하는 수치이며 일상생활 기준으로 25~30정도가 보편적이다. PA라고 표기된 것은 자외선A를 차단하는 수치로 '+'가 많은 것이 차단효과가 높다. 그 외 자외선산란제가 과잉 함유되어 피부표면에 백탁 상태로 발리는 것을 피하고 발림성이 좋은 것을 선택한다. 외출하기 30분전 도포하고 2~3시간 간격으로 발라준다.

SPF와 PA는 무엇인가?

SPF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경우 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낸다. SPF는 약 15분간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 만약 30의 경우엔 450분, 약 7시간 동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PA는 UVA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PA, PA+, PA++, PA+++ 등으로 +가 많을수록 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 일상생활: ++정도의 제품이 적당하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스킨케어 후 소량을 두드리면서 여러 번 도포한다.
- 실내 생활: SPF 15~25, PA++ 지수가 적당하다
- 야외활동 및 해변: SPF 30~50, PA+++지수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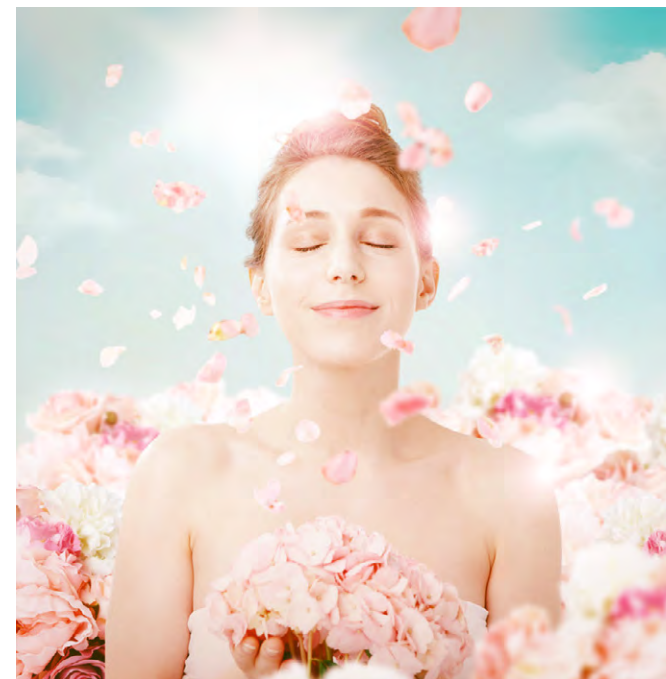
두 번째, 대기 내 오염물질이 흡착된 피부표면에 3단계 클렌징을 한다.

피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클렌징은 봄철 피부관리의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 꽃가루, 이물질 등이 피부에 흡착되어 있기 때문에 외출에서 돌아온 즉시 깨끗이 손을 씻고 클렌징을 시작한다. 클렌징을 할 때에는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방법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단계로 눈과 입술 메이크업을 전용 리무버로 지운다.
2단계 클렌징로션 및 오일 등으로 피부결 반대방향으로 손가락을 굴려주듯 구석구석 클렌징한다.
3단계는 신진대사의 활성화로 과잉 생산된 피지를 주1~2회의 딥클렌징을 한다. 딥클렌징 후에는 건조해진 피부 예방을 위해서 스킨→에센스→보습, 영양크림 순으로 마무리 관리를 잊지 않는다. 주1회 정도는 피부관리실을 통해 전문가로부터의 스킨케어를 받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클렌징을 할 때에는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방법과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정상피부일 경우 : 아침세안은 클렌저를 사용하지 않고 미온수로 세안한다. 저녁세안은 수분감 있는 로션타입 클렌저를 선택한다.
- 건성피부일 경우 : 유·수분이 모두 부족한 건성피부는 세정력이 강력한 클렌저를 사용하면 각질이 생기거나 더 건조해지므로 촉촉한 로션타입의 클렌저를 선택하여 세안 후에도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
- 지성피부일 경우 : 유분이 많은 지성피부는 외부의 먼지가 피부표면에 흡착되기 쉽고 세균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꼼꼼히 클렌징을 해 주어야 한다.
- 복합성피부일 경우 : T존 부위는 피지과다 분비로 번들거리고 U존 부위는 유·수분이 부족하여 피부당김 현상이 있어서 다른 부위에 따라 클렌징을 따로 해주는 것이 좋다. 주 1회 정도 유분이 있는 T존 부위에만 딥클렌징을 하여 모공속의 노폐물을 제거한다.



세 번째, 피부미백을 중점관리한다.

주근깨, 기미, 잡티 등 색소침착은 여름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이는 자외선이 강해진 봄철부터 생성된 멜라닌의 증가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점부터 피부미백관리를 하는 것이 과잉 색소침착을 막을 수 있다. 알려진 화장품 미백성분은 알부틴, 비타민 C, 유용성 감초추출물 등 다양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을 통해 홈케어를 꾸준히 하고 피부관리실의 이온토포레시스 등의 전문 미용기기를 이용하면 유효성분 침투를 용이하게 하여 미백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 이너뷰티에 집중하자.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춘곤증', 몸의 나른함에 따라 나타나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비켜가기 위해 비타민 A, C, E가 함유된 과일, 채소를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바이오리듬을 회복한다. 피부건강에 신경쓰는 만큼 우리 몸의 건강에도 귀를 기울여 피부 내·외면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한다.

여기까지 봄철 홈케어 피부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요즘은 홈케어나 에스테틱이 대중화되어 누구나 쉽게 스킨케어가 가능하다. 피부관리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며 간혹 잘못된 정보들도 여과없이 일반인들에게 전달된다. 스스로 케어를 하는 것이 편화 되는 추세지만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트러블이 발생하거나 여드름, 노화, 색소침착 등 문제성 피부를 호전시키고자 할 때는 피부전문관리실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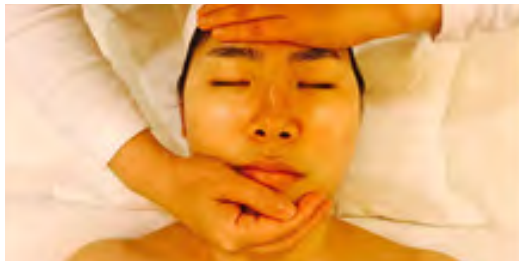
겨울철 잠든 피부를 깨우는 '초봄' 피부관리 단계



1.메이크업 및 오염제거 부드러운 밀크타입 클렌저로 가볍게 클렌징한다.
2.피부결 정돈 수분감이 많은 촉촉한 워터타입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한다.



3.각질제거 피부타입에 맞는 각질제거제를 이용하여 들떠있는 각질을 정리하여 피부톤을 정화시킨다.
4.1차 팩 각질정리 후 건조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줄 수분마스크를 도포한다.



5.마사지 피부의 전체적인 혈액순환, 안색정화를 위해 핸들링 마사지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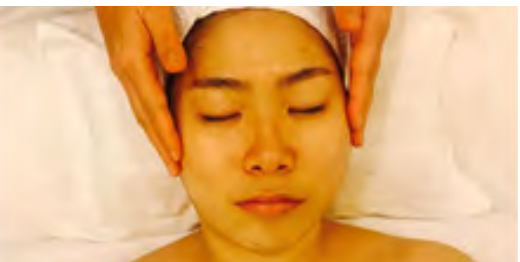
6. 2차 마스크 팩 비타민C, 알부틴 등 보습 재생성분이 함유된 미백마스크를 도포하여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고 보습감을 준다. (피부타입에 따른 마스크 선정)



7.눈가관리 건조해진 눈가에 탄력을 부여해줄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의 아이크림을 발라 침투시켜준다.



8.수분과 영양공급
히아루론산, 베타글루칸, 콜라겐 등이 함유된 제품으로 지친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건조함이 없도록 보습크림으로 마무리한다. (피부타입에 따른 크림 선정)



김정희건강피부관리실 원장 김 정 희



스포츠 활동 중의 근육과 힘줄손상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축구나 골프, 조깅 등의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근육과 힘줄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오늘의 주제가 ‘스포츠 활동 중의 근육과 힘줄 손상’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과 힘줄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나요?

우리 몸에서 근육과 힘줄은 둘 다 사지와 척추를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손발이나 팔다리가 움직이려면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고 이 힘을 뼈에 전달하기 위해서 근육의 양쪽 끝부분이 뼈에 부착 되어야 하는데 이때 굽은 근육부분이 가늘어 지면서 끈처럼 되어서 뼈에 부착되는 부분을 힘줄, 즉 한자로는 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근육은 양쪽 끝 부분이 힘줄로 되어서 위쪽과 아래쪽에 부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위쪽에 부착되는 부위를 근위 부착부, 아래쪽에 부착되는 부위를 원위 부착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앞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두박근이라고 부르고요, 이 근육의 근위 부착부는 어깨 쪽에 있으며 이를 “이두박건”이라고 부릅니다.

Q2. 근육의 양쪽 끝을 힘줄, 즉 건이라 부른다는 말씀이신데. 운동 중에 이런 근육이나 힘줄 파열은 어떻게 발생하니까?

운동 중에 발생하는 근육과 힘줄 손상의 원리는 상대방과 부딪히거나 낙상하거나 하는 외부 외력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과 힘줄은 뼈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분이므로 수축과 연장이 일어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육과 힘줄의 수축과 연장이 일정한 패턴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수축이 일어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수축이 일어나면 힘줄이나 근육의 한 포인트에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근육이 파열되거나 힘줄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Q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중에 어디에서 잘 발생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상지의 경우는 남자 분들이 주로 피트니스 중에 이두박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위해 바벨을 들 경우 갑자기 푹 하는 소리가 나면서 어깨 앞쪽 부분에 통증이 생기고 이두박근 부분이 볼록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두박건의 근위부 힘줄 파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 쪽에서 발생하는 근육과 힘줄파열의 대표적인 경우는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중에 갑자기 장단지 쪽에서 뜨끔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누가 뒤에서 자신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장단지 중앙이면 비복근의 파열, 뒷꿈치 쪽이면 아킬레스 힘줄의 파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Q4. 그렇군요, 축구와 같은 격렬한 스포츠의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골프나 조깅 같은 가벼운 운동 중에도 근육이나 힘줄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골프나 조깅 같은 경우에도 자주 근육이나 힘줄 손상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골프의 경우는 허리를 숙여서 티를 뽑거나 홀컵의 골프 볼을 꺼내려고 할 때 뜨끔하면서 허리 쪽의 근육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사면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앞서 말씀드린 장단지의 비복근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깅의 경우도 경사지나 예상치 못한 높낮이에 디딤 발을 내디디는 경우 뒤꿈치에 뜨끔하는 통증과 함께 아킬레스 건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Q5. 그럼 근육이나 힘줄 파열이 발생하면 모두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근육 파열은 급성기에는 얼음찜질과 휴식, 소염제 투약 등으로 치료하게 되며 운동을 쉬면서 약 2-3 주간 물리치료나 재활을 하게 되면 다시 운동에 복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파열된 근육 내에서 발생한 혈종, 즉 피 덩어리가 사라지지 않고 몽우리처럼 계속 만져지고 통증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힘줄의 경우는 아킬레스건은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두박건의 경우는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6. 끝으로 평소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나 힘줄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운동 중 근육이나 힘줄 파열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준비과정을 통해 몸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약간의 열기와 생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아마추어 분들은 운동 중에 과도한 욕심을 자제하여 승부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본인의 능력 이상의 과도한 동작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상이 되면 이러한 손상 후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W병원 정형관절외상센터 센터장 김성중



#1.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이해



푸르덴셜생명 김 강 수



매년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꼭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를 시작 하겠노라고..."
사실 한번쯤은 경제관련 기사를 통하여 읽어 보았을 내용을 이번 기회에는 제대로 알아두면 좋을듯하여 우리 엔젤들과 나눕니다.
먼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3년 전부터 국내 시중은행의 저축금리가 2%대를 밀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지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젊은 사람들도 장기, 복리투자를 이해하여 일찍부터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부터 정년퇴직을 앞두신 분들까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드문 편입니다. 안타깝게도, 금융업에 일하셨던 분들조차도 상세히 알지 못하고, 퇴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개인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 분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특 장 점	금리연동, 확정금리, 변액보험 누적하여 세금을 부가하지 않음 중신토록 수령시 유리	주로 금리연동(변동금리) 연말정산 세액공제(12%) 운용사 변경, 연금펀드로 변경가능
단 점	세제혜택은 비과세만 가능	사망시 연금수령기회 상실
가입한도	월납 150만원, 일시납 1억원	연간 400만원 (분기 300만원)
연금수령	중신, 확정기간 선택	확정기간 (최대 25년)
연금소득세	비과세 (10년 이상)	55세:5.5%, 70세:4.4%, 80세:3.3%
중도해지	원금손실 가능	공제금 환수+기타소득세 2.2%
가입회사	생명보험사	은행,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우리의 삶에서 지금 고민해야 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가 되면서부터 은퇴준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 부모님과 자식들의 뒷바라지 덕분에 자신들의 은퇴준비가 3순위로 밀려나 있었음을 실감하는 시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자식들이 독립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비즈니스 넘쳐날 정도로 많습니다.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개인연금 가입자가 뜻하지 않는 일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물론, 연금을 수령하다가 떠나는 경우에는 약간의 혜택이라도 보다가 생긴 경우겠지만, 개인사업자나 직장생활 시에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던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에는 하루빨리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를 함께 고민한다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을 함께 가입해야 함을 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가입 중에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그동안

납입해온 연금 저축금액을 그냥 일시불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십 수년간 유지해온 연금액을 일시불 형태로 수령하게 되어 많이 남지 않은 노후를 대비하여 꾸준히 불입하였던 매달 받는 연금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평소 비과세의 혜택을 받고, 확정금리, 변동금리, 변액 보험까지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보험대상자가 사망 후에도 계속하여 연금을 수령가능 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가능하면 주변의 전문가와 재무 상담을 함으로써 엔젤님들의 노후가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 국민의 70%가 가입중인 실손 보험과 갱신보험료에 대한 내용,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상품 등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DGB대구은행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립니다

DGB대구은행은 언제나 고객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당신의 내일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청정에너지, 천연가스 자동차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2000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천연가스 자동차는
도시지역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송용 천연가스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보다 푸르고 깨끗한 초록빛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염물질이 적은 청정 에너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된 깨끗한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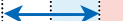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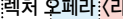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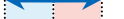
 공기보다 가벼운 안전 에너지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이 되어도 대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며 발화온도가 높은 안전한 에너지

 유지비가 절감되는 경제 에너지
유류 대비 경제적인 에너지

 생활이 편리해지는 실용 에너지
전세계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실용적인 에너지

Football & Culture Calender

03 201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th	fr	sa	su	mo	tu	we	th	fr	sa	su	mo	tu	we	th	fr	sa	su	mo	tu	we	th	fr	sa	su	mo	tu	we	th	fr	sa																													
대구 FC 경기 일정				03월 03일(토) 14:00 대구FC vs 포항스틸러스 경기장 : 포항스틸아드							03월 10일(토) 14:00 대구FC vs 수원삼성블루윙즈 경기장 : 대구스타디움																																																	
				03월 17일(토) 14:00 대구FC vs 인천유나이티드FC 경기장 : 인천천용구장 																																																								
													03월 27일(화) 14:00 대구 VS 대전 경기장 : 대구스타디움 보조경기장 																																															
																			03월 31일(토) 16:00 대구FC vs 전남드래곤즈 경기장 : 대구스타디움 																																									
문화·예술·체육			완벽한 로봇 디바, 에버 2018-03-01 ~ 2018-03-03 장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문화가 있는 날 앙상블시리즈 'Spring Concert' 2018-03-28 장소 : 봉산문화회관																																			
											오페라 유니버시아드 <파가리의 결혼> 2018-03-08 ~ 2018-03-10 장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뮤지컬<모래시계> 2018-03-09 ~ 2018-03-11 장소 : 계령아트센터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2018-03-31 ~ 2018-04-01 장소 : 계령아트센터																																							
																					렉처 오페라 <라 보엠> 2018-03-16 ~ 2018-03-17 장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연극 '장수상회' 2018-03-17 ~ 2018-03-18 장소 : 봉산문화회관																																							
																														영아티스트 오페라 <라 보엠> 2018-03-23 ~ 2018-03-24 장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전시·박람회											남충모 개인전 2018-03-06 ~ 2018-03-11 장소 : 수성아트피아																																																	
											대구국제섬유박람회 2018-03-07 ~ 2018-03-09 장소 : 엑스코																																																	
																					권기철 개인전 2018-03-13 ~ 2018-03-18 장소 : 수성아트피아																																							
																															대구건축박람회 2018-03-22 ~ 2018-03-25 장소 : 엑스코																													
																																									제22회 대구 베이비&키즈페어 2018-03-29 ~ 2018-04-01 장소 : 엑스코																			



〈Angel Club〉은

한국 정기간행물 윤리위원회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gel Club〉은 대구FC의 후원단체인 엔젤클럽을 중심으로 대구시민들에게 대구FC 및 엔젤클럽 관련 소식을 전하고 교양을 전달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매거진입니다.

〈Angel Club〉을 만드는 사람들

- ▶ 발행기관 : 대구FC 엔젤클럽(회장 이호경)
- ▶ 발행·편집인 : 최준태
- ▶ 편집장 : 김승근
- ▶ 엔젤클럽 사무국 : 김종두, 김용하, 정연주
- ▶ 포토그래퍼 : 김진홍
- ▶ 편집디자인 : 김기대, 김정주
- ▶ 인쇄 : (주)케이프린텍(대표 한금재)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Angel Club〉은 독자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ngel Club〉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엽서를 통해 의견을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엽서를 보내주신 분 중 퀴즈 정답자 5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우.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gangel1004@naver.com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

받는 사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담당자앞
 TEL 053.602.7307 FAX 053.602.7306

4 2 0 6 4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Angel Club

*가입 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자 정보		가입번호	
성명 (회사명)	생년 월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소속	E-mail		
주소	추천인		

후원 금액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에 표시해주세요. 대구FC 홈경기입장권 구입비)
□ 100만원 이상 - ()원	

결제 방법
□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카드 결제

엔젤클럽 추천 약정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람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하는 "후원 릴레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추천시기	□ 바로 추천(아래의 추천 대상자 인적사항을 바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1주일 내 추천(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자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신 정보는 대구FC 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안내 사항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42064) 팩스 송부 : 053)602-7306 ※문의 사항은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구FC 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FC와 함께 만드는 멤버십 매거진 <Angel Club>은
대구FC를 응원하는 엔젤클럽의 후원지입니다. 독자님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내용과 다음 호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내용을 적어주십시오.

2. <Angel Club>을 읽고 편집부에 전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3. <Angel Club> 독자 퀴즈
엔젤클럽의 정신을 기리고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엔젤클럽 시상제의 이름은?

답 :

연락처 :

※엽서를 보내주신 분 중 퀴즈 정답자 5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안내

■ 가입방법

-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가입신청서 엔젤클럽 사무국 보관
- ▶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
 - Tel : (053) 602-7307
 - Fax : (053) 602-7306
 - Phone : 010-3861-4505 (대구FC 엔젤클럽 사무총장 : 김종두)

■ 후원금액

- ▶ 대구FC엔젤후원금은 엔젤회원의 의무로써, 대구FC의 재정안정화와 관중증대에 필요한 '대구FC홈경기입장권'구입비입니다.
 - ▶ 100만 원 이상 희망하시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 후원금 처리방법
 - 후원금은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지급되고 실제로 입장권이 지급되므로 사업장의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 ※ 참고 : 대구FC는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창단한 시민구단으로, 주식회사 이다보니 상법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결제방법

- ▶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카드 결제 시 엔젤클럽 사무실 또는 홈경기 시 엔젤상견례장소)
- ▶ 계좌번호: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가입 혜택 안내

- ▶ 기념품 : 엔젤클럽 자켓, 머플러, 사인볼(1회)
- ▶ 엔젤회원으로 각종 활동 참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2018 Vol.3

엔젤클럽 2018 3월호 독자선물 당첨자
정O서, 정O연, 성O제, 권O순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기재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대구FC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gel Club>은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기고나 사업제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처 /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우. 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gangel1004@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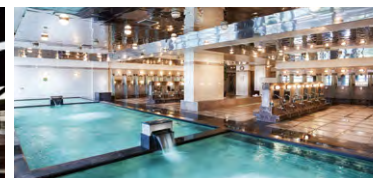
아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가
비즈니스 문화를 새롭게 탄생시키다!!

아티스(Artis)클럽은 품격 높은 사교의 장으로
비즈니스, 건강, 휴식, 힐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입니다.

내용을 예술로 FITNESS CLUB ARTIS 클럽문의 : 053) 793-9999



▲ 이탈리아의 테크노짐 최상위 아티스라인 구축



▲ 사우나



▲ 실내수영장



▲ 실내골프 연습장

이제 호텔리어에서 놀자!

PREMIUM
PACKAGE

·월~금요일 뷔페, 토~일요일 심비디움 바닷가재 석식제공
·퍼스트 라운지 시그니처 음료 제공
·패키지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 / 별 / 우 / 대 / 가 (2인기준)
₩263,000 PACKAGE
패키지 상품은 당일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디럭스 더블룸 or 디럭스 트윈룸 + 석식2인(더뷔페 or 심비디움)
+ 퍼스트 라운지 시그니처 음료 2잔 + 사우나2인 + 호텔조식(2인)

객실예약문의 (053)602-7171~3



Hotel Inter-Burgo DAEGU
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300번지) http://www.hotel-interburgo-daegu.com

04 2018

05 2018

▶ R 리 그 : K리그의 2군 리그.

※대구FC 경기일정은 국가대표 경기 일정 및 연맹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Daegu FC Match



- ▶ 대구FC vs 수원삼성블루윙즈
- ▶ 장소 : 대구스타디움
- ▶ 일시 : 2018년 3월 10일(토) 오후 2시



- ▶ 대구FC vs 전남드래곤즈
- ▶ 장소 : 대구스타디움
- ▶ 일시 : 2018년 3월 31일(토) 오후 4시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람회 · 공연

- ▶ 영아티스트 <라 보엠>
- ▶ 일시 : 2018년 3월 23일(금) ~ 2018년 3월 24일(토)
- ▶ 장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전 세계 신진 성악가들이 함께 만드는 공연. 영아티스트들을 위한 오페라축제에서 젊은 감성으로 그려낸 푸치니의 감미로운 사랑노래 오페라 <라 보엠>. 1830년대 프랑스 파리의 젊은 예술가들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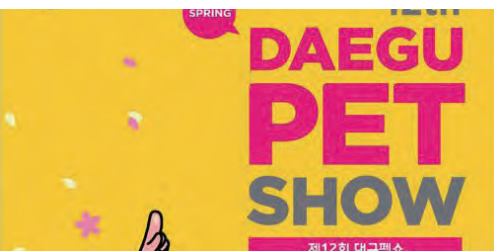
- ▶ 뮤지컬 <명성황후>
- ▶ 일시 : 2018년 4월 20일(금) ~ 2018년 4월 22일(일)
- ▶ 장소 : 계명아트센터

뮤지컬 <명성황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로서 1995년 초연 이래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대한민국 뮤지컬 최초로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진출! 최고의 뮤지컬 <명성황후>가 23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했다.



- ▶ 대구건축박람회 DAHOS 2018
- ▶ 일시 : 2018년 3월 22일(목) ~ 2018년 3월 25일(일)
- ▶ 장소 : 엑스코(EXCO)

"생활을 편리하게 공간을 아름답게". 하이테크시대의 새로운 주거공간 창조, 주택자재 · 장비의 비교를 통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박람회. DIY가구만들기, 목조건축 세미나, 토지 · 건물매입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 ▶ 대구펫쇼(Daegu Pet Show)
- ▶ 일정 : 2018년 5월 18일 ~ 2018년 5월 20일
- ▶ 장소 : 엑스코(EXCO)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5월 최고의 축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12회 대구펫쇼! 국제 도그쇼, 반려동물 행동심리 상담, 국내 최고 강아지 훈련사 강형욱 초청 세미나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박람회.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 BONO (For the Public Good)
PRO BONO는 "공익추구가 바로 최상의 수익모델"
이라는 대성그룹의 100년 비전입니다.

대성그룹 대성에너지(주)
겨울철 가스보일러 배기가스(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은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대성그룹이 앞장서겠습니다.

대성그룹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이끄는 대표적인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세계 에너지부족국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몽골 GEEP / 나란 / 만다흐 사업



에티오피아 사업



카자흐스탄 사업



방글라데시 사업



대성그룹이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친환경비영리단체인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 (The Green Organization)'이 주관하는 '2015 그린 애플 어워즈(Green Apple Awards)'에서 2개 부문에 걸쳐 국제 그린 애플 환경 어워즈(International Green Apple Environment Awards)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1 GK 조현우



Angel Club

